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세계 최고의 불교대학!
동국대학교 인재불사에 함께 해주세요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0-649193 (예금주: 동국대학교)
후원문의 : 02-2260-3300(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70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12월 28일) 2024년 2월 7일 수요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과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0일 봉행된 새해맞이 불교대축전에서 부처님 전에 연등 공양을 올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불교계-尹대통령, 새해 '국민화합' 기원

종단협, 1월 30일 새해맞이 불교대축전

불교계 30개 종단 수장 비롯해 단체장·정관계 인사 대거 참석
진우스님-尹대통령 함께 헌등
尹 "불교유산 효율적으로 보호"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한국불교 주요종단과 윤석열 대통령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국가와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대형 법석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교계와 법회를 함께하며 소통에 나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1월 30일 오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종단협 소속 30개 종단 수장을 비롯해 전국교구본사주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불자회장, 유인촌 문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 정각회 소속 의원,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와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주요 단체장을 포함 1000여 명이 운집했다.

1부 기원법회 첫머리를 장식한 육법공양에서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과 윤 대통령은 대형 괘불에 등(燈) 공양을 올리며 국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 밖에 각 종단 수장과 주요 단체장들도 공양물을 올려 뜻을 함께 했다.

진우 스님은 봉행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불교 사부대중과 한 해를 시작한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 뒤 대한민국을 이끄는 공직자들을 축원했다. 스님은 이어 "갑진년에도 한국불교의 첫 번째 화두는 마음의 평화다. 종교계, 특히 한국불교는 천년을 잇는 밝은 지혜로 국민의 평안을 위해 함께하겠다"며 조계종 차원에서 추진 중인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 계획을 밝혔다.

'선명상 프로그램'과 '선명상 전문 템플스테이'를 언급한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와 전통사찰은 문화와 자연, 정신문화가 결합된 세계적으로도 가장 독특한 복합유산의 보고"라며 "국민들의 정신적 휴식처로, 세계인들의 관광명소로 함께할 수 있도록 가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전통사찰의 각종 규제 해소에 힘을 보탠 윤 대통령과 보스턴박물관 사리 반환에 물꼬를 튼 김건희 여사에게 재차 감사를 표했다.

진우 스님의 적극적인 환대와 감사 인사에 윤 대통령도 부처님 가르침이 민족의 길을 이끈 등불이었다고 상찬하며 불교계 사부대중을 향해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잼버리대회 당시 사찰 개방을 언급하면서 "나라 안팎이 여전히 어렵지만 항상 불교와 동행하며 따뜻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는 5월 개편되는 국가유산청 안에 종교유산협력관을 신설해 불교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며 "불교계 40년 숙원이었던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법이 통과돼 불교문화유산을 더욱 제대로 계승할 수 있게 됐다. 제가 관심 갖고 직접 잘 챙기겠다"고 밝혀 참석대중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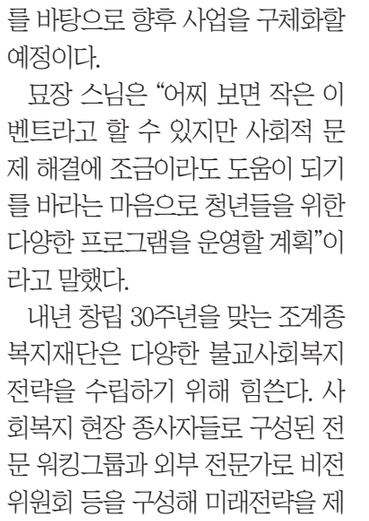
종단협과 함께 행사를 주관한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는 문화재관람료 감면과 각종 국가법령 정비가 이뤄진 지난해의 의미를 짚으면서 "불교리더스포럼도 더 많은 영역에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종교의 사회정책적 기능 확장에 마음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법회에선 종단협 부회장이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인 주경 스님이 개회사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축원을, 종단협 수석부회장인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이 신년인사를 맡았다. 이후 사부대중은 종단협 차석부회장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가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국민 모두가 용기와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지혜와 복락이 가득한 정토의 길이 열리길 서원했다.

이어 진우 스님과 윤 대통령, 주현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은 무대 아래 마련된 단상에서 발원지를 작성했다. 윤 대통령은 발원지에 '부처님의 자비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고 썼다.

교구 산하 복지법인 재정비 지역 불교복지 활성화 추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10개 교구 복지법인 설립 추진
현황 재정비로 운영컨설팅 나서
만남 템플스테이 · 아침공양 지원
청년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눈길'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사진)이 교구별 복지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불교사회복지 역량 강화에 나선다. 재단 중심에서 교구본사 중심으로 체제를 개편, 지역사회 불교복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시스템을 체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월 29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24년 신년계획을 밝혔다. 재단은 올해 복지재단 미설립 교구본사를 대상으로 법인 설립을 추진, 교구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복지재단에 따르면 현재 재단이 위탁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전국 185개소다. 이중 100여 개의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재단에서 직접하면서 중앙에 부담이 가중돼 왔다.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한 복지 토대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복지재단은 교구본사의 법인 설립을 추진했고 최근 백양사와 봉선사가 법인을 설립하면서 교구본사 25개 중 현재 15개 교구본사가 복지재단을 운영하게 됐다. 조계종복지재단은 올해 미설립 교구본사의 복지재단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미설립된 교구본사 복지재단 설립 추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불교 사회복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면서 "이와 함께 현재 설립된 교구본사 사회복지법인인 산하시설 현황조사를 통해 운영현황을 재정비하고 안정화가 필요한 교구본사 사회복지법인에 운영컨설팅도 지원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 불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지난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던 미혼 남녀를 위한 1박 2일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를 확대 운영한다.

대학생 공양지원 프로그램 '청년 밥심-청춘 꽃피우다'는 청년 대학생들이 사찰에서 따뜻한 한 끼 공양을 나누며 몸과 마음을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 중 서울 소재 대학교 인근 사찰 5개 내외를 섭외해 매주 한 차례 대학생 100여 명에게 식사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묘장 스님은 "어찌 보면 작은 이벤트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적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창립 30주년을 맞는 조계종복지재단은 다양한 불교사회복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힘쓴다.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로 구성된 전문 워킹그룹과 외부 전문가로 비전위원회 등을 구성해 미래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3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후원모금과 재단 정책 사업도 다양화한다.

묘장 스님은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올 한 해 불교사회복지 활성화와 자비나눔 확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다듬고 보완해 대중 속으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불이와 자비를 실천하는 불제자로서 모두가 행복한 불국정토를 이루기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기2568(2024)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연수

귀의 삼보하옵고, 한국 비구니 전통의 대가람 운문사,
수행과 포교의 출가정신을 되돌아 보고, 동문들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연수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정진하시는 동문들께서는 부디 참석하셔서 지혜와 격려의 말씀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4년 3월 28일(목) 오후2시 ~ 3월 29일(금)
장소 마곡사 한국문화연수원

주최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주관 운문사 승가대학 27회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
문의 각 기수 반장스님에게 문의바랍니다.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석우 합장



조계종 3원 통합 방향, '효율·기능 강화' 방점

중앙종회 미래특위 3차 회의…조직개편 필요성 부각

의견수렴 위한 기초안 성안
교육원·포교원 종헌서 삭제
사문화된 조항 일부 수정도
소임자·원로 찾아 소통키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시대변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통합을 추진하는 조계종이 조직개편의 초점을 업무 효율성과 기능성 강화에 맞췄다. 이를 위해 종헌개정안 초안을 성안하고, 본격적인 종도 의견수렴에 나선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를 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 이하 미래특위)는 1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중앙종무기관 통합을 위한 종헌개정안 초안을 성안했다. 초안은 종헌에 명시된 교육원장과 포교원장, 사회복지원장 직위를 비롯해 교육원·포교원이 명시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원과 포교원을 종헌기구가 아닌 종법기구로 격을 낮추면서 기존 업무는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한 것. 여기에 부칙으로 종헌 시행을 2025년 4월 1일로 정해 유예기간 동안 관련 종법을 손본다는 취지다.

회의에선 종도들이 종헌개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개편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공유도 이뤄졌다.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조직개편 배경으로 현재 조직구조의 비효율·비체계·비시대적 문제를 꼽았다. 스님에 따르면 교육·포교원 별원 체제에서 인사와 재정, 입법제청 등의 역할이 총무원으로 집중되면서 별원의 위상과 의미가 유명무실해졌다. 또한 총무부의 승적·수계·법계 분야와 교육원의 교육·연수 분야가 분산돼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한계가 지적됐다. 재무부와 문화부 역시 전통사찰이나 문화재 관리에서 교집합 영역이 발생한다.

우봉 스님은 "각 부서별 기능 분리로 인해 세무, 국고, 대사회, 문화 및 콘텐츠, 대정부 정책 등 시대변화에 대한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 수립이 어렵다"며 "각종 위원회의 난립 등으로 관련 정책을 위한 통합적 내용 수립도 순조롭지 않다"고 조직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종헌개정 이후 조직개편은 기능별·분야별·유사성 등을 고려해 부서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부서 명칭은 종법개정안을 마련하며 정리할 예정이지만 행정·문화포교·교무·대사회·자산활용·기타 분야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우봉 스님의 설명에 대부분의 위원들은 공감을 표했다. 여기에 더해 교육원과 포교원, 미래본부에 설치된 각 연구소 통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앞서 교육부장을 역임한 진각 스님은 "각 연구소 인원과 예산도 제한적이고, 현 총무원장스님이 교육원장으로 계실 때도 고민하셨던 부분"이라며 "기획실과 논의해 이 부분도 같이 다뤄보겠다"고 말했다.

미래특위는 교육원과 포교원을 삭제한 종헌개정안에 현재 사문화된 내용도 함께 수정하기로 했다. 승려노후복지원을 설치한다는 내용은 승려노후복지기관으로, 불교사회복지원은 불교사회복지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미래특위는 오는 3월 개원하는 중앙종회 임시회 종헌개정안 상정을 목표로 종도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초안을 바탕으로 원로회의, 중앙종회 의장단, 5원장, 종책모임, 본사주지 등과 이른 시일 내에 소통하기로 결의했다.

조계종 제15기 교육위원장에 금강 스님

교육원, 1월 31일 위촉식 개최
장학위원 성화 · 원명 스님 위촉


교육위원 금강 스님(사진 왼쪽)이 범해 스님에게 위촉장을 받고 있다.

조계종 승가교육 자문기구인 조계종 제15기 교육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범해 스님)은 1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5기 교육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교육위원은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장 덕현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 △고운사화엄승가대학원장 등현 스님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정덕 스님 △통도사승가대학장 인해 스님 △송광사승가대학장 연각 스님 △운문사승가대학장 영덕 스님 △김종욱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장 등 9명이다. 임기는 2026년 1월 30일까지 2년간.

위촉식 직후 교육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금강 스님을 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지난 14기에 이어 위원장을 연임하게 된 금강 스님은 "교육원의 종책 방향을 자문하는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출가자 감소로 인해 교육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는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면서 "종단 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스님들이 다양한 의견들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는 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제7기 장학위원회 신규위원으로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 스님과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을 위촉했다. 교육원 교육부장 덕림 스님도 당연직 위원으로 합류했다. 신규위원 임기는 제7기 장학위원회 위원 잔여임기를 승계해 오는 10월 6일까지다.

신중일 · 김내영 기자

동국대-중앙승가대 통합 '없던 일로'

동국대와 논의 진전 없어, 3월 중 자구책 수립

1월 29일 제135차 이사회서
양측 모두 통합 부정적 기류

재정위기를 겪으며 지난해 11월 동국대와 통합 논의에 나서기로 한 중앙승가대가 통합 대신 자구책을 다시 모색키로 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35차 이사회를 열고, 지난 회의에서 결의한 동국대와의 통폐합 논의의 건을 사실상 없던 일로 결정했다. 대신 조계종 교육원과 학교 교원, 동문회 등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중앙승가대에 따르면 얼마 전 구성된 새 TF가 3월 말까지 자구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사회는 회의에서 중앙승가대와 동국대의 통폐합 논의가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은 "지난해 6개월 회의 끝에 동국대와 통폐합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논의 자체가 안 됐다"며 "동국대 측도 뜻이 없는 것 같다. 따라서 학교를 어떻게 되살릴지 방안을 다시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승가대는 지난 이사회 결의 이후 3개월에 가까운 시간 동안 동국대에 구체적인 통폐합 논의 제안을 하지 않았다. 동국대 역시 지난해 11월 자승 대종사의 생전 마지막 간담회에서 중앙승가대 합병 시 연간 80~100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양측 모두 통폐합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승가학원 이사장 진우 스님은 "지난 이사회서도 통폐합 논의는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이었다. 앞서 총장스님께도 몇 번에 걸쳐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기본교육기관 조정이나 행자교육원 설치 등 교육원과 여러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서 결론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회에서 이사진이 회의하는 모습.

이에 월우 스님은 "총무원 기획실과 총무부, 교수, 동문회 등이 모여 이미 두 번의 회의를 마쳤다. 3월 말까지는 자구책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사회는 이날 △2023회계연도 법인 및 대학 추가경정예산 심의의 건 △2024회계연도 법인 및 대학 예산 심의의 건 △임원 선임의 건 △정관 및 정관시행규정 변경의 건 △교원 신규임용의 건을 처리했다. 절차상 하자로 취임이 반려된 당연직 개방이사에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을 재추천했으며, 교육경력 일반이사 혜도 스님 후임으로는 정완 스님을 선출했다. 또한 신규 교원으로 불교학부 불교학·역경학전공에 향산 스님, 불교사회학부 사회복지학전공에 김정희 교수를 임용키로 했다.

윤호섭 기자

태고종 중앙종회, 상임분과위원회 구성

1차 워크숍…시각 스님 "대의기구 사명 다하자"



태고종 제16대 중앙종회 상임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상임분과위원이 확정됐다.

태고종 제16대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는 1월 29~30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1차 워크숍을 갖고 상임분과위 배정을 마쳤다.〈사진〉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향후 종정감사 일정 및 계획을 확정해 실시키로 했다.

각 상임분과위원장으로는 △총무분과위원장 원일 스님(향림사) △교육분과위원장 승윤 스님(옥정사) △문사분과위원장 정광 스님(문수암) △재경분과위원장 지공 스님(도선사) △법사분과위원장 지관 스님(태곡사)이 이름을 올렸다.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은 입재식 개회사를 통해 대의기구로서 중앙종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시각 스님은 "제16대 중앙종회에 보내는 종단과 종도들의 기대는 더욱 그 깊이와 무게가 크고 넓다"면서 "종도의 권익을 향상하고 보장하는 종도 대의기구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재식에 특별히 참석한 원로회의 의장 도광 스님은 격려사에서 '욕궁천리목(欲窮千里目) 경상일층누(更上一層樓), 천리를 내다보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 다시 또 누각의 한층을 올라서다'는 글을 인용한 후 "치열한 검증과 만법을 아우르는 포용심으로 후대에 길이 본보기가 될 전범을 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오늘 우리가 내딛는 발자국이 향후 태고종 후학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4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안내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Ⅰ	월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2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Ⅱ	수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3학년	각 배	각 배	목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등 일반인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전형일정 | 2024년 1월 8일 ~ 2월 28일
■ 개 강 | 2024년 3월 첫째주 3월 4일 (월요일)
■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장 김 향 천 합장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걸음에 '번뇌' 소멸, 절에 '지혜' 서원

수원 봉녕사 제1기 여성출가학교 일보일배 정진

수원 봉녕사=김내영 기자

금탑에서 대적광전까지
약 2km 구간서 일보일배
발원문 낭독·발우공양도
"출가학교가 선행 뿌리"


여성출가학교 도감 도연 스님을 따라 일보일배 수행으로 스스로를 점검하는 행자들.

부처님께 다가가기 위한 수행자들이 큰 걸음을 내딛었다. 한걸음에는 일체 번뇌망상이 비워지길, 절 한 번에 진리와 지혜를 깨닫길 간절히 발원하며 정진을 이어갔다.

수원 봉녕사 제1기 여성출가학교(학교장 진상 스님, 봉녕사 주지)에 입교한 11명의 행자가 1월 31일 경내 금탑 앞에서 일보일배를 진행했다. 여성출가학교 한 달 여정 가운데 3분의 1이 지난 지금, 스스로를 점검하고 수행자로서의 초심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었다.

아침 8시, 습의(예행연습)를 거쳐 본격적인 일보일배를 준비하는 행자들의 눈빛이 사뭇 진지했다. 목장갑을 힘껏 당겨 손에 끼곤 여성출가학교 도감 도연 스님의 목탁 소리에 맞춰 조금씩 걸음을 옮겼다.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11명의 행자는 석가모니불 정근과 함께 1보 걷고 1배를 하며 몸과 마음을 낮추고 하심을 익혔다. 여성출가학교 입승 능윤 스님, 봉녕사 교무 여요 스님, 율감 선정 스님이 행자들 곁에서 정진하며 힘을 북돋았다.

이들은 금탑을 세 바퀴 돌고 대적광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절을 하며 약 2㎞ 구간을 이동했다. 몇몇 행자는 다리의 힘이 풀려 비틀거리기도 했고, 곳곳에선 연신 참회의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힘든 기색이 역력했지만 함께하는 도반들에 의지해 한걸음씩 나아갔다.

대적광전 앞에 다다른 행자들은 맞이한 건 여성출가학교 교장이자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 스님은 도착한 행자 한 명 한 명을 격려했다. 진상 스님은 "여성출가학교가 1월 22일 고불식을 봉행하고 열흘이 흘렀다. 전 일정의 3분의 1이 지나는 시점이다. 공부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 걱정이 많았는데,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오늘에 이르러 감사한 마음"이라며 "절은 운동 효과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복덕과 지혜를 구족한 부처님께 '나'라는 아만심과 아집을 내려놓는 수행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담마빠다' 중 한 구절을 읊으며 "한 달간의 출가학교가 세세생생 여러분의 삶을 바르게 지탱할 수 있는 선행의 뿌리가 되길 바란다. 출가학교의 원만회향을 위해 부단히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일보일배 정진은 칠정례를 외고, '이산혜연선사 발원문'과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여래향(54) 행자는 "지금껏 아만심에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아왔다. 참회한다"며 "온전히 부처님 앞에 절을 하며 '하심'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행자들 가운데 가장 어린 마니주(17) 행자는 "중간중간 발이 꼬꾸라질 만큼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지만, 도반들 덕분에 끝까지 해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버텨냈다"며 "평소에 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이었다. 성격이 차분해지고 세상에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제1기 여성출가학교는 2월 17일 회향식을 봉행한다.

대통령 설 선물 '십자가 그림 포장' 논란

대통령실 조계종에 공식 사과
이관섭 비서실장 · 황상무 수석
"불교계에 결례…용서해달라"


윤석열 대통령 명의로 발송된 설 선물에 사용된 소록도 교회와 성당 그림.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 각계 인사에 보낸 설 선물이 기독교 상징물 그림으로 포장돼 논란을 빚은 가운데 대통령실이 불교계에 공식 사과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2월 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비서실장은 "부주의했다.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며 "(불교계를 위해) 좋은 뜻으로 마련한 명절 선물에 이웃 종교 표식을 넣는 결례를 범했다. 용서해달라"고 사과했다.

이 비서실장은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그는 "아직 발송되지 않은 선물은 바로 수거해 포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미 받은 분들에게는 따로 죄송한 마음을 전하겠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놀라긴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빠르게 해명해줘 다행"이라며 "이전 다른 정부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땐 대응이 부족해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고 밝혔다. 스님은 그러면서 "(선물 포장이) 의도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성의를 보여줬으니 종도들에게 이해를 구하겠다"며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교계를 비롯한 각계 원로, 제복 영웅,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 인사들에게 명절선물을 발송했다. 선물은 차례용 백일주, 유자청, 잣,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됐는데, 불교계를 위해선 특별히 아카시아꿀, 유자청, 잣, 표고채를 준비했다. 그러나 선물을 담은 상자에는 묵주를 들고 있는 여인, 십자가, 교회, 성당 등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센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환자들의 미술작품을 소개한 것"이라고 했지만, 기도문 등이 적힌 엽서가 선물상자에 함께 담겨 물의를 빚었다. 김내영 기자

홍익대 불교학생회 '홍연' 13년 만에 재창립

1월 28일, 서울 국제선센터서 창립법회 봉행

법원 스님 · 양형우 교수 추진
작년 9월부터 준비…회원 31명



국제선센터 주지 법원 스님을 비롯해 홍연 재창립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

홍익대 불교학생회가 13년 만에 재창립했다.

홍익대 불교학생회 '홍연(弘緣)'(회장 남궁백)은 1월 28일 서울 국제선센터 대적광전에서 재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법 전하며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1965년 창립한 홍익대 불교학생회는 탄탄한 조직력으로 활발히 운영되다 1998년 IMF 당시 활동이 주춤해졌고 2011년 결국 명맥이 끊겼다.

13년 만에 이뤄진 이날 홍익대 불교학생회 재창립에는 국제선센터 주지 법원 스님과 양형우 지도교수의 노력이 있었다. 중앙승가대 재학 시절 한성대 등에서 지도법사를 한 경험이 있는 법원 스님은 깊은 역사를 가진 불교동아리가 사라진 것에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에 국제선센터 신도부회장 양형진 법학과 교수와 의기투합했고 몇몇 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재창립이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 이름을 '홍연'이라고 지었다. '홍연'은 '홍익대에서 만난 인연'의 줄임말이다. 이어 SNS와 학교커뮤니티를 통해 회원모집에 나섰다. 10월부터는 2주에 한 번 목요일 오후 6시 기초교리 수업을 진행했고 국제선센터에서 템플스테이도 한 차례 진행하며 신행활동을 겸한 홍보를 이어왔다. 12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홍연'에는 현재 31명이 가입한 상태다. 3월 새학기부터는 신입생 니즈에 맞는 홍보활동으로 회원모집에 진력한다는 계획이다.

양형우 '홍연' 지도교수는 "부처님 가르침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은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홍익대의 이념과 일맥상통한다"면서 "대학생불자들이 자리이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남궁백 '홍연' 회장은 "동아리를 통한 인연으로 회원들이 꾸준히 활동하며 부처님 법향이 전해질 수 있도록 늘 정진할 것"이라고 발원했다. 임은호 기자

사찰음식·선화, 국가무형문화재 되나

문화재청, 신규종목조사 실시
국가 지정 종목 타당성 조사
생전예수재 보유단체 공모도

한국불교 전통 식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찰음식과 불교회화인 선화(禪畵) 등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1월 29일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 조사 계획'을 공개하고 "△사찰음식 △선화 △매사냥 △울산쇠부리소리 △한글서예 △가야진용신제 △소싸움 △태권도 등 8개 종목을 대상으로 신규 종목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불교만의 전통 식문화를 보여주는 사찰음식은 선불교의 선농일치 수행정신이 계승된 무형유산이다. 사찰음식은 모든 동물성 식품과 오신채를 금하고 있으며, 자연재료로 만든 천연조미료를 사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선화는 불교의 선 수행 과정의 하나로, 특정 화법이나 서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현재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으며 보유자는 남해 망운사 주지 성각 스님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올해 국가무형문화유산 21개 종목의 전승자를 인정할 계획이다. 동래야류, 가야금산조 및 병창(병창), 가사, 대목장, 자수장 등 13개 분야는 새로 보유자를 선정하며, 극락왕생을 위해 생전에 공덕 쌓는 불교 의례인 '생전예수재'는 관련 단체 공모와 조사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선정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반려동물 천도재’ 니즈 확산…‘펫 포교’로 이어지나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펫로스 증후군 반려인 증가
봉은사 등 천도재 요청 늘어
‘축생법당’ 조성한 천룡정사
심곡암 첫 ‘동식물 천도재’
원경 스님 “정례화할 계획”
“시대적 니즈 반영 고민을”


서울 성북구 심곡암은 1월 28일 경내 대웅전서 ‘일체 동식물 합동 천도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주지 원경 스님의 집전으로 천도의식이 봉행되는 모습.

“애견애묘 동식물등/ 유연무연 일체중생/ 지심소청 하옵나니/ 오늘법연 인연지어/ 이고득락 하옵기를/ 지심발원 하옵나니…”

서울 북한산 자락에 자리한 심곡암 대웅전에 반려동물과 인간의 탐욕에 의해 스러져간 동식물 영가의 천도 발원이 울려 퍼졌다. 서울 성북구 심곡암(주지 원경 스님)은 1월 28일 ‘일체 동식물 합동 천도재’를 봉행했다.

젊었을 적 취미로 사냥을 다녔던 김건화 심곡암 신도회장의 참회 발원에서 시작된 이날 동식물 합동 천도재에서 사부대중은 애견·애묘 등 반려동물과 일체 동식물 영가의 천도를 기원했다.

이날 심곡암 주지 원경 스님은 반려동물 천도재를 정례화할 계획을 밝혔다. 원경 스님은 “최근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반려동물 영가에게 경건하게 예를 갖춰 이고득락하게 하는 천도재를 봉행함으로서 남은 사람에게는 위안을, 동물 영가에겐 왕생극락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반려인들을 중심으로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뒤 상실감과 슬픔 등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펫로스증후군(Pet loss Syndrome)’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펫로스증후군’이 6개월 이상 지속될 시 정신과 진료를 받을 것을 조언한다. 자칫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심곡암 주지 원경 스님이 밝힌 ‘반려동물 천도재 정례화 계획’도 이 같은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동식물을 대상으로 한 천도재를 처음 지낸 곳은 강릉 현덕사(주지 현종 스님)다. 주지 현종 스님은 1999년 현덕사를 창건하고 첫 백중을 준비하던 중 어린 시절 장난을 치다가 빨랫줄에 앉은 새끼 제비를 죽인 것이 마음에 걸려 천도재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후 ‘사람으로 다친 영혼, 사람으로 위로하다’라는 주제의 동식물 천도재로 거듭났다. 불교의 천도재에는 “세상 만물에 불성이 있다”고 설하신 부처님의 ‘일체중생 개유불성’ 가르침을 따라 인간의 탐욕으로 목숨을 잃은 동물과 식물을 위로하고 그들이 육도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이 같은 불교 생명사상은 반려인들을 사찰로 불러 모으고 있다.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천도재를 지내주기 위해서다.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의 경우 자신의 반려동물의 천도재를 지내달라는 신도들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북구 길상사(주지 덕일 스님)는 지난해 백중 5재 당시 ‘반려동물 천도 발원 기도’를 진행했고, 많은 호응을 얻었다.

출가 전 수의사였던 봉은사 포교국장 공일 스님은 “반려동물 천도재를 지내달라는 신도들의 요구는 꾸준히 있어왔다. 하지만, 사람과 같이 천도재를 지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대중들의 요구들이 있는 만큼 도심 사찰 등에서는 반려동물 천도 전용 법당이나 공간도 고민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반려동물 천도 법당을 조성한 사찰도 있다. 영천 팔공산 천룡정사(주지 지덕 스님)는 지난 2019년 5월 경내에 ‘축생법당’을 조성하고 낙성식을 봉행했다. 천룡정사 주지 지덕 스님은 “동물과 인간은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반려동물 천도재를 봉행했는데, 기존 신도들이 거부감을 표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반려동물 전용 천도 법당인 ‘축생법당’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스님에 따르면 천룡정사에서 반려동물 천도재를 올리기 위해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사찰을 찾는다. 인천에서 왕복 8시간이 소요됨에도 반려견을 위해 7재를 모두 참석한 견주도 있었다. 지난해만 천룡정사에서는 반려동물 25마리의 천도재를 봉행했고, 최근에는 반려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천도재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1월에만 4마리의 천도재를 올렸다.

지덕 스님은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다. 그러다보니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들의 사연을 듣고 함께 염불하며 애도를 표하면 나 역시 울컥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천도재를 비롯한 여러 ‘펫케어’ 사업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교 포교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최근 천도재 요구 증가 등은 대중들의 니즈라고 볼 수 있다”면서 “반려동물 천도재 등에 대해 부처님 가르침과 어떻게 연관되는 살피고, 이에 대해 포교적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올 봄, ‘생활 참선’ 배우며 행복충전 해볼까

불교인재원 ‘영원한 행복, 생활참선 명상’ 개강

입문과정 · 심화 · 전문 · 지도자
요가명상 건강 프로그램 운영도

부처님 법으로 인재 양성 활동을 펼쳐 온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사진)이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 스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 생활참선 명상’ 봄 학기 강좌를 개강한다.

봄 생활참선 강좌는 입문코스와 각 2년제 수행코스인 심화반과 전문반, 그리고 지도자반까지 동시에 온라인으로 개강하며 줌과 네이버 생활참선 카페(https://cafe.naver.com/jungdo2018)를 통해 진행된다.

3월 5일에 개강하는 온라인 19기 입문과정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8주 동안 진행된다. 불교와 참선 이론을 공부해 정견을 세우고 하루 5분 좌선을 생활화(나를 바로 보는 하루 5분 선명상, 나바오)하며 일상에서 지혜롭고 행복한 삶으로 안내한다. 온라인 공부 중 5주 차에는 해인사 백련암에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하며 원택 스님께 성철 스님의 삼서근 화두를 받아 참선한다.

이번 봄 학기에는 코로나19 이후 대면 공부를 확대한다. 2기 입문코스는 3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서울 서초 대성사에서 열린다. 19기 입문코스는 3월 6일 저녁 7시 서울 종로 열린선원(두산위브 836호)에서 개강한다. 의정부 연꽃명상센터(가능동 세광빌딩)에서도 생활참선 명상 입문과정 1기가 3월 7일 저녁 7시 개강한다.

생활참선 심화반은 입문코스 수료자가 공부하는 2년제 온라인 참선 심화코스다. 3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개강하며 성철 스님의 한글 법어집 〈자기를 바로 봅시다〉와 화두참선 지침서 〈참선경어〉를 공부한다.

생활참선 전문반은 심화코스 수료자가 공부하는 2년제 참선 전문가과정이다. 3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진행되며 한국 간화선의 바른 길을 제시한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를 교재로 한다.

생활참선 지도자반은 전문코스 수료자가 공부하는 2년제 참선 지도자 과정이다. 3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진행되며 한국 간화선사인 나옹 스님의 〈나옹록〉과 조주 스님의 법어집 〈조주록〉, ‘매일매일 좋은날’의 운문 스님 법어집 〈운문록〉을 공부한다. 아울러 전 과정 합동으로 4월 20일 1박 2일 수덕사, 장곡사, 마곡사를 순례하며 신심과 발심을 다진다.

서초 대성사와 공동으로 불교대학 봄학기도 3월 5일 개강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열리는 대성사 불교대학은 〈고우 스님 육조단경 강설〉과 〈성철스님 신심명 · 증도가 강설〉을 교재로 박희승 교수와 함께 공부한다.

불교인재원은 심신의 건강을 돕는 요가명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대성사에서 3월 9일 토요일에 개강하며, 종로 열린선원에서는 3월 7일 목요일 오후 4시에 개강한다.

엄상호 이사장은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와 협력, 국가 등록 민간자격증인 명상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선명상 대중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010-4050-5969

임은호 기자

달마조직위, 청소년올림픽 선수 지원

호산 스님, 웰리힐리파크 찾아
이채운 · 이지오 선수 등 격려



달마조직위원회 위원장 호산 스님과 스노보드 선수들.

조계종 달마조직위원회(위원장 호산 스님)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출전 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선전을 기원했다.

달마조직위원회 위원장 호산 스님은 1월 29일 횡성 웰리힐리파크를 찾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스노보드 출전선수들에게 격려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호산 스님은 “이번 올림픽 스노보드 출전선수 모두 달마배 출신이다. 이채운 선수는 최근 남자 슬로프스타일에서 우승을 차지해 직접 응원하고자 왔다”며 “앞으로 올림픽을 비롯한 세계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해 부상 없이 준비한 것들을 잘 펼쳐달라”고 선전을 기원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한국 스노보드는 달마조직위원회 관심과 지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 자리에 함께한 선수들은 2026년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에서 나라를 빛낼 보배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산 스님은 불자로서 꾸준히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며 불심을 다진 선수들에게 옴자가 새겨진 목걸이를 선물했다. 보관 스님도 선수들 손목에 단주를 채워주며 좋은 기량을 펼칠 것을 축원했다. 이에 이채운 선수는 앞선 대회에서 수상한 금메달을 호산 스님 목에 걸어주며 화답했다.

윤호섭 기자

輦(연) 한 올 한 올의 정성이 명품을 만듭니다. (번)幡

사찰 모든행사에 필수적인 의식구

49재 천도재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등 각종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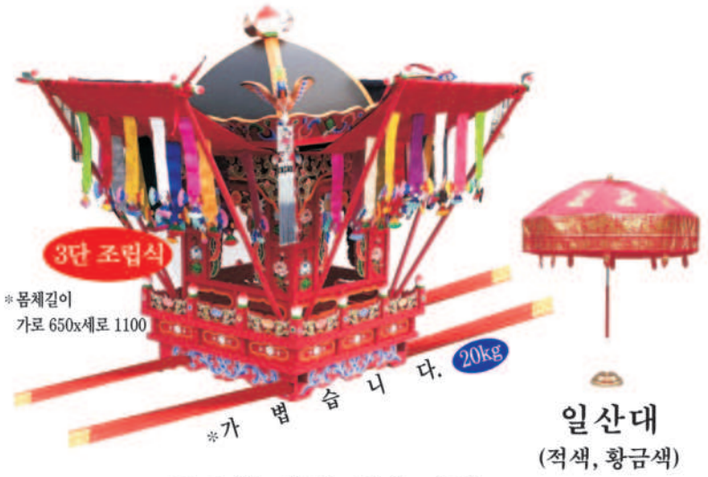

인로왕번 아미타번 삼신번 오방번 좌보처 지장보살 우보처


항마진언 보고번 영가번 구병시식 산신번 관세음 용왕번 대세지번 옴마니번

규격 : 480x2000

'공단위에 수놓은 정통번'

여러 종류의 번은 있어도
금과 은의가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한 번 구입 하시면 오래도록 장엄하고
여법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일산대
(적색, 황금색)

※소형 연도 있습니다.


시왕번 규격 : 180x1400


칠여래번 규격 : 350x1400


조계사 극락전

한국불교 전통의식구
주소: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 10길 8 풍산쉐르빌 105동 201호
전화번호:010-8441-6814

금강경 7만독 원력, 장애인 불자 눈·귀 밝히다

법산 스님 금강경 독송 7만독 성만 기념 인도순례 현장

인도 기원정사=임은호 기자

부처님이 처음 〈금강경〉을 설한 인도 기원정사에 20여 불자들의 〈금강경〉 독송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국대 전 이사장이자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의 〈금강경〉 독송 7만독 성만을 기념하며 이를 찬탄하는 법석이 현지시간 1월 26일 오전 7시, 인도 중부 마가다 사위성 남쪽 기원정사에서 봉행됐다. 우렁찬 〈금강경〉 독송이 이어지자 새벽녘 어둠이 채 걷치지 않은 안개 자욱한 기원정사에 연화장 세계가 펼쳐졌다.

이번 법회가 특별한 것은 부처님 발자취를 쫓아 1월 20~28일 8박 9일 일정 인도 순례에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사장 해성 스님) 장애인불자들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 3명, 청각장애인 2명을 포함한 20여 명의 순례자들은 부처님께서 24안거를 보내며 처음 〈금강경〉을 설법한 기원정사에서 〈점자 금강경〉을 활용한 법회를 봉행하며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다. 오랜 기간 간절히 원했던 부처님 자취를 만나러 가는 길.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서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환희심은 더 컸다.

법산 스님은 장애인불자들과 남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다. 스님은 1988년 장애인 전범팀 원심회의 모태인 원심포교당을 설립하면서 연화원 해성 스님과 처음 인연을 맺었고 이후 청각장애인들에게 수어를 통해 법을 전해왔다.

정년퇴임 후 본격적으로 매달 둘째 주 일요일 연화원 광림사를 방문, 장애인불자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문을 설하고 있다. 경전뿐 아니라 다양한 점자 불교서적 발간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불자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왔다.

이번 인도 순례는 법산 스님이 2022년, 〈금강경〉 독송 6만독 회향 공덕을 연화원 불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시작됐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연화원 광림사 법당에 〈점자 금강경〉을 보시한 스님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다음 회향법회는 〈금강경〉이 처음 설해진 인도 기원정사에서 열고, 다 같이 〈금강경〉을 독송하면 참 좋겠다"고 말했다. 해성 스님과 장애인불자들 가슴 한편에 서원이 세워진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막연했던 서원이 현실이 됐다. 기원정사에서 봉행된 이날

법산 스님, 장애인불자와 인도순례
기원정사서 금강경 독송 법회 봉행
참된 불자 서원 · 마음공부 다짐도
"차별 없는 세상 될 때까지 정진"

법회에서 순례자들은 수어와 점자로 〈금강경〉을 독송하며 〈금강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불법을 행함으로써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독송이 이어지는 동안 일부 순례자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흰 종이에 흰 점자로 가득해 얼핏 백지로 보이는 〈금강경〉을 품에 안고 손으로 정성껏 읽어 내려가는 시각장애불자들의 모습 자체가 뭉클한 감동을 전했기 때문이다.

20여 분 동안의 〈금강경〉 독송을 마친 장애인불자들의 얼굴에 감격과 환희심이 묻어났다.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한 역사적인 현장에서 점자로 〈금강경〉을 독송하니 어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번 인도 순례에 동참할 수 있어 환희롭습니다" (양만석, 시각장애인)

"부처님이 법을 설한 장소에서 봉행된 법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감개무량합니다. 부처님 가피와 법산 스님과 해성 스님의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송황주, 시각장애인)

역사의 현장에서 모든 순례자들은 순례단을 이끈 법산 스님에게 법문을 청해들었다. 법산 스님은 장애인불자 한 명 한 명 손을 잡아주며 쉼 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스님은 "〈금강경〉은 우리나라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이자 조계종의 모든 종도가 〈금강경〉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면서 "스스로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참된 불자의 서원을 세워 열심히 마음공부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깨달음을 추구하며 차별 없는 세상을 이룰 때까지 중단 없이 수행 정진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해성 스님은 법산 스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스님은 "법산 스님이 점자로 된 서적을 배포하는 데 물심양면 도움을 주셨기에 시각장애불자들이 부처님 법 공부를 놓지 않을 수 있었고 이렇게 인도 순례도 도전할 수 있었다"면서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야말로 참다운 정토이자 불국토"라면서 "장애인불자들이 걸림이 없는 순례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자를 찾아 먼 길을 걸어오셨을 석가모니 부처님. 그로부터 2600여 년이 훌쩍 넘은 뒤 아나율의 후예들이 부처님 발자취를 찾아 인도에 왔다.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에 안은 순례자들은 이 길을 함께한 도반과 함께 또 다른 순례를 꿈꾸고 있다.


순례자들은 부처님께서 머무셨다는 기원정사 전각에서 〈금강경〉 독송 법회를 봉행하고 꽃 공양을 올리며 곧 다가올 〈금강경〉 10만독의 원만회향을 발원했다.


시각장애인불자 양만석 거사가 〈점자 금강경〉을 손으로 읽어 내려가며 금강경을 독송했다.


해성 스님은 법산 스님의 법문을 수화로 전하며 청각장애인 불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순례자들은 각자의 발원을 담은 〈반야심경〉 사경지를 태우며 소원성취를 서원했다.


시각장애인불자들은 기원정사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을 순례자들에게 설명해주기도 했다.



기원정사에서 태국불자들과 함께 법회를 봉행한 순례자들은 서로의 순례를 소개하며 부단한 정진을 응원했다.

9일간의 인도순례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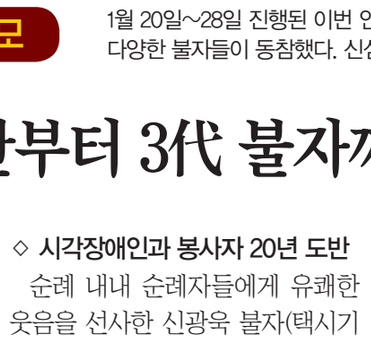
1월 20일~28일 진행된 이번 인도 순례에는 3일 전 군대를 제대한 2002년생부터 아흔아홉 살 백수(白壽) 노보살까지 다양한 불자들이 동참했다. 신심 나는 현장에서 만난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본다. 인도=임은호 기자

20년 도반부터 3代 불자까지…'佛心'으로 '한마음'


매일 아침저녁 예불을 집전한 해성 스님은 순례자들을 위한 축원도 잊지 않았다.

◇ **시각장애인과 봉사자 20년 도반**

순례 내내 순례자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한 신광욱 불자(택시기사)가 "변진만 불자(시각장애인)의 첫 인도 순례에 함께하기 위해 택시 잠시 휴업하고 시민의 발을 묶어 놓고 따라왔다"며 쾌활하게 웃었다. 신광욱 불자는 30여 년 전 라디오에서 우연히 해성 스님 이야기를 듣고 장애인들의 발이 돼주기 위해 연화원을 찾았다. 나들이 봉사로 맺은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시각장애인들과 20년 넘게 매주 수요일 전국의 산을 오른다. 이제는 척하면 척인 이들은 귀한 인연을 심어준 불보살님의 지극한 은덕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탐진치로 지은 업장을 소멸케 발원하며 부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며 열심히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넘게 함께하며 척하면 척인 시각장애인 변진만 불자(왼쪽)와 신광욱 불자.


99세 노모와 함께한 5~60대 자매, 30대 손주까지 3대 불자의 동참이 눈길을 끌었다.

◇ **엄마, 딸, 손주까지…3代 불자**

30세 손자부터 58·60세 두 딸, 그리고 99세 노모까지. 이번 순례에 3대에 걸친 불자가족이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사회복지사, 심리상담가, 스피치 코치로만 알고 있었던 이들은 나중에 보니 해성 스님의 속가 가족.

어머니의 지극한 신심으로 자연스럽게 불교에 귀의한 해성 스님이 출가해 장애인을 위한 법당을 마련하자 공양주 보살을 자청한 어머니는 올해 백수(白壽)를 맞았지만 여행 내내 꼿꼿했다. 수 시간 이동 중에도 쉬지 않고 염주를 돌리며 기도했고 성지에 도착해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순례를 시작했다.

건강 장수의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99세의 노보살은 "기도"라는 짧은 대답을 남겼다.

◇ **인도 순례의 비타민 청년불자들**

성지순례자들은 중장년층이 대부분이라는 생각하는 건 고정관념일 뿐! 이번 인도 순례에는 스피치 코치, 고등학교 지리교사, 지하철 승무원, 인도 순례 3일 전 군에서 제대한 청년까지 직업도 나이도 다양한 2030 청년들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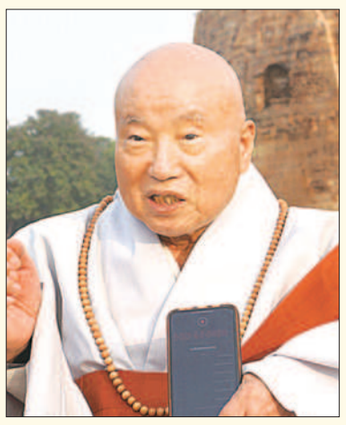
각자 처해진 상황은 달랐지만 이들이 순례에 참석한 이유는 같았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불자들의 원활한 순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다.

이들은 순례 내내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쏜살같이 나타나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각자의 소임을 충실히 해내 청년불자의 힘을 보여줬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부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인 청년들은 원활한 순례를 도우며 청년불자의 힘을 보여줬다.

"10만독 회향 때 인도서 또 만납시다"

인터뷰 | 법산 스님



세수로 올해 80세인 법산 스님〈사진〉이 최근 〈금강경〉 7만독을 성만했다. 2001년 11월, 부처님전에 금강경 10만독을 발원한 이래 긴 세월 하루도 빠짐없이 한결같은 정진으로 이룬 성과다. 스님은 매일 오전 3시 30분 일어나 예불을 드린 후 정구업진언과 함께 금강경을 독송해왔다.

이번 7만독 성만이 더욱 뜻깊은 것은 이를 기념하며 장애인불자들과 함께한 인도 순례를 원만 회향했기 때문이다. 동국대 정년퇴직 후 15년이 넘는 지금까지 매월 한 번씩 연화원에 방문, 장애인 불자들과 함께 금강경을 읽으며 부처님법을 전해온 법산 스님은 "장애인불자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이어진 해성 스님과의 인연이 벌써 3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라면서 "해성 스님의 수화로 청각장애인들이 법문을 듣고, 또 힘 모아 편찬한 불교서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손으로 법문을 읽는 모습은 언제나 벅찬 감동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법산 스님은 공식 석상에서 종종 해성 스님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제자'라고 말한다. 오랜 세월 장애인불자들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제자가 안쓰러울 때도 있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깨닫는 바도 크다.

스님은 "점자로 금강경을 읽는 불자들의 목소리에서 나 역시도 초발심을 다시금 새긴다"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불성이 있으며 부처님 가르침은 누구에게 평등하다는 점을 마음속에 품고 번뇌의 숲과 마음의 경계를 깨뜨리며 부처님 법안에서 행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도 순례를 회향하며, 법산 스님은 20여 년 전 발원한 10만독 성만까지 이제 3분의 2를 마쳤다. 스님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대중생활하고, 법문하면서 〈금강경〉 독송에 매진할 것"이라며 "10만독 회향 때 다시 인도에서 만나자"고 기대감을 표했다.

인도=임은호 기자

“혜욱 선사 수행정신 이어가자”

부산 대운사, 혜욱 선사 열반 21주기 다례재

대운사 2019년부터 봉행해와
취약계층·장학금 지원도 펼쳐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법문
“혜욱 대선사 수행 깊이 느껴”

이도경 부산지사장

평생 수좌로 수행정진의 삶을 살며 모범을 보인 일해당 혜욱 선사의 열반 21주기 추모법석이 마련됐다.

부산 대운사(주지 주석 스님)는 1월 26일 경내 법당에서 ‘일해당 혜욱 선사 열반 21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은해사 한주 정만 스님, 봉암사 주지 진범 스님, 법주사 수정암 한주 성정 스님, 대구 금향사 주지 태현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부회장 정묵 스님을 비롯해 혜욱 스님 상좌인 주석 스님과 문도들이 참석했다.

다례재는 조윤성 재즈피아니스트와 성승욱 바리톤의 추모공연으로 시작해 특별함을 더했으며, 문도를 대표해 성정 스님과 맏상좌 승일 스님이 인사말을 전하면서 은사 혜욱 선사의 삶을 다시 기리는 시간이 이어졌다.

대운사 재가신도들을 대표해 박대건 대운사 다라니회장과 신명환 신도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모든 내빈과 대중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내빈들도 추모사를 통해 혜욱 선사의 열반을 추모했다.


대운사 주지 주석 스님이 ‘일해당 혜욱 대선사 열반 21주기 추모다례재’에서 혜욱 스님 영단에 헌화하는 모습.

수불 스님은 추모법문에서 “오늘 참 세상의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추구했던 혜욱 선사의 일생이 마음에 깊이 와닿는다”며 “상좌들이 소임을 완수하고 일련의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일생 수행으로 전력을 다하신 스님의 수행이 더욱 깊이 느껴진다”고 격려했다.

주지 주석 스님은 “저는 기도와 수행을 출가자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어떤 불사를 하더라도 그 정신을 잊지 않았다”며 “혜욱 스님은 이 정신의 근원이 되어주셨다. 어릴 적 은사스님의 고무신이라도 닦아 드리려면 혜욱 스님은 고무신이 닳고, 비누가 닳고, 수세미가 닳고, 네 손이 닳지 않느냐며 아껴서 기도 수행하는 데 시간을 쓰도록 해라고 당부하셨다. 앞으로도 은사스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주석 스님은 2019년부터 대운사에서 혜욱 선사의 추모다례재를 봉행하며 유훈을 의미 있게 전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펼쳐왔다. 매년 겨울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발원하며 성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학업에 매진하는 불자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다례재에서는 불사를 위한 특별한 후원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대운사에서 수행 중인 이숙희 불자는 대운사 부설 남천선원 건립 불사금으로 3억원을 전달했다.

이숙희 불자는 “제가 살고 있는 남천동 지역에서 이웃종교 활동을 보고 마음 한편이 아쉬웠다. 청년들과 가족들이 함께 부처님 전에서 기도하며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발원했다”며 “주석 스님의 원력과 문화포교 활동을 보며 제가 생각한 불교문화공간을 꼭 이뤄주실 것이란 믿음이 생겨 이렇게 불사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강경 1000일 기도 원만회향 기원

행복선원 기도 100일 맞아 자현 스님 초청법회

행복선원(주지 윤광 스님)은 1월 28일 행복선원 법당에서 금강경 1000일 기도 입재 후 100일을 맞아 자현 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자현 스님은 “도심 속에서 포교당을 운영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여법하게 잘 운영하시는 것을 보니 원력이 대단하신 것 같다”며 “주지스님과 여러분의 힘을 합치면 행복선원이 부산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자현 스님은 1000일 기도 원만회향과 지속적인 정진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금강저를 선물했다.

행복선원 주지 윤광 스님은 “먼 길 마다하지 않고 한걸음에 와주셔서



보석 같은 법문을 해주신 스님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인사하며 그림을 선물했다.

행복선원은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기원하는 금강경 1000일 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매일 사시예불 때 〈금강경〉을 독송하고 100일마다 작은 회향의식을 가질 예정이다. 200일에는 대광명사 목종 스님의 특별법회가 예정됐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광명사, 어린이·가족 수계법회 봉행

광명유치원 원아 등 120명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 스님)가 1월 27일 지관전에서 ‘제3회 광명유치원 원아 및 가족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수계식은 어린이 불자들이 직접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육법공양으로 시작해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수계법사를 청하는 청사와 개도, 참회, 연비, 귀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어린이 45명을 비롯해 부모 등 총 120명이 수계를 받았다. 전계대화상은 춘광 스님이 맡았으며 갈



마아사리는 설혜 스님(해영사 주지), 교수아사리는 원공 스님(거광사 주지)이 담당했다.

춘광 스님은 “계를 지킴으로써 신구의 삼업을 깨끗이 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불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박수관 맑고향기롭게 부산 회장 자비나눔

설 앞서 2억원 상당 쌀 기부

박수관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회장이 설날을 맞아 소외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박수관 회장은 1월 29일 부산진구청 3층 회의실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박수관 회장은 백미 10kg 총 2700포대(1억원 상당)를 전달했으며, 백미는 홀몸 어르신 및 저소득가정,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에 전달된다. 전달식에는 박수관 회장을 비롯해 맑고향기롭게 임원과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이 참석했다.

박수관 회장은 여수에도 1억원 상당의 쌀을 기부했다. 전달식은 1월 31일 여수시청에서 열렸다.

박수관 회장은 “앞으로도 이웃이 소외되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한 마음으로 살피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상구불교연합 학생장학금 지원

28명에 각 30만원 전달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회장 심인택)가 1월 25일 부산제일새마을금고에서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장학금은 학생 28명에게 각 3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원했으며 라면 100박스도 후원했다. 전달식에는 경승실장 성문 스님, 심인택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장, 조병길 구청장, 엄정운 사상경찰서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심인택 회장은 “따뜻한 정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장학사업을 이끌고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경승실장 성문 스님은 “이 자리 만들어주신 신도회장을 비롯한 여러 내빈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승무북·삼고무북 범어사박물관에 기증

오덕자 부산대 명예교수 전달
“불교의례 더 많이 알려지길”

오덕자 부산대 명예교수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던 승무북과 삼고무북을 금정총림 범어사에 기증했다.

오덕자 명예교수는 1월 25일 범어사에서 주지 정오 스님을 만나 승무북과 삼고무북을 전달했다. 승무북과 삼고무북은 불교의례 가운데 사용되는 악기로, 이번 기증물은 부산대 수업 당시 오 명예교수가 활용하던 것이다. 오 명예교수는 불교의례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 범어사성보박물관에 기증했다. 이에 범어사성보박물관은 승무북과 삼고무북을 중정에 전시하고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는 장을 마련했다.

오 명예교수는 부산·경남무형문화재위원이며 2022년 ‘제68회 대한체육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과 오덕자 명예교수가 기증서를 들고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회 체육상’ 연구 부문에서 최우수상, ‘제65회 부산광역시 문화상’, 2023년 2월에는 황조근정 훈장을 수상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2021년 박물관 신축 이후 불화, 불교의례 공예품과 서예, 한국화, 전통 장인의 작품 등 다양한 유물을 기증 받아 전시하고 있다. 앞으로 성보박물관은 기증 유물의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 기증전과 이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지 정오 스님은 “전통과 문화의 소중함을 아는 민족의 미래는 밝다. 전통문화의 가치에 공감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한편 범어사는 같은 날 천왕문 일원에서 불기2568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시민과 부산의 안전을 기원하는 사천왕재를 봉행했다. 사천왕재에는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사) 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제15기생 학인모집

사단법인 영남범음범패연구보존회에서는 장엄한 통범소리인 영남범패의식을 6개월 과정으로 탁마할 학인 스님을 모집하여 개강하고져 합니다.

-아 래-

✻ 자 격 : 삭발염의한 스님 (일반불자 제외)
✻ 개강일 : 2024년 2월 28일 (음력 1월 19일 수요일) 오후 3시
✻ 매주 월·목요일 오후 3시부터 강의합니다. (주2회)
✻ 장 소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86번지 화장사(진영포교당)
✻ 과 목 : 초급반 - 예경의식(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 등)
중급반 - 사시불공, 49재 및 천도재 의식, 시식, 사물다루는 법
상급반 - 바라 및 착복무(오공양 작법), 복청게, 오공양소리 등
✻ 수강료 : 월 10만원 및 교재비 5만원

※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055)343-2267, 8700 원장 수암 스님 010-5488-7060

(사단법인) 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자연(기) 치유 힐링쉼터

자연(기)치유 원리는 우주에 늘 가득하여 전지전능하며 영원불멸하는 우주만물의 창조근원인 우주무한생명기운을 환자의 체내로 불어넣어 환자의 생명기운을 북돋움으로써 체내 손상된 체세포들이 지극히 빠른 속도로 정상적 건강세포로 원상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자연(기)치유는 기치유자가 환자의 치유를 위해 하는 일은 오직 우주 원기운 즉, 우주본성을 환자의 체내에 불어넣기만하고 모든 치유는 우주본성에 의해 저절로 되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내 일반기공사들의 기공치유와 그 원리측면에서 크게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광희기치유는 선천이 아닌, 후천적으로 생긴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자연(기)치유 힐링쉼터에서 새로운 삶을 누려보십시오.

치유대상 관절협착증, 신경통, 녹내장, 산후풍, 불면증, 통풍, 공황장애, 냉한별, 이명, 소화장애, 불안증, 심장질환, 호흡장애, 비염, 각종통증, 난치성 질환 등

NAVER 광희기치료

접수문의 010-8589-2679
충남 논산시 계백로 1012 (터미널 근처 차부약국 옆 2층)

선운사 전법위 출범…"2024년, 포교 원년"

1월 29일 제24교구 종회서 결의
15개 사찰 및 산하기관으로 구성
지역포교 협력 플랫폼 역할 담당
경우스님 "교구포교 초석 다지자"
운기 대종사 추모다례재 봉행도

조동제 전북지사장


경내 성보박물관에서 열린 교구종회에서 의원들이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전법위원회를 구성하고 2024년 갑진년을 '지역 전법·포교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선운사는 1월 29일 경내 성보박물관에서 불기 2568년 제1차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선운사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종지를 실행하기 위한 '제24교구 선운사 전법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출범한 '제24교구 선운사 전법위원회'는 교구 내 도심 사찰 및 지역별 거점 사찰 주지스님, 본사 국장스님들로 구성됐다. 전법위원회는 역량 결집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교류와 협력에 힘쓰며 '2024년 교구 활성화 사업 및 지원 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법위원회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위원장으로, 고문에는 중앙종회 의원인 군산 동국사 주지 재안 스님과 고창 문수사 주지 태효 스님이 위촉됐다. 자문위원으로는 내장사 주지 대원 스님, 부안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 부안 성황사 주지 무등 스님, 군산 관음사 주지 도천 스님, 임실 해월암 주지 보현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집행위원으로는 선운사 포교국장 해봉 스님, 홍보국장 동산 스님(상원사 주지), 템플스테이 연수국장 송원 스님, 군산 동국사 주지 재안 스님, 부안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정읍 보림사 주지 종진 스님, 광주 덕림사 주지 지현 스님, 고창 마하사 주지 정혜 스님, 선운교육문화회관장 수찬 스님으로 구성됐다. 사무국은 선운사 교무국장 성종 스님과 김강 선운사 기획과장이 담당한다. 집행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포교 방향을 논의하고, 전법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교구종회에서는 2024년도 예결산 심의, 본말사 성지순례, 기타 교구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교구종회 종료 후 가진 첫 번째 전법위원회 회의에서는 지역 단위 현황과 역량분석으로 불교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교구 내 브랜드 개발, 교구의 지역사회 공익활동 참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지역 인구 감소 및 불자의 고령화로 불교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지역포교를 활성화해 미래 불교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면서 "2024년을 지역 전법·포교 원년으로 삼기 위해 교구 전법위원회를 구성했다. 교구 대중 모두가 각각의 역할을 찾고,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이어 "새해에는 다시 한 번 포교 원력을 깊이 새기고 기한발도심(飢寒發道心)의 자세로 다 함께 정진해 나갈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선운사는 경내 대웅보전에서 운기당 성원대종사 제42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교무국장 성종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다례재는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해 운기문도 혜산 스님을 비롯해 재곤 스님, 대우 스님, 법현 스님 등 교구 원로스님들과 선운사 부주지 운천 스님, 내장사 주지 대원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문수사 주지 태효 스님,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 등 본말사 대중스님, 불자들이 참석했다.

"직접 체험하고 배우며 불교와 가까워지다"

불동이, 선운사서 템플스테이
12명 참여해 108배 · 차담 등



불동이가 선운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재창립된 군산대학교 불교학생 동아리 '불동이'가 불교문화를 체험하며 심신 수양의 시간을 가졌다.

군산대학교 불교동아리 불동이(회장 김윤하)는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고창 선운사에서 불교문화 체험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겨울 방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9명 회원 중 12명이 참여한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불교문화가 생소한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경험하고 몸에 익히는 기회가 됐다.

학생들은 지도법사 군산 관음사 주지 도천 스님에게 사찰예절을 배웠고, 선운사 연수국장 송원 스님이 들려주는 선운사 전각에 대한 설명과 선운사의 역사, 창건 배경 등을 경청했다. 또 참선 체험, 108배, 스님과의 차담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둘째 날에는 새벽예불과 사시예불에 동참하고, 도솔암을 참배했다.

권준홍 불동이 지도교수는 "이번 템플스테이가 학생들이 스스로 삶과 존재를 들여다보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입시와 취업 등 경쟁으로 인해 지쳐 있는 심신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고 삶의 길잡이나 가이드라인을 찾아가는 시간이 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하 불동이 회장(철학과 4학년)은 "불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사실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이번 템플스테이가 불교를 알아가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참가하게 됐다"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장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회원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운사 교무국장 성종 스님은 "선운사에서는 전법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포교 활성화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최근 재창립된 군산대 불교학생회가 열기를 띨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진안 쌍봉사, 어르신 위한 설 음식 나눔

1월 27일, 어르신 등 110가구에
떡 · 김치 · 달걀 등 떡국 재료 준비



진안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과 쌍봉사 반찬봉사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진안읍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명절 음식 꾸러미를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사진〉

1월 27일 진행된 나눔 봉사활동에는 김진옥 쌍봉사 반찬봉사단 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자원봉사단들이 참석해 백김치, 떡국용 떡, 달걀, 식용유, 부침가루로 구성된 명절 음식 꾸러미를 만들었다.

이날 만들어진 음식 꾸러미는 쌍봉사 반찬봉사단의 추천이나 마을 이장, 마을 부녀회의 추천을 받은 진안지역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80세 이상의 어르신 가정 등 총 110가구에 전달됐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갑진년 새해 첫 번째 반찬 나눔 봉사는 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떡국 식재료를 준비했다"며 "명절 음식 꾸러미를 받으신 어르신들이 따뜻한 설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역 포교사 위한 신행강좌 '눈길'

백양사, 즉문즉설 등 진행



포교사들의 바람직한 수행과 신행을 견인하기 위한 특별한 강좌가 열렸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1월 27일 경내 교육관에서 지역에서 활동 중인 포교사를 대상으로 주지 무공 스님의 즉문즉설과 수좌 일수 스님의 '달마혈맥론 강좌'를 진행했다.〈사진〉

행사에는 포교사와 신도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수행 방법의 어려움과 고민을 털어놨고,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참선 수행법 등에 대해 조언했다.

백양사는 매월 넷째 주에 정기적으로 포교사발심정진법회를 진행하며, 걷기명상·즉문즉설·'달마혈맥론' 강좌를 진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창원 반야사, 자비의 쌀 150포 기탁

1월 30일, 마산회원구청에



창원 화계산 반야사(주지 혜명 스님)가 설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비의 쌀을 기탁했다.

반야사 주지 혜명 스님과 경문 스님, 정수교 신도회 총무 등 신도회 임원들은 1월 30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을 방문해 자비의 쌀 150포(5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사진〉

주지 혜명 스님은 "소외된 계층이 다가올 설 명절에는 보다 풍요롭고 따뜻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쌀을 기탁하게 됐다"며 "나눔에 동참하는 지역주민과 신도들의 마음도 더불어 밝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마산회원구청은 반야사에서 기탁한 쌀을 관내 저소득층 120가구와 내서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마음여행 해외성지순례

일본 교토
벗꽃여행 4일
3월25일 출발~3월28일 도착(3박4일)
동참금 | 문의
일 정 | 인천–오사카–법륭사–선림사–남선사–청수사–은각사–동복사–아라시야마 천룡사–광륭사–동사–삼십삼간당 등 모두가 벚꽃이 만발한 사찰의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는 최고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2024년 5월17일~5월26일(9박10일)
동참금 | 문의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화청지) · 법문사(부처님 불지사리) · 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 최전방 성루) · 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화염산,고창고성,교하고성)–우루무치(천산천지)

중국 운강석굴,
오대산 성지순례 5일
2024년 5월16일 출발~5월 20일 도착
동참금 | 문의
일 정 | ▶1일 : 대한항공편으로 인천–북경–대동
▶2일 : 운강석굴–응현목탑–현공사–오대산
▶3일 : 오대산 5대봉–동대 망해봉–북대 협두봉–중대–취암봉–서대–계월봉–남대–금수봉 5대 전체 순례
▶4일 : 오대산–보살정–현통사–탑원사–수상사–북경
▶5일 : 북경–인천(대한항공)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2024년 6월07일~6월22일
동참금 | 문의
일 정 | 인천–성도–라싸–갼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순례 신청하신 분에게는 우주의 중심 카일라스 책을 드립니다.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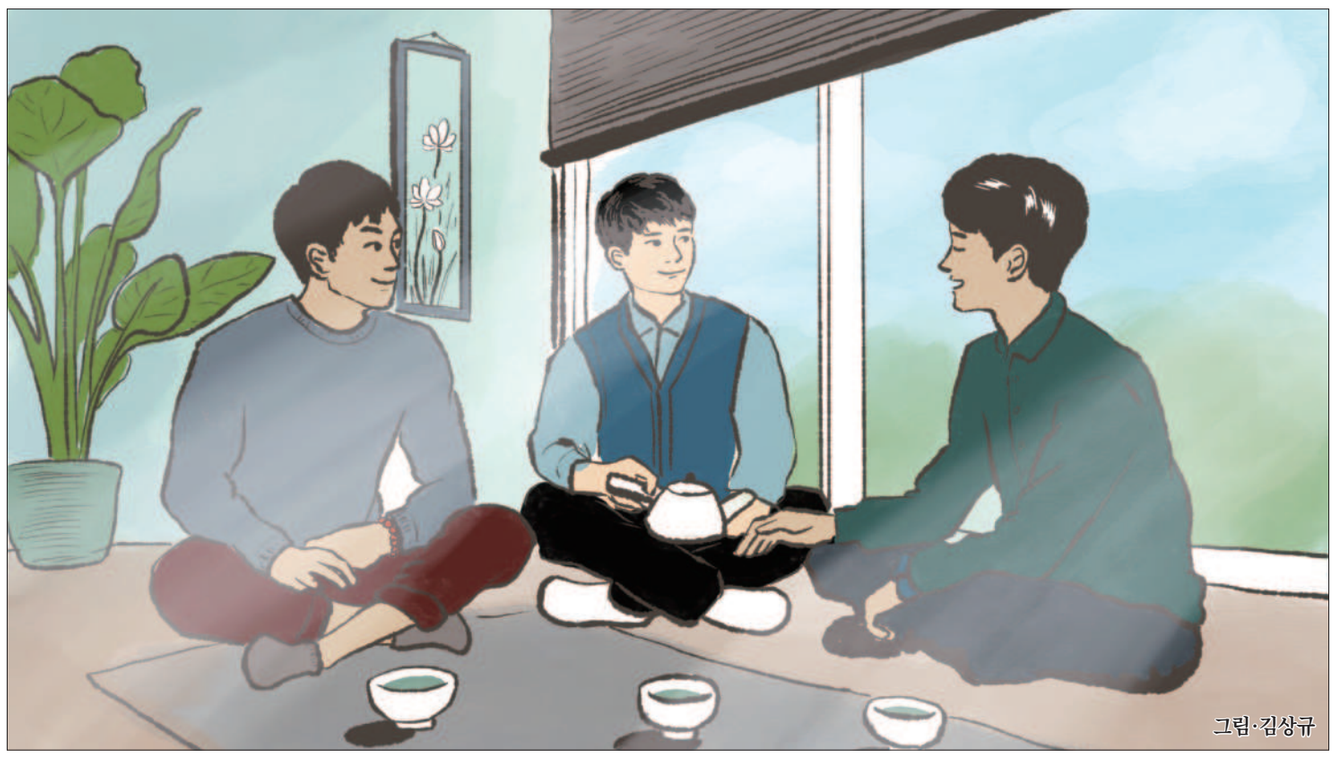
다름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도 가치

조계종 화쟁위원회

2023 갈등해결 성공사례 수기

③미래본부 사무총장상 박○○ 씨

동아리 단체티 제작으로 갈등
같이 차 마시며 대화로 풀어
의견 존중하는 문화도 형성돼



그림·김상규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학교 불교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입니다. 동아리 회장으로 동아리를 꾸려가며 생겼던 갈등을 불교의 관점으로 해결하고 조율해 나갔던 경험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동아리 화합을 위해 행사를 진행할 때 입을 옷을 구매하고자 하려하는데 갈등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동아리 단체티를 사려고 하는데 두 친구가 다른 의견을 가져 첨예한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여름에 잘 입을 수 있게 통기성이 뛰어난 기능성 티를 하자고 주장했고, 다른 친구는 사계절 안에 잘 받쳐 입기 좋은 면티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두 친구의 주장 모두 타당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티 주문 절차상 한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견 차이라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논의가 계속될수록 서로의 의견을 폄하하고 날이 선 말이 주고 가며 갈등이 더 깊어져 논점을 벗어나는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두 친구를 따로 만나서 왜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흥분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법우님은 머뭇거리더니 사실 이 논쟁이 생기기 전부터 갈등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전에 같이 토론법등 시간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자꾸 자기를 무시하거나 은근히 깔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어보긴 머쓱하고 괜히 기분이 상해서 혼자서만 생각하다보니 '저 사람은 날 싫어하는구나' 하고서 단정지은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 쭉 들어보니 상대에게 물어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서 자기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내린 듯 했습니다.

화쟁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표현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속상한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건 분명 오해일 것이니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어보자고 제안했고 자신도 그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법우님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도록 극단적인 입장보다는 중도 즉 중간의 길을 찾도록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셋이 모일 수 있는 동아리 방에서 따뜻한 차 한 잔씩 앞에 두고서 다도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두 법우님의 의견을 듣고 중재하며 서로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시간을 가졌고 저는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인 연기의 법칙을 적용하여 갈등의 원인과 결과를 다각도에서 조명하고자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연기의 법칙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리를 통해 법우들은 갈등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이해하게 되었고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최대한 배제하고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을 해보자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렇게 임원진들과 두 법우님 그리고 다른 법우님들과도 모여서 모두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며 두 선택지의 장점과 단점, 가격 재질의 특성 등 다각도로 바라보며 다른 의견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원활하게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빔으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화면을 띄웠고 워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가며 이야기 나누었고 정말 오랜 시간 토의 후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통기성이 좋은 반팔로 하자고 결정이 되었고 다른 옷이랑 입기에 좋은 면티는 이 다음에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후드티나 후드집업을 면 재질로 결정해서 다른 옷과 입을 수 있게 하자고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옳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배격하면 외눈박이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옳듯 상대도 옳을 수 있다는 이치를 안다면 평화로운 길이 열립니다. 논쟁의 장이 싸움이 아니라 배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양쪽 모두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갔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의 상당부분은 자세만 바뀌어도 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것이 최고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쟁은 너와 내가 함께 이기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갈등의 당사자를 갈등의 해결자로 바라보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두 법우들 모두 마음 상하지 않고 갈등을 해결해나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각자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었고 이는 우리 동아리의 화합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저는 불교의 화쟁사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이 개인적으로도 큰 성장의 기회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중재와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동아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화쟁이 내게 안겨준 평화

조계종 화쟁위원회

2023 갈등해결 성공사례 수기

④화쟁위원회 부위원장상 서○○ 씨

노름빚 지고 집 떠난 아버지
어머니 장례식 찾아와 참회
화쟁 새기며 증오심 풀어내



그림·김상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날, 아버지가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집을 나간 뒤 몇 년 만에 찾아온 아버지를 본 순간 언니는 "엄마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다가 떠났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길 와!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야.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언니는 아버지에게 삿대질을 해가며 악을 썼다. 허망하게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과 원망이 모두 아버지에게로 쏟아졌다. 나 역시 갑자기 찾아온 아버지가 조금도 달갑지 않았다.

내가 어린 시절, 아버지는 술과 노름에 빠져 지냈다. 노름으로 돈을 잃은 날이면 어김없이 술에 잔뜩 취해서 어머니와 우리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그 후 큰 노름빚을 지고는 빚쟁이들을 피해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버렸다.

어머니의 어깨 위에는 우리 삼남매의 생계가 무겁게 얹어졌다. 평생 농사만 짓던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 채소도 팔기 시작했다. 그렇게 전쟁을 치르듯 지난한 날들을 억척스럽게 버텨내던 어머니는 결국 병을 얻어 몸져눕게 되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탓이었다.

어머니는 가슴 속에 꽁꽁 싸매어놓았던, 탁하고 응어리진 감정들을 끝내 풀어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 순간에도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돌아오면 내치지 말고 잘 보살펴주라는 간곡한 유언을 남겼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너무 밉고 원망스러워서 차마 그러겠노라고 답하지 못했다.

영정 앞에 선 아버지는 먼 길을 떠나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아버지를 내치지 말라던 어머니의 유언이 떠올라, 빈소 한편에 자리를 마련해주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장례가 끝난 후에도 아버지는 좀처럼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우리를 앉혀 놓고는 "얘들아, 아버지가 너희를 볼 낯이 없다. 비록 너희 엄마는 고생만 하다가 떠나보냈지만, 너희들한테라도 빚을 갚을 기회를 다오"라고 말했다. 언니와 나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제 돈도 떨어지고 갈 데도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이렇게 사는 우리가 불쌍해 보여요? 여기에 아버지 자리는 없으니 당장 나가세요!"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아버지는 좀처럼 집을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와는 달리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노력했다. 매일 공사현장에 나가 돈을 벌어 고스란히 생활비로 내놓았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우리는 가시 돋친 말로 아버지를 공격했다.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다가와도 절대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과거 어머니와 함께 절에 갔을 때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일이 생각났다. 당시 아버지를 원망하던 어머니와 나에게 스님은 "상대방을 바꾸려고만 하면 관계는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병이 들게 됩니다. 지금 당장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바꿔야 할 것들을 찾아 바꾸면 마음속의 고통과 원망이 사라질 겁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거짓말처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거두셨다.

당시 스님이 하셨던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 불심이 깊은 지인에게 의미를 물어보았다. 지인은 스님의 말씀이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인 화쟁이라고 알려주었다. 다툼을 화해시키고 조화롭게 문제를 다룬다는 뜻을 가진 화쟁은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생각도 수용하자는 게 핵심이념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그래, 어머니는 스님의 얘기를 듣고 이미 자신을 들여다본 후 마음을 바꾸고 아버지를 인정하셨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나도 아버지를 너무 배타적으로만 대하지 말고 우선 대화를 나눠보자는 쪽으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생각의 변화는 아버지를 향해 쏟아내던 뾰족한 말들을 거둬들이게 만들었고, 아버지를 일방적인 가해자로만 봐왔던 시선도 조금씩 희석시켜 주었다. 언니에게도 엄마와 내가 느낀 화쟁의 생각들을 전하고, 이젠 아버지에 대한 갈등과 미움을 풀자고 설득했다.

그즈음,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발을 헛디뎌 어깨와 다리를 다치는 일이 일어났다. 한동안은 병원에서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하는 큰 부상이었다. 통증이 심한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버지의 모습이 짠했다. 그런 아버지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던 나는 언니와 함께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간병했다.

병원에서 함께 지내며 우리 자매는 아버지와 조금씩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서로 말을 섞으면 공격과 변명이 오갈 뿐이었지만, 이번에는 아버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평화로운 소통과 다툼의 시간을 보냈다. 나와 언니는 아버지를 일방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아버지의 얘기들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아버지는 긴 이야기 끝에 나와 언니에게 진심을 담아 지난 일들을 사과하셨다.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당신의 모습을 후회했고, 노름에 빠져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갔던 과거를 반성하셨다.

평소 같았으면 사과한다는 말조차 꺼내지 말라고 화부터 냈을 나와 언니였는데, 화쟁을 가슴에 새긴 덕분에 아버지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을 하셨다. 4주라는 시간 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와의 관계도 어느 정도 회복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거두고 나자, 모든 게 아버지 탓이라는 생각 또한 사라졌다. 우리는 화쟁을 통해 아버지를 향한 불신을 거두고 신뢰를 형성해 나갈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한 다음날 곧바로 일을 나가려는 아버지를 언니가 말려 세웠다.

"저도 이제는 일을 다니니까, 이렇게 아플 땐 좀 쉬세요. 아버지가 아프면 하늘나라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언니의 말투와 표정은 무미건조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안쓰러움이 가득 배어 있었다.

"못난 애비 걱정해줘서 고맙다. 몸도 더 챙기고 너희들 위해서 열심히 일 하마~."

한때는 지독히도 미워하고 원망했던 아버지였다. 화쟁은 그런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거두고 이해하고 인정하도록 도와주었다. 지옥 같았던 마음에 불현듯 찾아온 이 평화는 화쟁이 내게 안겨준 선물이다.

‘K-괘불’ 아름다움, 전 세계 알린다

‘한국 괘불의 美’ 국 · 영문 보고서 발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괘불은 사찰에서 야외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대형 불화로 부처님이 설법하는 장면을 거대한 화폭에 정교하게 그려냈다. 이 같은 한국불교의 괘불은 중국과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식의 불화로, 우리나라의 독창성과 예술성을 대표하는 ‘K-문화유산’이다. K-괘불의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는 국·영문 보고서가 발간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국보·보물로 지정된 괘불의 특징을 지역별로 고찰한 학술총서 〈한국 괘불의 미〉의 영문판(제1편 경상지역)과 국문판(제2편 전라지역)을 발간했다”고 1월 30일 밝혔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1970년대 중반부터 불교 회화 조사사업을 시작했으며, 1985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 사찰에 소장된 괘불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수행했다. 2015년부터는 (재)성보문화재연구원과 함께 대형불화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그간의 조

대형불화 정밀조사 ‘심화 버전’
경상 · 전라 괘불탱 특징 고찰
화승 의겸, 비현 조성한 괘불들
고해상도 사진들 수록돼 ‘눈길’

사 결과에 미술사 분석을 더한 우리나라 괘불의 조형적 특징을 지역별로 살펴보기 위해 2022년부터 진행 중인 심화 연구 결과를 담았다.

지난 2022년 선보인 〈한국 괘불의 미1: 경상지역〉의 영문판인


국립문화재연구원이 발간한 ‘한국 괘불의 미’ 국 · 영문 보고서.

〈The Beauty of Korean Gwaebul 1 Gyeongsang Province〉는 경상지역 사찰 24곳이 소장한 국가지정 괘불 26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수록했다. 괘불이 생소한 해외 독자와 연구자의 눈높이에 맞게 원고를 보완하고 화기(畵記)와 문양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 책자는 영어권 인문학 학술서와 논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표기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고, 괘불을 단일 주제로 한 첫 영문 연구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처음 내놓은 〈한국 괘불의 미 2: 전라지역〉은 전라지역 사찰 15곳에 있는 괘불 15점과 초본 1점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겼다. 전라지역의 화승(畵僧)과 도상 분석, 불교의식집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전라지역 괘불의 역사성과 조형적 특징에 대한 연구결과를 수록했다.

또한, 괘불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초창기 괘불과 18세기 전라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의겸(義謙), 비현(丕賢)과 같은 여러 화승이 제작한 괘불의 세부 모습을 정교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고해상도의 사진으로 담았다.

보고서는 국내·외 주요 도서관과 박물관, 문화유산 연구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원 국가유산 지식이음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 누리집 내 ‘괘불 갤러리’에서 주요 괘불의 고화질 사진과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앞으로도 괘불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심화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담은 총서를 적극적으로 발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교 유튜브 ‘첫 100만 구독’ 불교서 나왔다

불교TV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명 달성

종교방송사 채널로 ‘최초’
구독자 수 상위 1% 수준
“불교미래 이끄는 구심점”
진우 스님 축하 메시지도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불교TV)의 유튜브 채널이 2월 1일 구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불교TV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90만명을 돌파했던 지난해 8월에 이어 5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로, 구독자 수로는 전 세계 유튜브 채널 중 상위 1%(유튜버 분석 플랫폼 기준)에 도달했다.

종교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중 유일하게 구독자 100만명이 넘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실제, CBS 라디오 채널은 10만명, CBS JOY 채널은 55만명, CTS TV 채널은 35만명, PBC평화방송 채널은 35만명 수준으로, 불교TV 유튜브 채널이 2배가량 높은 구독자 수를 보이고 있다.

불교TV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여타 종교 방송사 채널보다 월등할 수 있는 비결은 ‘콘텐츠 경쟁력’에 있다.

불교TV 유튜브 채널은 불교TV가 제작하는 스님 법문·인문 강좌·문화다큐 등 대표 콘텐츠뿐만 아니라 자체 콘텐츠 및 쇼츠 영상, 라이브 중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구독자들의 선호 콘텐츠와 주시청시간대를 고려해 콘텐츠를 요일별 시간대별로 맞춰 업로드 하는 등 시청자와의 소통에도 힘써왔다.

현재 불교TV 유튜브 채널은 2만 1000여 편의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월 1일 현재 누적 조회수 약 4억6500회, 시청시간 약 1억1000만 시간을 달성했다.

김유진 불교TV뉴미디어국 유튜브 팀장은 “불교TV 유튜브 채널 구성 중



심인 스님들의 법문 강의가 당연 최고의 베스트이자 스테디 인기 콘텐츠”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종교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를 깨우는 108배(글 구본일)’는 단일 영상으로 400만 조회수에 육박할 정도로 불교TV 유튜브 채널의 명실상부한 대표 콘텐츠”라고 소개했다.

이어 “최근에는 건강 관련 콘텐츠나 인문학 강연들도 잠재 시청자들을 꾸준히 불교TV 유튜브 채널로 초대하는 매력콘텐츠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콘텐츠 경쟁력은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비대면 신행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더욱 빛을 발했다.

2019년 7월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했던 ‘BTN불교TV’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2020년 10월 30만명, 2021년 7월 50만명, 2022년 12월 70만명, 지난해 8월에는 9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2월 1일 100만명을 돌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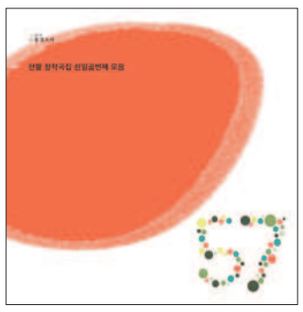
이는 불교TV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유튜브 채널로 범위를 넓혀도 동일한 양상이다. 불교TV 공식 유튜브 채널(구독자 100만명)을 필두로 △BTN JOY(구독자 21만4000명) △명법문(구독자 11만8000명) △인문학브런치(구독자 15만1000명) △BTN라디오 울림(구독자 13만8000명) △BTN뉴스(구독자 1만6000명) 등 총 15개의 불교TV의 유튜브 독립 채널들이 모두 탄탄한 기반 속에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채널의 전체 구독자를 합치면 170만명에 육박한다.

구본일 불교TV 대표이사는 “국내 종교방송사 채널로서 최초이자 동시에 교계방송사 중 첫 100만 구독자 확보는 갈수록 증가하는 디지털 친화적 수요자의 변화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반응형’으로 발 빠르게 안착시킨 결과”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불교TV는 방송포교의 선두주자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불교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많은 대중이 선호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며 “한국불교의 미래 천년을 열어가는 구심점이 되도록 불교TV가 앞으로도 방송 포교의 선두에서 정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좋은벗 풍경소리 ‘풍경소리 57집’



창작 찬불가를 보급해온 불교문화단체 ‘좋은벗 풍경소리’가 찬불 창작곡집 ‘풍경소리 57집’을 발표했다.

이번 ‘풍경소리 57집’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듯하고 아름다운 소리’(경운 스님 명주 스님 김경민 김민수 정민경 최미선 한아름 작사/최미선 작곡)를 1번 트랙에 담았으며, △서울 조계사 차이안 어린이가 부른 ‘우리절 눈사람’(최동호 작사/이종만 작곡) △은석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최서연 어린이가 부른 ‘연등하나 작지만’(전병호 작사/이종만 작곡) △청정심원 이다혜 어린이가 부른 ‘마음의 그릇’(덕신 스님 작사/정유탁 작곡)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는 듯한 선율의 ‘음성공양 올립니다’(중하 스님 작사/서근영 작곡) △‘염주 한 알’(덕신 스님 작사/이종만 작곡) △‘꽃 공양 올리오니’(담화림 스님 작사/이종만 작곡)가 수록됐다. 신중일 기자

제39회 불이상 공모

불이상위원회가 제39회 불이상 연구분야 및 실천분야 수상자를 공모한다. 연구분야는 박사 학위 취득 이후 연구원, 시간강사, 연구교수, 강의교수, 비정년 트랙 교수 등 최근 수년간 불교학 및 불교학 인접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와 업적을 낸 학자면 지원할 수 있다.

실천분야는 신행과 포교가 모범이 될 뿐 아니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인류사회에 도움이 되는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는 불교인 혹은 불교단체면 후보 자격이 된다.

2월 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분야별로 1명 또는 1개 분야만 추천 가능하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2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수상자 발표는 6월이며 시상식은 7월에 열릴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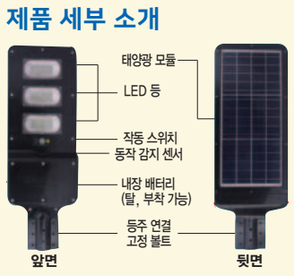
2024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사찰경내외에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장엄등 설치
가야기획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사찰경내 연등 공사

가로등·장엄등




제품 세부 소개


자비연등

칼라연등

세계 최초로 개발된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 제품건
•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은 전력공급없이 자체발전으로 햇빛이 많은곳은 초저녁에 디밍없이 5시간 동안 매우 밝게 켜지고 그 이후 아침까지 50포 낮게 유지되는 제품 개발 양산(50프로도 매우 밝음)
• 사찰 경내·외에 햇볕이 되는 위치에 매우 유용함. 참고로 배터리가 10년동안유지 됨. 즉 수명이 20년으로 바도 무방함. 이유는 케이스가 ABS 우레탄 코팅고 IP65라 가능합니다.
태양광 등 및 팔각 비닐만월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황금등

광명연등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 및 안내 :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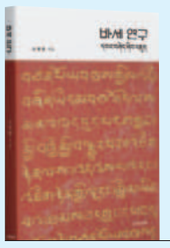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31~2/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체계불학:신념체계로서의불교학	김성철	오타쿠
2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3	부처님의생애(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4	여래장사상의원전(학술총서77)여래장경부증불감경승만경	이평개 역주강설	민족사
5	사찰의비밀(일주문에서대웅전뒤편산신각까지구석구석숨겨진)	자현 지음	담앤북스
6	불교개설(조계종신도교재)부처님의가르침불자의실천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7	도표로읽는경전입문:방대한팔만대장경의세계가도표로한눈에들어온다	정운/배종훈 그림	민족사
8	도표로읽는불교입문	이자랑,이필원	민족사
9	불자의마음가짐과수행법	일타스님	효림
10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책세상

티베트불교 전래, 신라 '김무상' 스님이 견인했다



바세 연구
조병활 지음
여의운하
1만8000원

8세기 티베트불교 역사 기록한
〈바세〉 한국어로 최초 완역돼
무상 스님, 삼예종론 전말 확인
저자 논문 2편으로 이해 도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삼예사 대전 전경. 티베트불교의 방향성이 결정지어진 역사적 논쟁인 '삼예종론'이 이뤄진 곳이다. 사진제공=여의운하

티베트불교는 한국인에게도 낯설지 않다. 당장 세계적인 정신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티베트불교의 상징이며, 최근 방한한 캉쎄르 린뽀체도 티베트불교의 지도자다. 하지만, 티베트의 역사나 티베트불교 전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는 불자들은 많지 않다. 심지어, 티베트불교 전래와 흥륭을 예언한 사람이 신라스님이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그렇다.

8세기 중·후반의 티베트불교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바세〉가 우리말로 처음 완역됐다. 조병활 박사가 펴낸 〈바세 연구〉는 그의 오랜 노력이 담긴 역작으로, 책에는 〈바세〉의 역주문과 티베트어 원문 그리고 〈바세〉 관련 저자의 연구논문 2편이 실렸다.

〈바세〉는 티베트 제37대 짼뽀(왕·황제의미) 치데쭉땐과 제38대 짼뽀 치송데짼 부자 통치시기에 있었던 불교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8세기 중·후반 당시 티베트에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과 삼예사 건립의 역사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조 박사가 〈바세〉에 대해 알게 된 것은 1997년 인환 스님(1931~2018)과 김지견(1931~2001) 교수가 펴낸 〈신라불교연구〉에 수록된 야마구치 즈이호(1926~2023) 도쿄대 교수의 '티베트 불교와 신라 김화상'이라는 논문을 통해서다. 무엇보다 '김화상'이라는 신라스님이 티베트불교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기록이 〈바세〉에 있다는 점이 조 박사의 학문적 호기심을 이끌었다.

이후 조 박사는 2012년 중국 청해성 청해민족대학 티베트어진수반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갔고, 그곳에서 티베트어판 〈바세〉를 만났지만, 티베트어 실력이 부족해 곧바로 해석하지는 못했다. 2013~2015년 북경대에서 수학하며 박사학위를 취득한 조 박사는 다시 청해성으로 건너가 티베트 사찰에 3년 동안 머물며 티베트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했다. 2019년 귀국 후에는 틈틈이 〈바세〉의 번역에 착수했고, 그 노력의 결과물이 〈바세 연구〉다.

그렇다면 티베트불교의 앞날을 예언한 신라스님 '김화상'은 누굴까. 조 박사를 비롯한 학자들은 '김화상'이 '무상 스님'이라고 지목한다. 〈송고승전〉 등에 나타난 기록에 따르면 무상 스님은 신라 왕의 세 번째 아들로 군남사에서 출가해 계를 받았으며, 당나라로 유학하며 수행 정진했다. 무상 스님의 법맥은 오조 홍인과 연결된다. 오조 홍인의 10대 제자 중 한 명인 지선 선사가 본주의 덕순사로 돌아가 법을 펼쳤고, 이를 제자 처적 선사가 이었다. 처적 선사에게는 4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무상 스님이다.

무상 스님이 〈바세〉에서 보이는 행적들은 매우 구체적이다. 짼뽀가 토번(현재 티베트)에 불법(佛法)을 펴기 위해 바상씨, 바새낭 등에게 당나라에 다녀오라고 지시했고, 그 시기 당나라에 있던 무상 스님은 "4개월 뒤 토번의 사자들이 도착할 것이고, 그 중 보살의 화신이 있다"며 그들의 복장과 형상을 그렸다. 4개월 뒤 도착한 토번의 사자 중 바상씨와 바새낭이 그 형상과 같았다. 김 화상과 이들의 만남을 〈바세〉는 이렇게 그린다.

김 하상(화상, 무상 스님)이 상씨의 발을 만지며 예를 표했다. 상씨 역시 김 하상의 발을 잡고 답례했다. 김 하상이 상씨에게 "당신은 마명보살의 화신으로 티베트 땅에 대승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 그곳에 불교의 교의를 확립할 것이기에 당신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라고 예언했다.

이후에 이어지는 질의에서 무상 스님은 현재 토번의 왕이 정법을 펼칠 보살이며, 〈불설업보차별경〉 〈불설도간경〉 〈금강경〉 순으로 왕에게 강설하며, 사호르 출신 보디사따(샨타락시타) 스님을 선지식으로 토번에 초청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는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자세하게 알려줬다고 기록돼 있다.

이런 스님의 행적에 대해 일본에서 활동 중인 티베트학 전문가 캉까르출침깨상은 '한국 김화상과 티베트불교의 관계' 논문에서 "티베트불교의 발전을 위해 신라 왕자 김화상이 인도해 준 은혜 역시 티베트 사람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상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들은 조 박사가 저서 안에 수록한 '〈바세〉 5종 필사본에 보이는 김 하양 기록 비교 연구'에 자세히 소개돼 있다.

이 밖에도 〈바세〉에는 외래종교인 불교와 티베트 자생종교인 본교의 대립, 샨타락시타 스님과 파드마삼바바 스님이 티베트에 들어오는 과정, 삼예사 건립 등이 내용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삼예종론의 전말이 담겨 있어 〈바세〉는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삼예종론은 8세기 말의 삼예사를 무대로 이뤄진 인도불교와 중국불교 사이의 논쟁이다. 논쟁의 결과, 인도불교가 승리를 거뒀고 이후 티베트불교의 방향성이 결정지어진 중요한 사건이다.

조 박사는 "어떠한 나라를 알려면, 역사와 문화부터 알아야 한다. 티베트불교를 알려면 티베트불교가 어떻게 전래되고 발전돼 왔는지부터 공부해야 한다"면서 "〈바세연구〉가 티베트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또한 신라 무상 스님과 삼예종론 연구가 깊어지는 자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자 **조병활**은?

북경대학 철학과에서 북송 선학사상 연구로 철학박사를, 중국 중앙민족대학 티베트학연구원에서 티베트불교 연구로 박사학위 취득했다. 〈조론연구〉 〈불교미술기행〉 〈다르마로드〉 등의 저서를 출간했으며 〈조론오가해〉(전5권) 〈조론〉 등을 펴냈다. 제3회 퇴옹학술상(2021), 제20회 불교출판문화상 붓다북학술상(2023), 불교평론 뇌허불교학술상(2023) 등을 수상했다.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성철선사상
도대현/448쪽/23,000원

인도불교사
정순일/726쪽/35,000원

주역선해 연구
청화/510쪽/25,000원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280쪽/15,000원

불성론 연구
최현민/368쪽/18,000원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416쪽/23,000원

천수경 연구
정각/500쪽/28,000원

역경학 개론 우수학술도서
최종남 외/454쪽/23,000원

현수 법장 연구
계환/252쪽/15,000원

유식삼십송 풀이
후카우라 세이분 저/500쪽/25,000원

불교사회복지개론
조보각 외/408쪽/20,000원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현송/320쪽/17,000원

경봉 선사 연구
정도/304쪽/17,000원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도업/360쪽/18,000원

정토 수행관 연구
법상/524쪽/25,000원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우수학술도서
현송/436쪽/23,000원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진관/242쪽/15,000원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이성운/454쪽/23,000원

불교세시풍속
오인/446쪽/23,000원

삼계교 사상 연구
법공/424쪽/23,000원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556쪽/28,000원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게쎄 텐진 남카/484쪽/24,000원

중국불교사상사
김진무/496쪽/25,000원

숭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최용운/292쪽/17,000원

불상점안의식 연구
해사/488쪽/25,000원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이병욱/364쪽/18,000원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고영섭/464쪽/25,000원

삼계교 연구 우수학술도서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35,000원

대각국사 의천 연구
무원·진관 공저/272쪽/16,000원

티베트 돈점 논쟁 연구
박건주/364쪽/20,000원

중국 불성론
라이용하이 저/법지 역/696쪽/33,000원

송시의 선학적 이해 우수학술도서
박영환/536쪽/27,000원

대행선사의 수행법 연구
청강/312쪽/17,000원

불교교육론
이송곤/528쪽/27,000원

균형의 마음, 우뻬카
박재은/328쪽/18,000원

한국의 죽음 의례의식 연구
탄탄/384쪽/20,000원

불교학의 사회화 이론과 실제 우수학술도서
박경준/824쪽/37,000원

경량부 연구 세종학술도서
카토 쥰쇼 저, 김재현 역/576쪽/37,000원

붓다의 법담학 연구
이광준/448쪽/25,000원

생전예수재 연구
승범/280쪽/18,000원

일본불교를 세운 고대 한국 승려들
이윤옥/372쪽/22,000원

불교 시간론 원전 연구 세종학술도서
정은해 역해/696쪽/35,000원

대승불교흥기시대 인도의 사원생활
임은정 역/384쪽/23,000원

불교와 사회윤리
차차석/304쪽/18,000원

환성지안 선사
무각/344쪽/22,000원

문명전환과 불교의 응답
이명호/224쪽/17,000원

반야경의 사상 개설
이광준/336쪽/20,000원

불교사회경제사상
박경준/436쪽/25,000원

용성 사상 연구
진관/296쪽/20,000원

신자유주의와 상생의 불교경제학
김광수/284쪽/20,000원

불타의 대승선맥
오형근, 박화문/316쪽/22,000원

설잠 김시습의 선사상 연구
철우/520쪽/2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탐욕에 물든 10가지 아귀 이야기



아귀
앤디 로트먼 지음
이종복 옮김
담앤북스/ 1만8000원

불자들이 느끼는 두려움 대상
좋지 못한 과보라고만 알 뿐
아귀를 자세히 알기는 어려워
〈백연경〉 속 이야기 번역 · 정리



보석사 감로왕도 중 일부. 화면 중앙의 입에서 불을 뿜어내는 두 아귀는 천도 받아야 할 고혼을 상징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립중앙박물관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아귀(餓鬼)는 불교에서 늘 굶주린 귀신이다. 보통은 태산 같은 몸집에 입을 바늘구멍 같이 표현하니 굶주릴 수밖에 없는 신세기도 하다. 하지만 무엇을 먹는다고 해도 배고픔은 사라지지 않고, 굶주림의 이유도 음식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불교의 삼독 가운데 첫 번째인 '탐(貪)'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 그렇기에 이들은 윤회하는 육도 중 삼악도, 그 안에서 지옥도보다는 조금 나은 '아귀도'에 산다.

저자의 말마따나 아귀는 불교신자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관한 일종의 저장고 역할을 한다. 탐욕을 극복하지 못한 채 윤회하면 스스로가 아귀가 되는 셈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아귀라는 것은 좋지 못한 과보라고 어렴풋이 알고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아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는 아귀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스미스대학에서 종교, 불교, 남아시아학을 가르치는 앤디 로트먼 교수가 쓴 〈아귀〉는 높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이 책은 '백 가지 인연 이야기', 흔히 말하는 〈백연경〉에 등장하는 아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백연경〉은 고대 인도 불교신자들의 이야기를 모은 선집으로, 수세기에 걸쳐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한 초기경전이다. 10개의 장이 각각 10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가운데 이 책은 다섯 번째 모음집 속 10가지 아귀 이야기를 번역했다. △사탕수수 방앗간 △음식 △마실 물 △똥 단지 △목건련 △웃따라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 △상인 △자식들 △잠발라라는 10가지 이야기 중 세존께서 목건련 존자에게 가르침을 전한 '똥 단지' 이야기가 눈에 띈다.

목건련은 어느 날 발가벗은 온몸이 털로 뒤덮이고 바늘귀만한 입과 산만한 배를 한 아귀를 만난다. 지독한 악취를 풍기며 간신히 똥을 먹고 있던 아귀의 사정이 궁금한 목건련은 말을 건넸지만 아귀는 세존께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들어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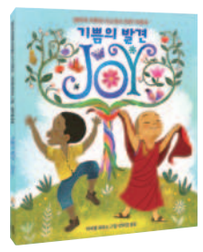
세존을 찾아간 목건련은 그 아귀가 어떤 과보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인지 묻는다. 세존은 오래 전 홀로 깨달은 자(벽지불)가 병에 걸려 건강에 좋은 음식을 구하러 탁발을 나섰을 때 이야기를 전한다. 벽지불은 한 상인의 집에 탁발을 했고, 상인은 수행자의 모습에 감화돼 그의 며느리에게 공양물을 내어오라고 한다. 하지만 며느리는 좋은 음식을 건네면 벽지불이 다시 찾아올 것을 걱정해 발우에 똥을 가득 담아 위에 음식을 덮어 가리고 돌려준다. 발우를 받아 든 벽지불은 지독한 악취를 느끼고 한쪽에 발우를 버린 뒤 자리를 떠난다.

세존은 "그때 그 상인의 며느리가 지금 그 아귀다. 그런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항상 지옥 중생이나 짐승이나 아귀로 다시 태어나 항상 똥을 먹는다"며 "비열함을 없애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 그렇게 하면 그 아귀와 같은 과오를 짓지 않는다. 목건련이여, 네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설한다.

〈백연경〉에 등장하는 아귀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초기불교에서 묘사하는 아귀의 모습뿐만 아니라 당시의 윤리관과 사후론까지 보여주는 기록이기 때문이다. 초기불교 예술에 아귀의 모습이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마찬가지.

아귀라는 질병의 근본 원인은 산스크리트어로 '맛짜랴(mātsarya)'라는 해악이며, 이 해악을 기른 결과다. 저자는 맛짜랴를 'meanness'로 번역했고, 역자는 다시 '간탐(慳貪)'으로 번역했다. 'meanness'는 무엇을 주거나 함께 나누는 것을 꺼린다는 뜻이며, 간탐은 몹시 인색하고 욕심이 많다는 뜻이다.

우리 시대 대표 정신적 지도자 두 사람이 발견한 기쁨의 진리



기쁨의 발견 JOY
달라이라마 ·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 글
라파엘 로페스 그림
안희경 옮김/ 하루헌
1만7000원

"너를 슬프게 하는 일에만 빠져 있으면 네 눈엔 슬픔만 보일거야. 하지만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면 어디에서나 기쁨을 볼 수 있단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티베트불교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가 함께 쓴 그림책 '기쁨의 발견'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도 기쁨은 어디에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준다. 힘든 시간을 보낼 때조차도 기쁨은 우리 가까이에 있으며 자신과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

보통의 우리처럼 힘든 유년 시절을 경험한 두 종교지도자가 자신들이 겪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일상에서 어떻게 기쁨을 발견했는지 조곤조곤 사려 깊은 목소리로 들려준다. "때로는 슬프고, 어떨 때는 화가 나고, 가끔은 무섭기도 하지만 폭풍 멎은 하늘에 높이 떠오른 무지개를 기억하자"고 당부하는 저자들의 메시지는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큰 응원과 위안을 선사할 것이다.

미국 출신 저명한 삽화가인 라파엘 로페스가 일상의 기쁨에 눈뜨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정겹게 그려냈다.

저자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국민과 티베트불교의 정신적 지도자다. 1989년 노벨 평화상을, 2007년 미국의회에서 수여하는 황금 메달을 받았다. 달라이라마는 서로를 더 세심하게 보살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를 방문하고 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다정함과 자비를 건네고 종교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환경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평화를 존중하는 티베트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무엇보다도 인류는 하나라는 생각을 널리 전하고 인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1959년 인도로 망명해 현재 다람살라에서 살고 있다.

데스몬드 엠필로 투투 대주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평등·정의·평화와 인종 간 화해를 추구하는 국민 운동을 대표하는 지도자다. 1984년 노벨 평화상을, 2009년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자유훈장을 받았다. 199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민주주의로 전환된 후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장이 돼 민족 분규와 탄압을 겪은 국가들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도덕성을 몸소 실천한 지도자이자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2021년 12월 26일 영면했다.

임은호 기자



광주와 무등산 면면을 돌아보다

불광미디어, 월간 '불광' 2월호 발간

불광미디어에서 발간하는 월간 〈불광〉 2024년 2월호가 발간됐다. 이번호 특집 주제는 '무등등(無等等), 광주 무등산'으로 광주와 무등산의 불교를 조명한다.

실제, 광주 불자들은 광주를 '아미타부처님이 계시는 극락고을'로 칭한다. 무등산에서 발원한 샘물이 광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극락강을 흘러 영산강에 합류한다. 극락강에는 극락교라는 다리가 있으며, '극락강역' '극락초등학교' '서방시장' 같은 불교 지명이 아직 사용되고 있다. 무등산의 무등(無等)이 불교적 지명임은 새삼스럽지 않다.

〈불광〉 2월호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은 광주천을 따라 산재한 석탑을 비롯한 불교 유적이다. 성거사지(聖居寺址) 오층석탑, 지산동 오층석탑, 십신사지(寺址) 석불과 석당은 불교가 융성했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광주 중심가에 거찰이 산재했음을 보여준다.

특별히 주목되는 유물은 대황사지(大皇寺地)로 전해지는 옛 전남도청(현 아시아문화전당)의 고려시대 석등(石燈)이다. 옛 전남도청은 조선시대 광주읍성이 있던 곳으로, 고려시대의 석등은 이곳이 본래 절터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최후 보루였던 곳이 절터였음이 새삼스럽다.

무등산의 사찰에 대해서는 증심사, 원효사, 약사사, 규봉암 외에 담양의 개선사지(開仙寺址)와 서봉사지(瑞峰寺址)를 살펴본다.

개선사지에는 통일신라시대 경문왕과 왕후, 공주가 발원한 섬세한 석등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 초에는 무등산 권역에서 가장 큰 사찰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서봉사지에서는 고려시대 석조보살상과 석탑 외에 많은 불보살상과 나한상이 출토돼 증심사와 국립광주박물관, 전남대에 소장돼 있다. 이는 광주와 무등산이 아미타부처님이 상주했던 극락세계였음을 보여주는 유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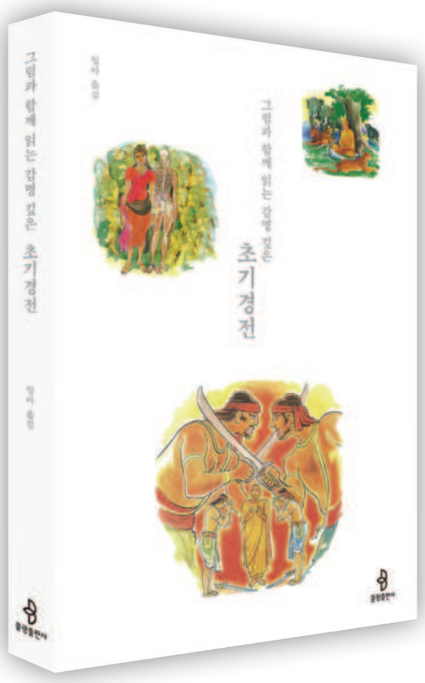


이외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김동수 열사', '광주를 대표하는 신행봉사단체 자비신행회' 등을 취재했다.

신중일 기자

초기경전 분야의 권위자 일아 스님이 가려뽑은
삶의 모든 순간을 평안과 행복으로 만들어주는 붓다의 말씀

그림과 함께 읽는 감명 깊은 초기경전



일아 옮김 | 320쪽 | 22,000원

그림과 함께 읽는 인류의 고전,
『담마빠다』, 『숫따니빠따』, 니까야의 핵심 구절

대중과 제자들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초기경전! 그 속에는 군더더기가 없이, 소박하고도 순수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 방대한 분량 때문에 사람들이 접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기불교 연구자이자 초기경전 번역자인 일아 스님이 『담마빠다』, 『숫따니빠따』, 니까야의 주요 구절을 가려뽑았다. 이와 함께, 더 많은 대중이 더 편안한 마음으로 경전 구절을 접할 수 있도록 누구든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함께 수록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접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일아 스님의
빠알리 원전 완역으로 만나는
초기경전

빠알리 원전 번역
담마빠다
일아 옮김
224쪽 | 14,000원



빠알리 원전 번역
숫따니빠따
일아 옮김
428쪽 | 19,000원



법구경과 함께하는 365일 마음 일력
오늘, 담마빠다 한 구절
일아 글, 김경연 그림 | 368쪽 | 17,000원



지상백고좌

조계종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상월 보선 대종사

“남 돕는 게 나를 돕는 길…진정한 보살 돼라”



상월 보선 대종사는… 1966년 용암사서 천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2년 통도사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문경 봉암사와 순천 송광사, 양산 통도사, 해남 대흥사 등에서 오랜시간 수선안거했다. 총무원 호법부장, 대흥사 주지, 제14 · 15대 중앙종회의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흥사 조실로서 후학들을 제접하고 있다.

남도를 대표하는 두륜산은 영축산과 흡사하다. 두륜산 정상에 누워 계신 부처님과 영축산을 지키는 적멸보궁이 다르지 않다. 그 앞에만 서면 얼었던 마음이 풀리고 만다. 넓은 품으로 중생들의 마음을 쉬게 하는 것도 똑같다.

“전쟁을 비롯한 삼재가 미치지 못할 곳(三災不入之處)으로 만년 동안 훼손되지 않는 땅(萬年不毁之地)이 될 것이다.”

서산 대사의 말씀과 같이 두륜산과 대흥사는 한국불교의 법맥을 올곧게 이어가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 서산 대사의 의발이 전수된 뒤 수많은 수행자를 배출한 명찰인 대흥사는 선교양종(禪敎兩宗)의 선해교림(禪海敎林) 면모를 갖춘 도량으로 발전해왔다.

“대흥사만한 곳이 없습니다”

넓은 산간분지에 자리한 대흥사는 다른 절에서 보기 힘든 특이한 가람 배치를 보이고 있다. 절을 가로지르는 금당천을 사이에 두고 북쪽과 남쪽으로 당우들을 자유롭게 배치했다. 또 서산 대사 추모공간인 표충사가 있는 별원구역까지 크게 세 영역에 전각들이 들어서 있다.

오랜만에 대흥사를 찾은 만큼 대웅보전과 천불전 등을 참배하고 조실 상월 보선 대종사(조계종 원로회의 수석부의장)의 주석처인 염화실(拈花室)로 향했다.

사람 좋은 미소를 보여주는 보선 스님은 “두륜산과 대흥사만큼 좋은 곳이 없다. 사계절 내내 그렇다.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바람이 불어도 좋은 곳이 대흥사”라며 먼저 당신이 손수 지은 글을 내밀었다.

“두륜의 기개는 남도의 하늘과 땅을 휘젓고 중생의 번뇌와 고통을 잠재웁니다. 두륜의 종주(宗主)인 청허 휴정(淸虛休靜) 선사께서는 대흥사에 주석하며 무상한 깨달음의 노래를 중생에게 남기셨습니다.

낮이면 한 잔의 차요, 밤들면 한바탕의 잠일세. 청산과 백운이 함께 무생(無生)을 이야기하네.

청허 휴정 선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은 무생입니다. 그리고 한바탕 꿈과 같습니다. 오늘의 모습도 내 모습이 아니고 내일의 모습도 내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생로병사의 무진행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윤회합니다. 두륜산 대흥사에는 생로병사의 윤회를 끊는 할과 방의 확철대오가 있습니다. 13대종사(大宗師)와 13대강사(大講師)의 선향(禪香)과 법향(法香)과 다향(茶香)이 머물고 있는 두륜의 품은 길 없는 길을 걷는 모든 중생들이 번다한 세속의 때를 씻을 수 있고 영원한 무생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무생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80년 전에는 저것이 나이더니 80년 뒤에는 내가 저것입니다.”

오래 기다린 값인가? 스님의 첫 말씀부터가 심상치 않다. 이럴수록 필요한 것은 정면돌파였다.

“서산가풍이 활발발한 도량으로”

보선 스님은 다시 ‘서산가풍’을 강조했다.

“서산 대사의 의발이 전해진 것은 이곳이 당신의 법(法)을 이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사께서 묘향산에서 열반에 들기 전 제자들을 불러놓고 강조하고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불교가 가장 어려웠던 때인 조선시대에도 수행가풍이 살아 있었습니다. 정조 대왕이 이를 알고 대흥사에 표충사를 짓고 서산 대사의 가르침이 널리 전해지도록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저의 은사이신 천운 큰스님께서 대흥사의 가풍을 다시 정립하셨습니다.”

“우리 삶은 무생, 한바탕 꿈 같아 두륜산 대흥사엔 생로병사 윤회를 끊는 할과 방의 확철대오가 있다”

보선 스님은 천운 스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신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천운 스님의 법을 이은 것도 당연했다. 천운 스님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보선 스님의 수행여정은 시작됐다.

“제 고향이 전남 영암입니다. 광주로 고등학교를 갔어요. 학기 중에는 학교에 다니고 방학 때는 내려와 고향집에서 지냈습니다. 방학이 되어 집에 가면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보냈더니 보다 못한 형님이 하루는 저를 불러요. ‘도갑사에 큰스님이 계시는데 인사드리러 가자.’ 형님이 은사스님과 인연이 있었거든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도갑사로 소풍을 갔고 중학교 때는 큰 트럭을 타고 대흥사로 수행여행을 와서 절이 친숙했거든요.”

그렇게 보선 스님은 형님과 함께 도갑사로 갔다. 도갑사에서 평생의 스승 천운 스님을 만났다.

“은사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 ‘도인이 여기 계셨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고승(高僧)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젊으실 때였는데도 안광(眼光)이 대단했습니다. 형님이 은사스님께 ‘이놈이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하니 스님께서 좀 잡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는 집에 가버렸습니다. 은사스님께서는 ‘허허’ 웃으시더니 미륵전에 있던 방을 하나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주 좋은 방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선 스님의 ‘절 생활’이 시작됐다. “나름 익숙해서” 절에서의 생활은 어렵지 않았다.

“은사스님께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3일 이상 절에 머물면 무조건 삭발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당연하게’ 깎았어요.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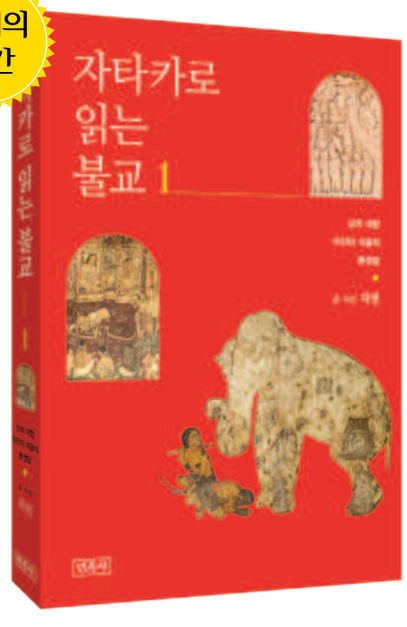
스님은 한 달 동안 그렇게 첫 ‘절 생활’을 했다.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다 방학이면 도갑사로 가는 생활이 이어졌다. 여느 때와 같이 절에서 생활을 하던 고2 여름방학 때 천운 스님이 스님을 호출했다.

“계(戒)를 받아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스님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라.” “스님 되는 것은 싫습니다.” “그럼 우선 사미십계(沙彌十戒)를 받고 생활하거라. 사미십계는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婬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꽃다발을 갖지 말고 향수를 몸에 바르지 말라,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재비 하지 말며 가서 보고 듣지도 말라, 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말라, 때 아닌 때에 먹지 말라, 돈과 금은보물을 갖지 말라 등이다. 만약 출가를 하지 않고 일반인으로 살게 되면 앞의 5계만 지켜도 된다.” “그럼 받겠습니다.”

13면에 계속

산치 대탑과 아잔타 석굴의 본생담 자타카로 읽는 불교 1

화제의 신간



부처님의 본생담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책!

“2021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도서”
《인도 네팔 순례기》의 저자 각전 스님의 역작!

“산치 대탑과 아잔타 석굴의 석벽에 그려진
본생담의 내용에 환희와 기쁨에 젖어들었습니다.
본생담의 스토리텔링의 힘은 대단해서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 서문 중에서–



글·사진 각전 | 350쪽 | 23,0000원

각전 스님 서울대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정치철학 전공)를 졸업하였다. 39회 행정고시 합격,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다 궁극적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출가를 단행하였다. 범어사 강원을 졸업. 직지사 선원 등에서 정진하였으며, 대장경 천년 축전 해인사 준비위원, 〈해인〉지 편집장을 잠시 맡아 활동하다가 다시 선원으로 돌아와 수행, 국제적 안목을 넓히기 위해 미얀마의 쉐우민 국제명상센터에 다녀왔다. 현재 동화사, 통도사, 범어사, 쌍계사, 법주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하고 있으며, 수행의 여가에 법보신문에 ‘각전 스님의 본생담으로 읽는 불교’, 월간 불교문화에 ‘각전 스님의 부처님 성지 순례’를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 2021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도서 《인도 네팔 순례기》가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지상백고좌

조계종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상월 보선 대종사

“깨달음에 집착 말라…길은 경전 안에 있다”

12면에 이어

출가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스님은 넙죽 사미십계를 받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스님은 자연스럽게 출가했다. 도갑사에서 수행을 시작한 스님은 화순 용암사에서 천운 스님을 계사로 다시 정식으로 사미계를 받았다. 1966년 3월의 일이다.

“은사스님께서는 평생 수행과 교육과 복지에 심혈을 기울이셨고 특히 계율(戒律)을 잘 지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계율이 수행자의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부처님의 칠불통계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教) 즉,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고 온갖 선한 일을 찾아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를 명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사스님의 말씀을 새기고 행하려고 저 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지식(善知識)들을 모시는 기쁨

1972년 3월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이후 보선 스님은 화순 용암사와 문경 봉암사, 순천 송광사, 공주 마곡사, 인제 백담사 무문관은 물론 대흥사 동국선원에서 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화두는 ‘이뭣고’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스님을 비롯해 송담 스님, 구산 스님, 서암 스님께 모두 똑같이 ‘이뭣고’를 받았어요. 근본적으로 화두는 ‘이뭣고’로 통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생사(生死)가 무엇인가를 참구하셨어요. 어찌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통합적인 의문이 바로 ‘이뭣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00공안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정진하는 동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들을 모시고 수행했다. 스님은 “구산 스님, 경봉 스님, 서옹 스님, 청화 스님, 송담 스님, 서암 스님 등이 생각난다”고 했다.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모시고 정진했습니다. 1980년 전후 될 것입니다. 그때 송광사가 한창 불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울력 목탁이 울리면 구산 스님께서는 제일 먼저 낫과 호미를 들고 마당으로 오셔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전각 지을 때 쓸 목재들을 스님들이 직접 다듬었습니다. 구산 스님의 낫질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정진 중 반철이 지날 즈음에는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수좌들은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삼일암으로 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생각하는데 삼일암 마루에 난초가 딱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절을 올리니 ‘정진이 어떠한가’라고 여쭈셨어요. 그래서 제가 ‘난초 향이 좋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주장자를 들고 저를 때리려고 해요. 이내 ‘이놈아! 얼른 가서 더 열심히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도망왔습니다. 하하.”

해제를 앞두고 구산 스님이 다시 보선 스님을 불렀다고 한다. 정진에 열심이던 젊은 수좌를 눈여겨 봐왔던 터였다. 봉투를 꺼낸 구산 스님이 “이것은 해제비가 아니고 다시 오라는 차비이니 그리 알고 받아 가거라”고 말했다. 봉투를 열어보니 3만원이 들어있었다. 당시 해제비가 3만원이었으니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이를 본 수좌들은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다.

천운 스님 인연으로 佛門에 들어
선지식들에게 ‘이뭣고’ 화두 받고
지금도 수좌들과 매일 수행 정진



화두 참선 중인 보선 스님. 스님은 새벽 3시면 일어나 수좌들과 함께 정진한다.

‘우리 결의 성자’로 존경받았던 청화 스님도 잊을 수 없는 어른이라고 했다. 대흥사 진불암에서 10년 넘게 묵언과 장좌불와를 하던 스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했다.

“청화 스님을 한국의 밀라레파라고 하잖아요. 저도 실제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평생을 수행에만 진력하셨습니다. 염불선을 기반으로 정통불법을 다시 세우고자 했던 어른의 모습이 가슴에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통도사 극락암 호국선원에서 정진할 때 공부에 진전이 없어 경봉 노스님을 찾아가면 ‘중생도 부처도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알면 될 텐데’라며 격려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보선 스님은 매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오전에는 동국선원에서 13명의 수좌들과 같이 정진한다. 오후에는 출재가를 두루 만나며 공부를 점검해준다. 일정이 없을 때면 염화실에서 책을 보거나 화두를 드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부처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보선 스님을 만난 때는 마침 부처님 성도(成道)재일 직후였다. 부처님 깨달음의 의미를 여쭈지 않을 수 없었다.

“싯다르타 태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신 날이 바로 성도재일입니다.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출가 이후 온갖 고행을 해도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안 싯다르타 태자는 수자타가 올린 죽을 드시고 왕자 시절 경험한 참선의 경험, 참선의 맛을 살려 다시 선정에 들어 정등각을 성취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상에 얽맨 사람 많아
일념으로 정진하면 저절로 깨달아”
업장 소멸하는 길은 보살행에 있어

깨닫고 보니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의 경지가 높아 누구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에 들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안 천신들이 깨달음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부처님께 간청을 하였고 결국 다섯 비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불교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 바로 성도재일입니다.

부처님은 다섯 비구를 만나 중도연기(中道緣起)와 팔정도(八正道), 삼법인(三法印), 사성제(四聖諦) 등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초전법륜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 비구가 깨달은 뒤 야사와 그 친구 54명이 또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전도대선언’을 하시며 전법의 길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여야 합니다. 여기에 무슨 말이 덧붙여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깨달음과 수행에 대한 조언을 잊지 않았다.

“깨달음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제방을 살펴보면 깨달음이라는 상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념으로 화두에 매진하다 보면 깨달음은 저절로 옵니다. 부처님 경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든 지침은 경전에 있습니다. 자연스런 정진과 깨달음은 함께 오기 마련입니다. 이점을 잘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선 스님은 사부대중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스님은 차근차근 말씀을 이어나갔다.

“제가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잘 살라’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 뭣이냐? 제가 볼 때는 업장을 소멸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업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업이 아니면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업을 정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본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업을 소멸하는 길은 보살행에 있습니다. 보살은 이타행(利他行)을 합니다. 그런데 이타행이라는 것은 곧은 자리행(自利行)입니다. 자리이타(自利利他)가 둘이 아닙니다.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길, 즉 업장소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살행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번 한 생 세상에 왔으니 진정한 보살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수행이고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업장소멸만이 나를 해탈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웃고 살아야 합니다. 웃으려면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나 자신과의 갈등, 상대방과의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타협하면 세상은 밝아집니다. 웃고 삽시다. 하하.”

스님의 유쾌한 웃음과 함께 긴 인터뷰는 끝났다. 어느새 어둠이 온 산에 내려앉아 있었지만 전혀 어둡지 않았다. 산중에 어른이 계시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빛’임을 보선 스님을 친견하면서 다시 확인한다.

유철주 / 작가





중국 4대 불산
■ 지역별 상품 – 운강석굴/오대산 5일
– 구화산/황산 5일
– 무석/보타낙가산 5일
– 아미산/낙산대불 5일
■ 동참금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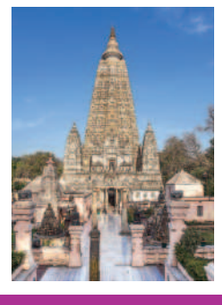
민족의 영산 백두산 4일
■ 주요일정 백두산 천지(온천욕)+돈화 정각사



일본
■ 지역별 상품 –오사카/교토 4일
–도쿄/가마쿠라 4일
–큐슈 온천 3일
■ 동 참 금 문의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성지순례 5일
■ 출 발 일 6월 11일
■ 주요일정 자카르타–족자카르타–보로부두르 사원–프람바난 사원–머라피 화산
■ 동 참 금 180만원



인도 11일
목/토 출발가능
■ 주요일정 녹야원–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아그라–델리
■ 동 참 금 문의



스리랑카 8일
월/수 출발가능
■ 주요일정 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시기리야–폴론나루와–담불라–캔디 불치사–콜롬보
■ 동 참 금 문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❸ 오대산 월정사



▶한줄 요약
〈삼국유사〉 '대산월정사 오류성중' 말미는 "나라 안의 명산 중에서 이곳이 가장 좋은 곳으로, 불법이 길이 번창한 곳"이라는 말로 끝맺는다.

다섯 성중이 길 인도해 창건한 문수도량

선재길을 걷다

지리산 둘레길을 시작하여 전국의 걷기 좋은 길에 이름을 붙인 뒤, 여유롭게 그 길을 걷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미 많은 사람이 걷던 길도 있고, 지역주민만 걷던 길도 있고, 새롭게 만든 길도 있다. 그중에 걷기에 힘들지만 큰 기쁨을 주는 길도 있고, 그저 그런 길도 있다.

월정사에서 상원사로 이어지는 10㎞ 선재길은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멋진 길이다. 전 구간을 걷지 않더라도 월정사 주차장에서 섶다리까지 계곡을 낀 오솔길은 참으로 좋다. 편도 3㎞, 50분 내외 거리다. 물론 초입에 있는 전나무숲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월정사에서 정진한 선지식의 일화와 함께하면 더욱 유익한 걸음이 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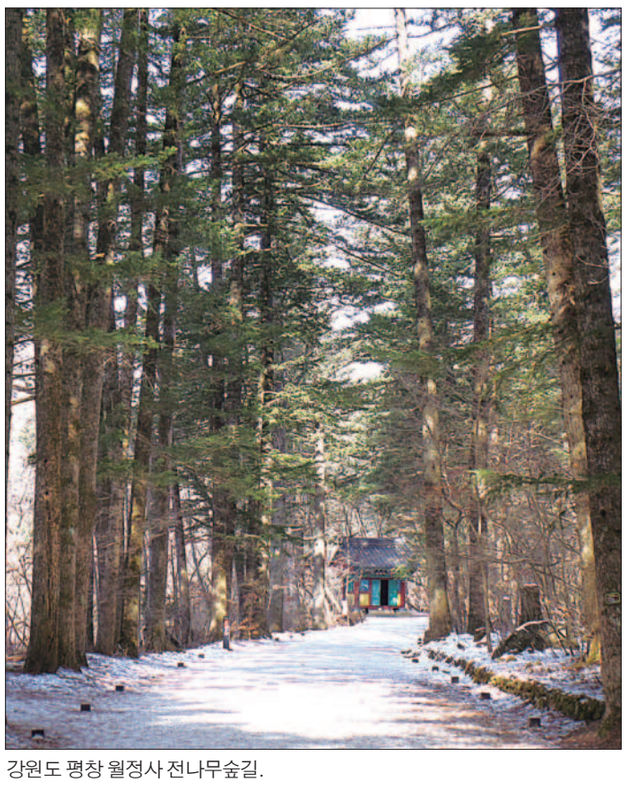
선재길은 〈화엄경〉 입법계품(入法界品)의 주인공인 선재동자에서 유래한다. 선재동자는 남쪽으로 순례하며 여러 선지식(善知識)을 만나 가르침을 받는다. 남쪽으로 순례하므로 남순동자(南巡童子)라고도 한다. 선지식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나아가게 하는 훌륭한 스승이나 벗을 말한다. 선재(善財)라는 이름도 재밌다. 선재동자가 태 속에 있을 때나 태어나서나 집안에 재산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다.

선재동자는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시작으로 구법여행 중에 53선지식을 만난다. 그리고 마침내 법계(法界, 부처님·진리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 선지식이 참으로 다양하다. 보살, 스님, 불교 신자, 장자, 거사, 천신, 천녀, 바라문, 선인(仙人), 왕, 선생, 동자, 동녀, 뱃사공, 외도, 유녀(遊女), 태자 부인, 태자 어머니 등이다. 53선지식은 모든 불보살의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어찌 53선지식만 있겠는가. 자신을 내려놓으면 모두가 선지식이고, 문수보살이다. 지금 월정사 가는 길이 바로 선지식을 만나는 길이다.

佛法 번창하게 이끈 선지식

선재길은 참으로 오대산 월정사와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오대산은 문수도량이 함께하는 산이고, 월정사는 문수보살을 친견한 자장 스님(590?~658?)이 터를 잡았다. 이후 월정사에서 정진한 이들의 이야기 속에 여러 선지식이 등장하고, 근래에는 〈화엄경〉의 대가 탄허 스님(1919~1983)이 주석하였다.

월정사는 643년(선덕여왕 12) 자장 스님이 창건하였다. 다음은 〈삼국유사〉 제3권 '대산오만진신(臺山五萬眞身)'에 전하는 이야기다.



강원도 평창 월정사 전나무숲길.



월정사 경내.

636년 스님은 문수보살을 친견하고자 당나라로 들어갔다. 태화지(太和池) 옆 문수보살상 앞에서 7일 동안 기도하는데, 꿈에 노스님이 범어(梵語)로 된 네 구 게송을 전하였다. 이튿날 아침 어떤 스님이 나타나 게송의 뜻을 알려주고, 부처님 가사와 발우, 진신사리를 전해주며 말하였다.

"그대의 본국 동북방 명주(지금의 강릉) 경계에 오대산이 있다. 1만의 문수보살이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으니, 그대는 가서 친견하도록 하시오."

말을 마치자 사라졌다. 이후 태화지 용이 나타나 말하였다.

"전에 게송을 전하던 노승이 바로 문수보살입니다. 신라로 돌아가 절을 짓고 탑을 세울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스님은 신라에 돌아오자 문수보살이 머무는 오대산에 이르러 산기슭에 초당을 짓고 정진하였다. 그러나 문수보살을 뵙지 못하고 다시 원녕사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였다. 이후 자장 스님이 초당을 지은 곳에서 유동(幼童)보살의 화신이라고 하는 신효(信孝)거사가 정진하였다. 다음은 〈삼국유사〉 제3권 '대산월정사 오류성중(臺山月精寺 五類聖衆)'에 전하는 이야기다.

충남 공주가 집인 신효거사는 효성을 다하여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어머니는 고기가 아니면 먹지 않았다. 거사는 고기를 구하려 산과 들을 돌아다니다가 학 다섯 마리를 보고 활을 쏘았다. 학 한 마리가 깃털 한 조각을 떨어뜨리고 날아갔다. 그 깃털을 집어 눈을 가리고 사람을 보았더니 모두 짐승으로 보였다. 거사는 고기를 얻지 못하여 자기 넓적다리를 베어서 어머니에게 드렸다. 이후 출가하여 자기 집을 절로 만들었다. 지금의 강릉에 이르러 깃털로 눈을 가리고 사람을 보니 모두 인형으로 보였다. 이곳에서 살고자 하여, 길에서 할머니를 보고 살만한 곳을 물었다.

선재길·전나무숲 아름다움 가득
선지식 일화도 빼놓을 수 없어
자장 스님·나옹 스님 이야기와
삼국유사 '대산월정사'편 흥미도

"서쪽 고개를 넘으면 북쪽으로 향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말하자마자 사라졌다. 관음보살의 가르침이라 여겼다. 거사는 곧 자장 스님이 처음 초당을 지은 곳으로 들어와 정진하였다. 다섯 분의 스님이 와서 말하였다.

"그대가 가지고 온 가사 한 폭은 어디 있는가." 무슨 말인지 모르자 스님은 또 말하였다.

"그대가 집어서 눈을 가리고 사람을 본 그 학의 깃털이 바로 가사다." 깃털을 내주자 스님이 깃털을 가사의 뚫어진 폭에 갖다 대니 서로 꼭 맞았다. 깃털이 아니고 가사의 베였다. 거사는 다섯 분의 스님과 작별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들이 다섯 성중(聖衆)의 화신임을 알았다.

〈삼국유사〉 '대산월정사 오류성중'에는 다섯 성중이 누군지 설명이 없다. 앞글인 '대산오만진신'에서 오대산 동대 남대 서대 북대 중대에 각각 관음보살, 지장보살, 대세지보살, 아라한, 문수보살이 나타나셨다고 하였으니, 다섯 성중 역시 그분들이라 짐작한다. 문수보살을 비롯한 보살들은 노스님, 용, 학, 여인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 길을 인도하였다. 마치 선재동자가 여러 선지식을 만나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대산월정사 오류성중' 말미는 "나라 안의 명산 중에서 이곳이 가장 좋은 곳으로, 불법이 길이 번창한 곳"이라는 말로 끝맺는다.

대자유인의 기개 느끼다

선재길이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부터 일주문에서 금강교 앞까지 이어지는 약 900m 길이의 전나무 숲길은 유명하였다. 광릉 국립수목원, 전북 부안 내소사와 더불어 국내 3대 전나무숲으로 꼽는다. 무엇보다 오대산 전나무숲에는 대자유인의 이야기가 있다.

고려말 북대암(北臺庵)에서 수행하던 나옹(懶翁) 스님(1320~1376)은 매일같이 월정사 부처님 전에 콩비지를 올렸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어느 겨울날이었다. 스님은 콩비지를 받쳐 들고 눈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소나무에 쌓여있던 눈이 스님과 부처님에게 올릴 콩비지를 덮쳤다. 스님은 소나무를 향해 야단을 쳤다.

"이놈, 너는 부처님 진신(眞身)이 계신 이 산에 살면서 항상 부처님 은혜를 입고 있는데, 어찌 부처님 전에 올릴 공양물을 버리게 하느냐."

마침 스님의 꾸짖는 소리를 들은 산신령은 소나무에게 명하였다.

"소나무야, 너희는 큰스님도 몰라보고 부처님께도 잘못을 저질렀으니, 이 산에 함께 살 자격이 없다. 멀리 떠나라. 이제부터는 전나무가 이 산의 주인으로 오대산을 번창하게 하리라."

소나무는 오대산에서 쫓겨나고, 이후 전나무가 주인 노릇을 하였다. 대자유인인 나옹 스님의 기개는 또 다른 일화를 전한다.

오대산 북대암에 모셔오던 16나한상을 상원사로 옮기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운(移運)은 힘든 일이라 대중스님은 고심이 많았다. 이에 나옹 스님은 이운을 혼자 도맡아 하겠으니 며칠 말미를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운하기로 한 기간이 다 된 날 점심때에도 전혀 진척이 없었다. 스님들은 답답하였다. 해가 질 무렵 나옹 스님은 나한전에 들어가 큰 소리로 말하였다.

"옮긴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으면 제 발로 옮겨 갈 일이지, 이 화상이 업어서 옮겨주기를 기다리는가."

그리고 나한들의 머리를 주장자로 내리쳤다. 그 순간 나한상이 벌떡 일어나 법당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였다. 상원사에 자리한 나한들을 살펴보니 한 분이 보이지 않았다. 내려오다가 칡넝쿨에 걸려버렸다. 나옹 스님은 산신령에게 이운을 방해한 칡넝쿨을 없애도록 명령하였다. 이때부터 오대산 상원사와 북대 주변에는 칡넝쿨이 사라졌다.

나한과 산신령에게도 당당한 나옹 스님은 이 땅에 오신 불보살의 화현이다. 나옹 스님의 가르침이 바람 따라 전나무숲에서 들려온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노여움도 내려놓고 아쉬움도 내려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불교학자〉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전품목 10~30%
승복&가방 50% 할인
제품 소진시 까지
※ 일부 품목 제외 ※ 택배비 포함된 가격입니다.

사월초파일 제품 할인판매합니다.
다양한 연잎, 등살, 등작업 2월말까지 행사중입니다.
신제품 인등 신제품 많이 준비 되었습니다. 주문제작 합니다.
수제부적 50장 20,000원씩
(국산)전기선 LED전구 100개 이상 1,300원

2024년 신년맞이 행사
안녕하세요. 동호 불교용품 물류센터입니다.
저희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삼베 ,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대통부 6,000원
삼베옷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식물성 양초 - 그을음 없는 최상급 (흰색, 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20개 ····· 70,000원
5일초 24개 ····· 75,000원
3일초 40개 ····· 75,000원
1일초 100개 ····· 85,000원
15일초 12개 ····· 105,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 50,000원
15일 ····· 70,000원

파라핀 오일 1BOX(12개) 65,000원

천왕배 오색길배-최상급
개당 4,500원 / 30개 135,000원

부정풀이 1BOX(100개) 100,000원

불상 7치 500개 12.000원 / 1000개 11.000원

※칠보 개금 할인중.(기존 불상 가능) ※3자기준좌포함 220만원
※불상 조각 조성합니다.(소불 500불이상 한불당 – 12,000원)
※천불이상은 11,000원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동호불교 검색 NAVER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
■ 대표번호 : 054-762-8200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 문의전화 : 010-9748-3366
■ 계좌번호 :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2024년 2월 7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70호 | 15 | 전면광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드는 이가 있으면 설사
커다란 불 속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불이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건물 : 법당 60평, 외전각 3채
- 주변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35억
- 경기분당포교원
- 8층 건물에 8층 • 128평에 전용80평
- 역세권, ev. 주차가, 옥상사용
- 매가 : 15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대형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 치 : 충남 부여군 은산면
- 임 야 : 2,000평
- 기도방 3개, 산신각, 용궁, 선황, 요사채
- 매매가 : 2억 7천 (가격절충)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4799-944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백평, 임야 : 3천 6백평
- 건물 : 대웅전 55평, 공양실 35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8억

010-6764-0034

지리산 명당터 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소재
- 대지 : 종교부지 전 임야 총 16,000평, 택지개발 3,000평 분할매도 가능
- 건물 : 36평 2동, 8평 2동, 지리산 웅석봉 아래 백두대간 정혈 큰터, 청계호수를 바라보는 정남향 절경
- 답사 상담 협의 후 가격 결정

010-4752-0459

사 찰 안 내

종교종단 연수원 기도원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원동조교로 453
- 대지 : 임야 2000평 중 대지 400평 대웅전, 산신각, 기도처, 요사채, 숙소 2차선 도로접 버스주차장 200평 포함 향후 재개발 가능 임야 다수
- 스님 고령화로 매매 원함
- 8억 5천 (조정가능)

010-2415-26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 대지 : 약 50평
- 건물 : 3동 법당 8평 주지실 6평 용왕당, 3평 공양, 방3개, CCTV 4개
- 가액 : 6천
- 부동산 전화 사절
- 비구니 스님환영

010-7506-860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4억 5000만원

010-7289-00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
- 임야 : 대 485평
- 가액 : 5억 8천
- 건물 : 삼존불 3자 동불, 법당, 요사채, 공양간, 별채

010-3230-5656
010-8001-073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 종교용지, 대지 218평, 시유지 포함 500평 사용, 주차10대, 건평 68평 중 1층 요사 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 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심야전기, 지하석수 1일 150톤 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집기 일체 포함, 즉시 법회 가능
- 건강상 시가이하로 7억에 양도함 (절충가능)

010-6425-8274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자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1+1 소비자가 ~~₩99,000~~ 60%할인 ₩39,600 총 80매
3+3 소비자가 ~~₩297,000~~ 63%할인 ₩109,890 총 240매
5+5 소비자가 ~~₩495,000~~ 68%할인 ₩158,400 총 40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 강연 영상이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YouTube 심영세원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70호 | 16 | 전면광고

계를 지키면 늙도록 편안하고
잘 지내게 되나니, 지혜는 사람의 보배요,
복은 도둑맞는 법이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출요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무속인,법사,무당,일반인,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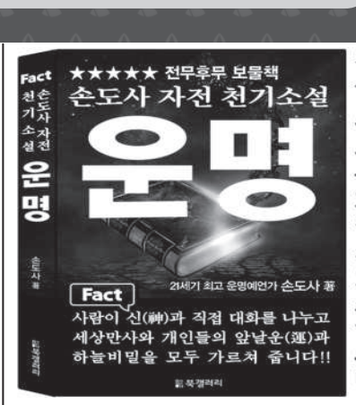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검색-손도사 자전 천기소설 운명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5270-8260

부전스님 1분 사무장님(여) 1분 공양주님(여) 1분 모십니다

부여 미암사

010-5424-5555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부처님 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여하시불(如何是佛) 무엇이 부처입니까? 지금 그와 같이 묻고 있는 그대가 바로 부처입니다. 티끌만한 거짓도 허망도 없이 이렇게 당신이 곧 부처님이 되는 법을 알려 드리고자하오니 원하시는 분들께서 법회를 마련하시면 참석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010-5366-4905 무심 합장

나를 닦는 백팔배(백팔대참회문)

The Sound of Life

생명의 소리 CD

특가 12,000원

'절이란 참으로 진지하게
나를 닦는 방법입니다!'

"모든 생명을 지극히 내안에 모시고
살림의 장을 확산해 나가는 생명과
평화를 위해 108배를 올립니다"



1. 절을 하는 마음 낭송 (01:17)
2. 나를 닦는 108배 낭송과 음악 (37:39)
3. 명상음악 "영혼의 피리소리" (05:40)

연주 – 김영동 (대금, 단소, 훈)
삽입곡 – 대금독주곡(즉흥연주)
단소독주곡(즉흥연주)
영가1 – 자연의 소리
영가2 – 자연의 소리
수제천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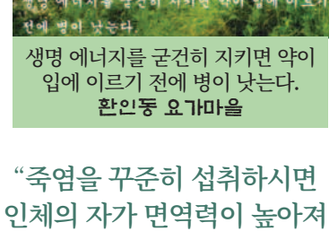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010-7384-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③ 제다의 원리

세밀히 차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정차(精茶)는 잘 만들어진 좋은 차를 말하며, 이를 명차(名茶)라고 부른다. 명산(名山)에는 명차가 난다고 하였으니 이는 차를 영초(靈草)라 인식했던 것과 상통되는 맥락이다. 차를 신령한 물질로 인식했던 것은 초의 선사(1786~1866)도 마찬가지였다. 그러기에 그는 〈동다송〉에서 "더구나 너의 신령한 뿌리는 신선산에 의탁했으니 신선처럼 맑은 차는 그 품격이 다르다(矧爾靈根托神山 仙風玉骨自另種)"라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차를 신선처럼 맑은 품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한 연유는 무엇 때문일까. 아마도 차의 천진무구한 천연성, 바로 맑고 청량하고 온화한 품성이 시기 질투와 성냄, 불안감, 공포 등으로 찌든 사람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 주기 때문이리라. 인간의 삶이 고통스럽고 불안한 것은 지나친 욕망이 만들어낸 감정들이다. 이런 마음 상태를 조절, 통제하기 위한 공부는 수행이며, 수신(修身)이다. 그러므로 유학에서는 거경(居敬)이나 근(謹)을 수기(修己)의 요체로 삼은 것이며 이는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성현의 가르침은 설득력이 있어 만고(萬古)의 진리로 인식한 것이며 가장 객관적인 삶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옛사람의 궁극적인 수신의 목적은 본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차는 사람의 근심과 울화, 피로감을 풀어주는 신묘한 정신음료로 인식하여 곁에 두고자 했다. 이는 오랜 경험을 통해 좋은 차를 마신 후 불편했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차의 효능에 주목했던 것이며, 이를 차의 이로움이라 정의했다. 따라서 차란 사람의 피로에 지친 마음과 몸을 평탄하게 이완시켜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 상태로 이끌어 주는 특별한 물질로 인식한 옛사람들은 수많은 시문에서 차를 칭송하였다. 특히 조선 전기 이목(李穆, 1471~1498)의 〈다부(茶賦)〉에도 차의 이로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잠시 후 절로 웃으며 차를 따르니(俄自笑而自酌)
두 눈이 환하게 밝아지네(亂雙眸明滅)
이에 몸을 상쾌하게 만드는 것은(於以能輕身者)
상품의 좋은 차가 아니던가(非上品耶)
묵은 병을 쓸어버리는 건(能掃痾者)
중품의 차가 아닌가(非中品耶)
번민을 달랠 수 있는 것은(能慰悶者)
중품 다음 차가 아니랴(非次品耶)

이목도 노래한 바와 같이 차를 마신 후 가장 먼저 느끼는 몸의 변화는 눈이 밝아지고 시원해진다는 점이다. 근래 필자와 함께 차를 마신 인사들 중에 차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차를 마신 후 처음 느끼는 몸의 변화는 피곤했던 눈이 갑자기 시원해지면서 환하게 밝아진다는 것이다. 개중에는 몸이 따뜻해지면서 포근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몸을 감싸는 듯, 몸이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변화를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감안해 본다면 이목의 말한 차의 이로움은 현대인도 어느 정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고단차를 만드는 모습. 시루에 찐 차를 잘게 갈아 뭉쳐서 틀에 찍어낸다.

차 만들기는 차문화 역사의 핵심
이목 "상품의 차, 몸 상쾌하게 해"
정밀히 만들지 않고 다른 풀 섞이면
음용하면 병이 드는 나쁜 차가 된다

이목은 상품의 차는 몸을 상쾌하게 만드는 효능이 있다고 하였다. 물론 그가 언급한 차품은 상품, 중품, 하품으로 구분해 각기 다른 차의 효능을 말했지만, 법제를 잘한 차는 상·중·하품으로 품질을 나누지 않더라도 차를 마시면 눈이 밝아지며 입안에 단침이 돈다든지, 시원한 청량감을 준다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이런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를 따는 시기가 중요하다. 알맞은 시기에 차를 따서 만든 차는 부드러운 맛과 은은한 빛, 진향(眞香), 난향(蘭香) 등이 잘 드러나 이런 차를 마시면 신비한 차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차를 따는 시기가 늦어지면, 쓰고 떫은 맛이 강하여 감윤(甘潤)한 맛과 환한 난향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일찍 딴 차(早茶)와 늦게 딴 차(晩茶)는 차품의 질적 차이가 큰 것이다.

이목은 중급 차를 마시면 묵을 병을 쓸어내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시키며 번민 또한 달래서 심신이 평온한 상태로 이완시켜 준다고 했지만, 이런 차의 효능을 모든 차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좋은 차를 얻고자 하였다. 우리의 심신을 안정시켜 주는 차는 잘 만들어진 차를 말한다. 차를 만드는 일은 차문화사의 주요한 핵심이다. 이에 못지않게 찻물도 중요한 요소이다. 아무리 차의 색향기미를 완벽하게 드러낼 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물을 잘 끓이지 않으면 차의 색향기미가 온전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물과 탕법의 중요성을 간파했던 옛사람들은 차를 논하면서 제다법과 품수(品水), 물 끓이는 방법(湯法), 숯불의 관리 등에 주목했다.

그렇다면 좋은 차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는 차사(茶事)의 중요한 명제이다. 제다의 시작은 차를 따는 시점과 기후에 달렸다. 11세기 이후 고려에서는 매발톱이나 낱알 같은 여리디 여린 차 싹을 따서 연고단차(研膏團茶)를 만들었는데, 이 무렵 차는 수증기로 찻잎을 쪄서 생잎의 거친 풋 맛과 향을 중화하여 부드럽고 감윤(甘潤)한 맛과 청한(淸寒)하고 온화한 맛을 드러내고자 했다.

육우의 〈다경〉에는 제다의 전반을 "차를 딸 때 알맞은 시기가 아니며 정밀하고 세밀하게 차를 만들지 않고 다른 풀이 섞이게 되면 (이렇게 만든 차를) 마시면 병이 든다(採不時 造不精 雜以卉莽 飮之成疾)"라고 하였다. 이는 제다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차를 만들 때 귀감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라 하겠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⑥

1. 불교의 관점에서 고행에 대한 설명이 바른 것은?

① 육신을 학대하는 수행은 고통스러우나 반드시 필요하다.
② 과거의 업을 제거하고 새로운 업의 생성을 막는 수행법이다.
③ 진정한 해탈에 이르는 길은 쾌락과 고행을 모두 벗어난 중도의 가르침을 말한다.
④ 혹독한 고행은 해탈에 이르기 위한 예비단계에서 신체를 정화하는 유일한 수행법이다.
⑤ 고행은 정신적인 청정함을 얻기 위한 자발적인 금욕수행으로 부처님께서 적극 권장하셨다.

해설 : 고행은 부처님 당시의 일부 사문들이 추구하는 수행으로서 몸을 괴롭힘으로써 마음을 정복하고 신체를 정화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부처님께서는 6년의 수행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 고행을 철저하게 닦으셨음에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기에 이를 벗어난 중도의 가르침을 설하셨다.

2. 부처님은 여러 가지 별칭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 지혜와 실천을 겸비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진 칭호는?

① 응공(應供) ② 명행족(明行足) ③ 세간해(世間解) ④ 무상사(無上師) ⑤ 조어장부(調御丈夫)

해설 : 응공은 마땅히 공양을 받으실 분, 명행족은 지혜와 실천을 겸비하신 분, 세간해는 이 세상을 완전히 이해하신 분, 무상사는 위 없는 스승이신 분, 조어장부는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3. 부처님의 명호와 그 명호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응공(應供) -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
② 명행족(明行足) - 지혜와 실천을 겸비하신 분
③ 정변지(正遍知) - 바르고 보편타당하게 아시는 분
④ 조어장부(調御丈夫) - 깨달음의 세계로 잘 가신 분
⑤ 천인사(天人師) -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 되시는 분

해설 : 조어장부는 자신이 아니라 중생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천인사의 뜻은 본 문제의 해설 참조. 나머지 명호의 뜻은 18번 문제 참조.

4. 부처님의 명호 중에서 세상의 존경과 함께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① 응공(應供) ② 천인사(天人師) ③ 정변지(正遍知) ④ 명행족(明行足) ⑤ 조어장부(調御丈夫)

해설 : 18, 19번 문제 참조.

5. 부처님께서 갖추신 공덕을 10가지 면으로 존칭한 이름을 여래십호라 한다. 다음 중 여래십호가 아닌 것은?

① 응공 ② 선서 ③ 명행족 ④ 제석천 ⑤ 조어장부

해설 : 제석천은 하늘세계에 사는 신의 이름으로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선서는 생사윤회의 강을 건너가셨다는 뜻이다. 나머지 명호의 뜻은 18, 19번 문제 참조.

6. 부처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불교에는 오직 한 분의 부처님만 있다.
② 부처님이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③ 산스크리트어 붓다(Buddha)를 번역한 말이다.
④ 석가모니 부처님은 80세에 인간의 수명을 마치셨다.
⑤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하기 전 이름은 '고타마 싯다르타'였다.

해설 : 부처님의 깨달음을 추구한다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기에 부처님이 되신 분, 되실 분은 다수다.

정답 : 1. ③ 2. ⑤ 3. ④ 4. ① 5. ④ 6. ①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 (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올해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현대사회는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매우 중요한 시대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에는 '빙의', '신기운'의 폐해가 매우 큽니다!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안되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으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상담원
마음치유·정신건강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장보배의 사찰국수기행 스님이 웃는다 ❸ 동화 스님의 들깨 칼국수



▶한줄 요약
자극은 적고, 영양소는 풍부한 들깨 칼국수는 되직한 가루의 성질 덕분에 잘 식지 않아 오래 뜨끈하고, 묵직함이 오래간다.

마음을 채우는 선물 같은 한 그릇

"네 어머니 뱃속이 시원하더냐, 답답하더냐."

"답답하니까 나왔겠지요. 시원하면 나왔겠습니까."

서암 스님을 뵈던 날, 이제 겨우 행자 시절을 보내던 젊은 스님은 선승의 질문에 스스럼없이 답을 던졌다. 막 걸음을 떼는 제자의 당돌한 대답에 타박 한마디 던질 법도 하건만, 노구의 선승은 환하게 웃음을 터트릴 뿐이었다. 그리고 다시, 또다시 이어지던 그날의 선문답은 이제는 훌쩍 나이를 먹어버린 그날의 제자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로 남아 눈앞을 밝힌다.

그날의 인생국수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용감했어요."

경상북도 상주 남산 자락에 자리한 묘견암(妙見庵). 상주 터미널에서 김천 방향으로 십여 분을 달리면 나타나는 정갈하고 어여쁜 도량에서 동화 스님(묘견암 주지)을 만난 날. 마치 오래전 그날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붉게 물든 동화 스님의 얼굴에 부끄러운 표정이 스쳐 지난다.

해방 이후 척박한 이 땅의 불교계와 동포를 위해 헌신한 선승. 어떤 자리에도 매이지 않고 온 생으로 법을 펼치고 떠난 자유의 수행자. 근대 한국불교의 거목으로 평가받는 서암 큰스님을 만난 날의 이야기다.

"그때 저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행자 시절에 하도 일이 많으니 스님 노릇이 이런 건가 싶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른스님들께서 크게 깨우친 스님이 계시니 뵈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뵌 서암 스님께서 그날 국수 한 그릇을 직접 내어 주셨습니다."

그곳은 경북 봉화 태백산 기슭, 작은 조립식 건물에서 동화 스님 일행을 반겨준 이는 인자한 모습의 노승. 바로 서암 큰스님이었다.

"노스님께서 국수를 끓여 고추 한두 개 떠 있는 간장과 김치만 턱 놓고서 먹자고 하시는데, 그 국수가 얼마나 맛있던지. 신기할 만큼 지금도 그 맛이 잊히질 않아요." 국수 한 그릇을 다디달게 해치운 행자는 큰스님을 만난 기대감에 궁금한 것을 덜컥 내밀고 만다.

"구십 평생 스님으로 계시며 얻은 것이 무엇이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나 얻은 게 하나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순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웃음). 아니 저리 큰스님이라고 소문이 자자하신 어른도 얻은 게 없다면 나는 어쩌나 하구요. 하지만 바로 다음 말씀이 두고두고 제 가슴을 쳤습니다."

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난 버리고만 살았다.

큰스님의 그 한 줄기 대답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깨달은 것은 그 후 십 년,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간장 한 점 없은 소박한 국수, 그 위에 더해진 선승의 법어. 지금도 잊히지 않는 그날의 맛과 어린 행자의 당돌한 질문도 어느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던 자상한 큰스님의 모습은 남아있는 자의 시간 속에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있다.



동화 스님의 들깨 칼국수

재료 칼국수면, 채수, 각종 버섯, 들깨가루, 찹쌀가루, 집간장, 굵은 소금

만드는 법
1. 채수는 무와 다시마로 국물을 깔끔하게 내준다. 집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2. 버섯과 미나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3. 들깨가루 1컵에 찹쌀가루 1큰술 반을 미리 섞어 둔다.
4. 채수에 무와 다시마를 건진 후, 칼국수면을 넣고 거의 익으면 버섯과 3을 넣어 끓인다.
5. 마지막에 미나리를 넣고 불을 끈 후 그릇에 담아낸다.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국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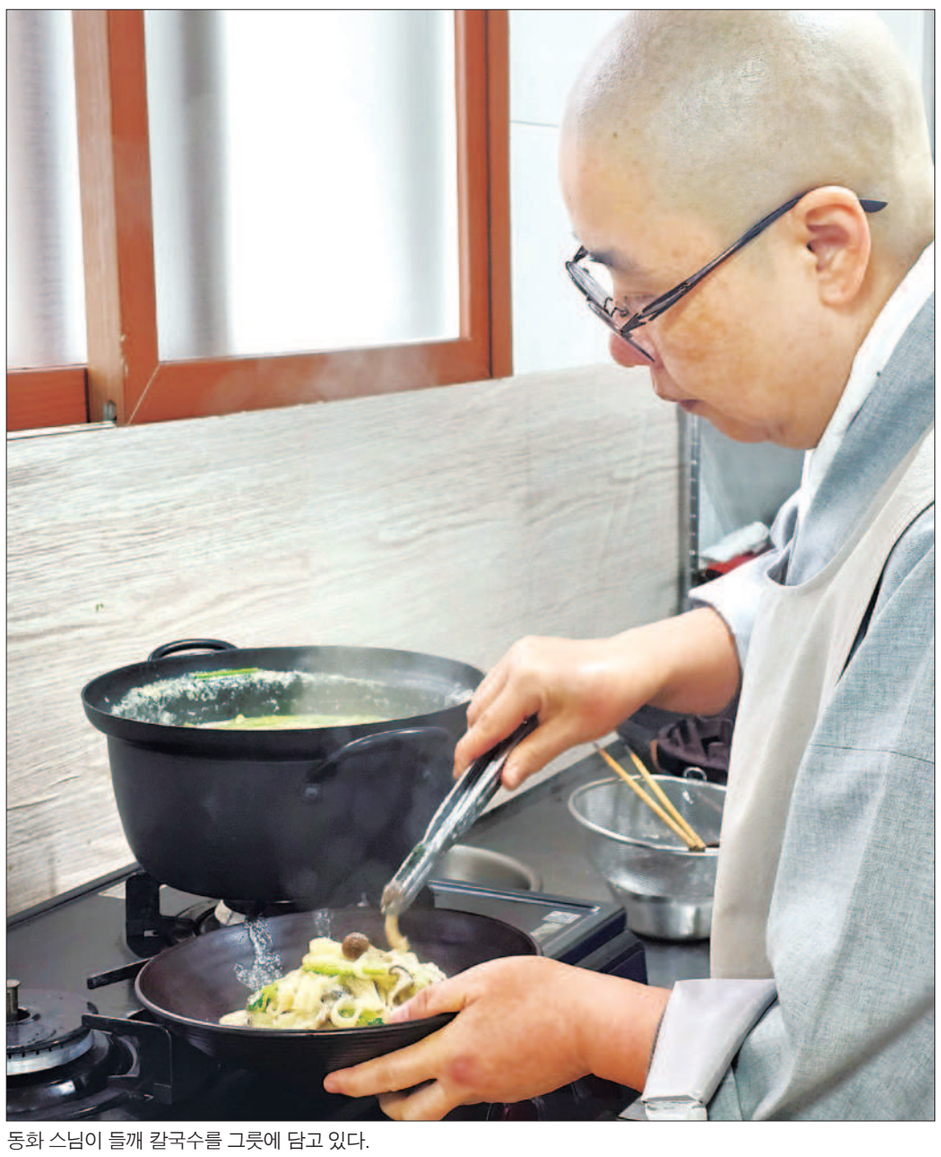
삶이란 무엇인지 어렵고 막막했던 어린 날. 우연히 만난 한 스님의 "너 머리 깎고 중이나 되어라!" 한 마디에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싶어 바로 다음 날 집을 나섰다는 동화 스님.

어른스님들 말씀에 공양간은 복 짓는 곳이라 하여 마음이 답답할 땐 일부러 찾아 나섰다. 공양간 소임을 맡아 한철, 또 한철 지내고 보니 이만한 공부방이 있을까 싶었다고. 이제는 사찰음식 강사가 되어 더 많은 공양간을 찾으니 이 또한 나날이 수행의 연속인 셈이다.

"음식을 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자기를 낮춰야만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할 수 있어요. 구정물에 빠지고 부엌데기 취급도 받으면서요(웃음). 하지만 이 음식을 드시는 스님들이 부디 확철대오(廓徹大悟)하시길, 배고픔이 달래지기를, 편안하기를 바라면 다른 생각은 나지 않아요."

그런 동화 스님에게는 때때로 비장의 무기처럼 쓰이는 레시피가 있다. 바로 사계절 어디서나 환영받는 들깨 칼국수!

절집의 부엌에서 국수란 노상 함께 하는 친구와 같은 것. 국수하는 날이면 공양간 멀리서부터 웃으며 들어오시던 스님들 덕분에 안 해본 국수가 없지만, 들깨 칼국수는 그보다 요긴하게 쓰이는 특별한 메뉴다.



동화 스님이 들깨 칼국수를 그릇에 담고 있다.

한 그릇에 속 든든한 단골 보양식
국수 먹고 '살아야겠다' 마음 먹어
몸·마음 허허로운 날 더 좋은 위안

"아는 분에게 급히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자신의 지인이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니 도와줄 수 있겠냐면서요. 만나보니 마음에 화가 가득 찬 분이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8시간 동안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 드리고, 들깨 칼국수를 정성껏 만들어 드렸어요. 저는 듣기만 하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일단 드시고 힘내서 더 말씀하시라고 했지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생겼다. 한 입, 두 입 먹을수록 잔뜩 올라갔던 매서운 눈초리가 내려가더니 이내 눈물을 흘렸다. 혼자 생을 마감할 계획을 세우던 이가 스님이 해주신 음식을 먹으며 자신도 모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오랜 시간 감사를 전하던 그는 지금도 종종 동화 스님에게 반가운 인사와 함께 그날의 들깨 칼국수를 이야기한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한 그릇 먹으면 속이 뜨끈하고, 든든해지는 들깨 칼국수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단골 보양식이기도 하다. 동네 이웃과 어른들에게 '몇 월 며칠은 들깨 칼국수 먹는 날'이라고 언질을 주면, 그날은 약속도 잡지 않고 삼삼오오 스님의 거처를 향해 모이는 것이다. 시내 마실 한번 나가기도 쉽지 않은 연로한 어르신들의 무료한 일상에도, 작은 절집에도 그렇게 훈기가 돈다.

"들깨 칼국수에는 버섯을 풍성하게 넣습니다. 그래야 쫄깃한 식감이 더해지고 보양이 되지요. 그리고 미나리를 꼭 넣어줘야 해요. 미나리가 들깨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속도 편안합니다."

자극은 적고, 영양소는 풍부한 들깨 칼국수는 되직한 가루의 성질 덕분에 잘 식지 않아 오래 뜨끈하고, 묵직함이 오래간다. 동의보감에 설명된 들깨는 본래 독소가 없고, 더운 성질로 속을 보하며 골수를 채우는 힘이 있다. 또 과하게 오른 기는 내려주고, 마른 이는 살을 찌워 오래전부터 환자의 회복식으로 많이 쓰였다고 하니, 몸도 마음도 허허로운 날 이보다 더 좋은 위안이 또 있을까.

"오래전 서암 스님께서 국수를 내주시던 날, 처음 하신 말씀이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것이었어요.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해 그저 서울입니다, 했지요. 그렇게 뒤로, 뒤로 가다 보니 어머니 뱃속까지 돌아갔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화두 아닌 화두를 주셨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생각해 보라. 너는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하라' 자상한 노스님의 선문답은 그렇게 끝을 맺었다. 그렇게 던져진 화두는 지금껏 닿지 않는 별처럼 아득하지만, 아직도 변함없이 동화 스님의 시간 속에 함께 머문다.

"공부가 안 되어 답답할 땐 혼자서 울기도 했습니다. 큰스님 되기에 내 그릇이 부족하단 것도 깨닫고요(웃음). 하지만 그냥 지금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할 때 최선을 다해 저를 내려놓고 필요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참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저도 행복해집니다. 참 간단하지요(웃음)."

스승들의 전설 같은 깨달음은 아직 멀고 먼 이야기.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잘 머무름이 겹겹이 쌓인 화두의 문을 여는 시작임을 알기에 오늘도 가만히 발아래를 살핀다. 그런 어느 날 구수하고 따스한 들깨 향기 코끝을 스치는 어떤 곳에서, 오랜 별과 같은 나를 만날지도 모를 일이다. 〈작가〉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수업형식 수료 1년 과정 (2년 코스)
개 강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 시작
교육시간 매주 금요일 마다 오전 9시
교육내용 아침예불/ 종성/ 사물다루는 법(목탁. 요령. 북. 태징)
천도재 (49재의식),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게, 다게
수강자격 불교의식에 관심 있는 스님. 포교사 및 재가불자
교육장소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 봉운사
문 의 사무총장 진효스님 010-5306-0856
은행 농협 351-1034-0234-33 송강범음범패전승회

매주 금요일 교육시간표
오전 9시 49재의식 진효스님
오전 10시 49재의식 진효스님
오전 11시 작법 진효스님/보조 정심법사님
오후 1시 화청연습 정덕스님
오후 2시 행사연습 진효스님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회장 웅천 합장(合掌)
▣ 수업 시간표는 다가오는 행사 일정 또는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중요행사문의 – 윤달 생전예수재, 수륙재, 방생, 1000일 기도 회향법회, 점안식.
홈페이지 www.송강범음범패전승회.kr
회장 웅천스님 010-2370-2953 부회장 혜덕스님 010-9873-3320 강주 진효스님 010-5306-0856

출강 및 통신 2024학년도 제33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 양성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법사 양성의 독보적인 전문 교육 도량으로서 33년의 학풍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법사 활동 외연 확장을 위해 숲명상전문가 2급 자격 취득(산림청 민간자격증)의 기회도 겸비할 수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

☎ 02)733-1959 720-1836

불교 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 동영상미디어 강좌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4년 2월 20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한선빌딩 3층
홈페이지 : http://pubsa.net(검색창에 한국불교법사대학)



대행 스님

오직 일거수일투족 그 주인공 줄을 잡고 가라

살아서 마음 도리 알아야 한다는데

질문 스님께서는 살아서 이 도리를 알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 마음 도리를 모르고 몸을 벗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항상 여러분한테 생활이 공부라고 했습니다. 생활이 교재라고 했습니다. '불(佛)'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본을 말하고 '교(敎)'라는 것은 생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이유가 어딨느냐. 사람이 살면서 내 주인공의 줄을…, 이건 근본이기 때문에 움죽거리진 않습니다. 움죽거리지 않는 근본의 줄을 잡고 그 언덕을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죠. 즉 말하자면, 천야만야한 산을 타는데 줄이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죠.

본래 우리들은 제각기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웁게 살든 못났든 잘났든 가난하든 이 걸 떠나서 다, 하다못해 물에서 노는 고기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불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거 하나 빼놓지 않고 불성은 있으니 불교라고 했죠. 사람들이 살고 죽고 하는 게 그냥 불교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때에 내가 공했다는 걸 알아야죠. 내 전체 몸속에 있는 생명들도 다 공해서 한 개체로 산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살고 있는 한 개체가 '나'가 없다면 상대가 전부 없어요, 나만 없다면. 그래서 '나의 나무는 나의 뿌리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줄타기할 때 줄을 잡고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줄을 잡게 하지 않고, 잡는 것도 모르고 그냥 부처님만 찾든지, 모든 것을 잘하라는 둥 믿으라는 둥 이렇게만 자꾸 나간다면 자기는 그 언덕 위의 맛을 못 보고 항상 심부름꾼 노릇만 해야 되겠죠. 자기 부처를 자기가 찾지 못하고 그냥 심부름꾼 노릇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서 공한 줄 알고, 내가 공해서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하죠.

왜냐? 생명들과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에 어떤 거를 했을 때에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 공했다는 얘기죠. 모두가 그래서 부처란 얘기죠. 어떤 거를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리만큼 많은 생명들이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가면 내 몸뚱이가 살아 있어도 체가 없는데, 내 것이 없는데, 세울 게 없는데, 또 본래 있으므로 찾을 게 없는데, 체가 없는 나가 물에 빠질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뜻을 알고 간다면요, 죽을 리가 없죠. 불에 들어가도 뜨거워서 타 죽을 일 없죠. 지옥고에 빠진다 하더라도 둘이 아닌 까닭에 오히려 건지죠.

이러한 거를 살아생전에 다 알아야 돌아가셔도 제 길을 자유대로 찾을 수가 있죠. 태어나려면 태어나고, 아니면 그냥 보살로서 행해 나갈 수도 있고, 상세계의 부처님 도량에, 한도량에 한마음으로써 진행할 수도 있고, 지금 시쳇말로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이 보지 못하는 거를 보고 듣고 행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자동적으로 주어지죠. 그것은 전체 한울, 한도량에서 인가를 받는다, 또는 그런 원력이 그대로 주어진다, 지위가 그냥 주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모르고 돌아가신다면 외려 지옥고에 들어갈 수가 없죠, 무서워서. 환상을 보면 전부 그냥 무서우니까요. 자기가 체가 없는 줄도 모르고 관습, 욕심, 착, 이런 거를 두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옥고도 들를 수가 없는 거죠. 그 지옥고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자기를 해칠까 봐 무서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첫 단계에 지옥고를 건너지 못하면 두 번째 단계에는 빠져 죽을까 봐 강을 못 건넌다 이겁니다. 세 번째 가서는, 지금 이 허공에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그 불은 뜨겁지 않은 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체가 없는 거를 생각지 못하고 지금 현재에 사는 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식이 발동하면 뜨거운 불기둥을 넘어가질 못하거든요. 우리가 '저 언덕'이라고 그랬죠? '피안의 언덕' 이래도 되구요. 그런데 저 언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 이건 참 모르겠다. 이건 우리가 못 하지. 여기서는 정말 물질세계에서 정신세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 하면서 이렇게 모른다고 하는 그 자체가 도예요. 모르는 게 도라니까요.

그래서 저 언덕이 나를 떠나서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저 언덕도 있고 이 언덕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일거수일투족 그 줄을 잡고 간다. 옆에서 아무리 별소릴 다 해도 그냥 둘이 아니게 그대로, 진리대로 붙들고 간다. 거기서 에너지를 배출하는 거니까, 어떠한 것으로 화해서 바꿔져 돌아가든지 일거수일투족 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다 이 줄이 말해 주는구나.' 하곤 그냥 좇아가야죠. 그런데 그거를 좇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알아야지 죽은 뒤에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살아서는 부딪치니까 부딪치는 아픔을 알고, 슬기로운 지혜를 알고, 모든 걸 그렇게 알아서 하지만 죽으면 더하고 덜함도 없어요, 체가 없기 때문에. 경험을 살리고 물리가 터지도록 할 수 있는 체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내 마음이 '아, 이젠 가도 넉넉하겠구나. 이젠 내 몸이 옷을 벗어도 괜찮겠구나.' 할 때는 '옷을 벗으면 뭐를 할까?' 하는 생각이 없어도 자기가 하는 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차원이 주어지고 지위가 주어져요. 그래서 벗고 가려면 벗고 가고, 조금 더 있으려면 더 있고, 그렇게 돼야 그래도 사람의 삶이 그저 허탕하지만은 않지 않겠습니까? 허망하고 허탕하고 이런 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아서 그 뜻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뒤에서 철퇴가 들어오니 알겠습니까, 방망이가 들어오니 알겠습니까? 또 인연으로 인해서 원수가 나를 치러 들어와도 모르구요. 길을 가고 오다가 무명 영가들이 들이덤벼도 알 수 있나. 인간 하나가 사는 데에 그렇게…, 우연히도 없고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대로 그 업이 자기한테 찰나찰나 오죠. 그런데 그것을 모두 그 안에서 타파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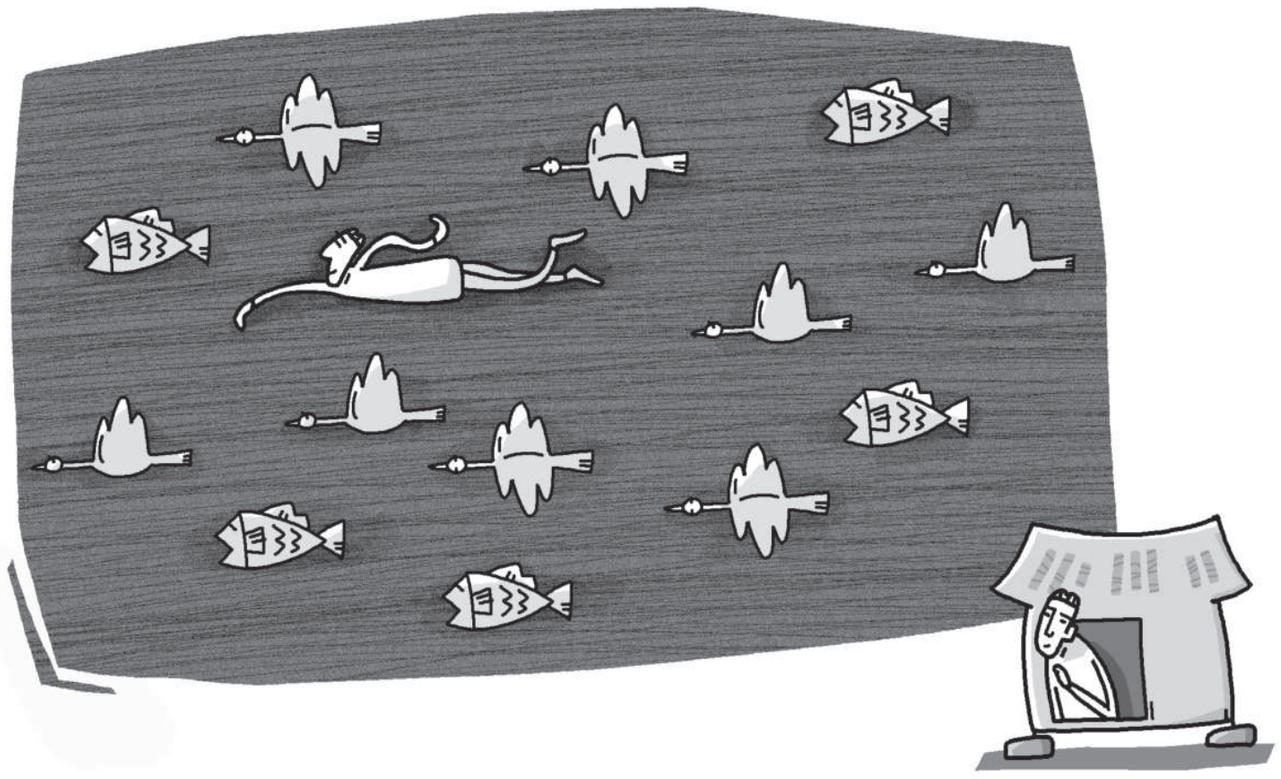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부처를 자기가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19면에서 계속

참선과 관법은 다른 것인지요

질문 이제 마음공부 초보자입니다. 친구 따라 절에 발을 디딘 지 한 삼 개월 정도 되긴 했는데 주인공에 관한다는 것이 알 듯하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잘 관하고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전혀 관하고 있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관하는 것과 참선하는 것은 다른 것인지요. 저희 같은 초보자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법은 누우나 앉으나, 내가 좀 앉아서 참구해 보겠다 하고 앉았으면 '주인공, 당신만이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게 관법입니다. 당신이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지 바깥에서 증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인공만이 자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뛰어넘고 뛰어넘고 하는 교차로가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교차로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없다면 죽을 거고, 내쉬고 들이쉴 수 있다면 살 겁니다. 그 양면이 교차하는 그런 틈에서 그냥 그대로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바로 그 놈이 있으니까, 그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그놈밖에 없잖아? 그리고 모든 생활을 들이고 내는 것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들이고 내는 게 아닌가? 자기가 없다면 들이고 낼 건덕지는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없다면 이 공부는 어떻게 해? 그렇기 때문에 이 배낭이라는, 종이라는, 집이라는 육신에 50%가 달려 있다 이 소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관하지 않으나 관하나 지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냥 돌아가고 있고, 자기가 관을 안 하든 하든 돌아가고 있어요, 그냥. 안 하는 것도 그 자리요, 하는 것도 그 자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여여함이죠. 안 한다, 끊어졌다 하는 생각은 자기의 관념적인 생각이지 포괄적인 생각은 아니닙니다. 그러니까 쉬어라 이 소리에요,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얘기를 안 하고 그거를 끊어뜨리고 있다 하는 것도 자기 관념의 생각이지 끊어지긴 뭐가 끊어집니까, 시공이 없이 그냥 돌아가는데.

끊어진 것도 거기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도 거기서예요. 이런 게 있어요. 24시간이라는 거는 우리의 관념적인 생각이지 24시간이라는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생각했다 저녁에 생각해도 아침하고 저녁하고 그냥 붙어 버려요. 그 공간이 그냥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묘한 법입니다. 이래도 모르시겠어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관념적인 생각이라 이겁니다, 하루 종일 내가 끊어뜨렸다 하는 생각은.

그런데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뭣고도 그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이 뭣고'라는 말에 착이 붙으면 끊어질까 봐 두렵고 또는 무기공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뭣고? 이게 뭘까?' 하는 것에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는 겁니다. 당당히 '네가 있으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하는 것하고 '이게 뭣고?' 하는 것하고, 수박을 놓고 '이게 뭣고?' 하고 있는 거하고 그냥 칼로 탁 잘라서 먹어 보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일체 만법이 벌어지는 이 세상이 전부 자기로 인해 생긴 것이니
세상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이 이치를 꿰뚫어 알기 위해서는
뭉쳐놓고 뭉쳐놓고 그렇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깟 놈의 거,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인 것을 칼로 잘라서 죽으면 어떻고 살면 어떻습니까? 이왕지사 배낭 지고 한 번 나왔다가 이 모습은 원점으로 돌아갈 건데, 맛을 봐야 먹고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들지 맛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먹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일체 만법이 벌어지는 이 세상이 전부 자기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자기만이 자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받아 가지고, 세상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이 이치를 꿰뚫어서 알기 위해서는 또 놓고 뭉쳐 놓고 뭉쳐 놓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천도재와 제사 지내는 마음

질문 새해가 되면 선원에서는 어김없이 합동 천도재와 촛불재를 지내게 되는데, 굳이 천도재를 형식적으로 지내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일체 중생들과 또 조상 영가와 다함께한다는 마음으로 먹게 되면 그것도 그 작용을 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옳게 알고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천도재를 지낼 때,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하는지요.

답변 그거는 당신 마음이고 죽은 영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살아 계신 분들도 다 마음이 천차만별인데, 죽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도리를 하나도 모르고 돌아가신 양반들은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라도 하면서, 이게 왜, 콱 해 놓으면 부러진단 말 있죠? 너무 눅진눅진해도 안 되고 너무 강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알맞게 하면서 서서히 맑게 청정하게 이끌어 드려야 합니다.

내가 제사 지내거나 천도재를 하거나 이럴 때 왜 떡을 둥그렇게 몇 조각 해 놓으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반찬을 해서 놓고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도로 묶어 놓으려면 반찬들을 해 놓고 그렇게 뚱땅거리고 지내도 되고, 그렇지 않고 부처님하고 한 자리를 하게끔 하려면 그냥 둥그렇게…, 그것도 안 해 놔도 되는 건데, 남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도 섭섭하고 그러니까 둥그런 떡을 하나 해 놓고 삼색 과일만 한 그릇에 그냥 놓고 초, 향만 켜고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살면서 지어 놓은 그 먹고 살던 습이 죽어서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자기가 먹고 살던 그 생각이 나서 자꾸 뭘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먹지도 못하면서도 먹게 해 달라고 하고 성가시게 굴거든요. 성가시게 군다 하더라도 잘되기만 하면 좋은데 잘못됐으니까 성가시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 있는 양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 지낼 때 음식을 많이 차린다고 형제들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네가 더 냈느니 내가 더 냈느니 하면서 얼굴을 붉히고 싸움을 한다면, 음식을 많이 차려 놓고도 그렇게 더 조상들을 옭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요 음식 많이 먹고, 싸우고 죽고 사는 데에 또 태어나서 살아라.' 하고 그렇게 붙들어 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럭하지 마세요. 울고불고, 돈 많이 들이고 또 싸우고, 해 놓고 귀찮고 하기도 귀찮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죠. 조상들이 많은 집에는 일 년에 몇 번씩 되니까요.

그러니 그럭하질 말고 떡 한 조각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둥그런 거 하나를 표시로, 과거 현재 미래를 한데 합쳐서 한 떡으로 해 놓는 겁니다. 그 뜻이 다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영가님들이 볼 때는 아주 큰 도량으로 보이게끔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도 부럽지 않게끔요. 거기에 칠보가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러니 부러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손들이 더 잘될 수밖에요. 온갖 거를 다 차려 놓고 하는 집들은 오히려 그냥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그렇지만, 그렇게 진짜로 믿고 하는 집들은 아마 고뿔도 제대로 오지 않을 겁니다. 허허허.

그러니까 '떡을 하나 해 놓고, 지내는 사람이 떡 안에 다 한마음으로 넣어야 된다. 그리고 지내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음' 하면 벌써 떡 하나예요. 한마음 하면 떡 하나로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영령들을…, 이런 좁쌀 알갱이 하나에다가 일체제불의 마음을 다 넣어도 이게 두드러지지도 않으면서 똑 알맞고, 일체제불의 마음을 이 큰 그릇에다가 넣어도 또 크면 큰 대로 차고 작으면 작은 대로 차고, 아주 그렇게 여여하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자손들이 부모에게 재를 지낼 때에 조상들이 살 때의 그 습기를 다 떼게끔 내 마음과 둘 아니게 만드세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상의 마음도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굴려서 놓으면 거기에서 굴려서 다 세척이 되듯이 깨끗하게 모두 나오죠. 왜, 세탁소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빨래가 돼서 나오죠? 그런 거와 같이 된단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그 떡 하나도 족하다 이런 말이죠. 이 떡 하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 먹이고도 떡 하나는 되 남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은공을 기리면서 열심히 그 주인공한테, 부처님과 같은 한자리를 하시게끔, 그저 한도량에 계시게끔 그렇게 관한다면…, 산 사람들이나 먹고 사느라고 온통 헤매지, 아니, 입이 있습니까, 몸뚱이가 있습니까? 뭘 먹겠다고 조상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생각이죠. 생각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 드려야죠. 그죠? 벗어나지 못하면 또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그렇게 먹고 사느라고 그냥 극매야 하니 상세계에는 한 번도 오르지 못할 거 아닙니까?

큰 나무를 베어 내야 하는데

질문 저희 집에 아주 오래된 큰 나무가 있어 베어 내야 할 상황인데 그냥 베어 내려니 뭔가 께름칙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일체 중생이 다 그 무심(無心)에 와서 닿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게 무심이기 때문에, 들여놓은 것도 두드러짐이 없고, 그것을 많이 굴려서 내보내도 또 주는 사이가 없다 이겁니다, 영은 영이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영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왜 묘하냐. 그것은 체가 없어서, 만물을 목신 한 가지로 비유할 때, 목신과 내 마음이 한데 한마음이 된다면 내가 목신이 될 수 있고 목신도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자르면 탈이 난다고 하는 것도 둘이 아닌 까닭인데, 그 마음을 내 마음에다 넣어서 한마음이 된다면 그때는 잘라도 괜찮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모두 신중단을 만들어 놓고 영가 위패를 붙여 놓고 하는 그것을 모두 없애도, 그 마음이 한마음으로 들기 때문에 위패는 치워도 된다 이겁니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묘하고, 뜻이 깊고 광대무변한지 모릅니다.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⑨ 붓다가 보여준 존엄한 죽음 (1)

'인생의 완수감', 건강한 임종 이끈다

강력한 진통 효과로 알려져 있는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morphine)을 맞아도 효과가 없었다. 몸에는 이미 모르핀보다 강력한 펜타닐(fentanyl)이라는 마약성 진통제 주사를 연결하고 진통 패치도 붙여둔 상황이었다. 지난 1월 3일 극심한 다리 통증으로 앉고 서는 것이 불가능해 결국은 앰뷸런스를 타야 했다. 그동안 다리에서 느낀 방사통을 참으며 나름대로 관리를 했지만 단순한 디스크가 아닌 '척추전방전위증(척추분리증)'으로 수술은 불가피했고, 심하게 눌린 신경으로 인해 수술 후에도 통증이 사라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통증과 함께 떠오른 것은 죽음이었고 불안과 슬픔으로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다. 이 글을 연재하는 내가 직접 겪은 고통이다.

죽음과 고통은 삶에서 마주하는 극렬한 과제다. 하지만 가장 외면하고 싶은 주제기도 하다. 어쩔 수 없이 마주할 때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되지만 감당할 방법이 마땅하게 없어 속수무책이 된다.

죽음을 다루는 심리학은 인류의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짧다. 전통적으로 죽음은 종교와 철학의 영역이었고 종교는 사후세계에 대한 안내와 위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심리학에서는 프로이트가 1917년에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우울을 다루는 〈애도와 우울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목격하면서 본격적으로 죽음과 삶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키에르케고르, 니체, 하이데거, 사르트르, 부버 등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맹렬한 논의는 관심을 끌었고 실존주의 심리학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런 노력과 논의에도 죽음에 관련된 학문은 20세기 중반에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죽음학이라는 용어 '타나톨리지(thanatology)'를 최초로 사용한 러시아 생물학자 엘리 메치니코프와 죽음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허만 파이펠 등에 대한 설명은 차치하고, 죽음에 대한 연구는 의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인류학, 법학, 철학, 종교 등 인류의 삶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주제가 됐다.

심리학에서 죽음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가 불안이다. 죽음불안은 단순히 죽음을 마주할 때 느끼는 정서를 넘어 모든 불안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발달심리학자들은 만2세 아동들이 크고 작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생명의 유한을 인식하게 되고 만3세부터 6세에는 부모와 자신의 죽음을 알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죽음은 태어난 이후부터 계속 우리 곁에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다. 죽음을 외면하고 억압하고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심리적 방어는 특별함을 추구하는 허영심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존재의 영속성을 위해 자녀와 동일시하는 모습도 보인다. 구원을 추구하는 맹목적 모습과 돈에 대한 집착과 중독 증상도 깊이 들여다보면 죽음불안이 기저에 깔려있다.

부처님도 신체 고통 마주하셨다
이 순간을 살며 죽음 기억해야

죽음불안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치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회피하지 않는 자세'다. 이 시대 실존주의 심리치료의 대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어빈 얄롬은 죽음불안을 주제로 환자들을 만났다. 그는 "건강하고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음, 고독, 무의미와 같은 실존적 조건을 용기 있게 직면해야 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칼럼에서도 말했지만 직면과 수용은 심리치료의 첫 번째 열쇠다. 직면과 수용은 알아차림의 또 다른 이름이라 생각한다.

삶의 모든 문제를 직면한 위대한 스승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병원에서 통증이 사그라질 때쯤 석가모니 부처님이 신체적 고통을 마주한 장면을 책에서 읽고 울컥했다. 고통쯤은 쉽게 이겨낼 것이라는 구원 환상이 무너지고 인간이신 붓다를 마주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체의 고통이 있는 붓다에게서 위로를 받았다. '부처님도 아프셨다'란 사실과 열반의 과정은 고통과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과제를 완벽하게 풀어놓은 해답지를 보는 것 같았다.

책 〈고타마 붓다의 생애〉에서는 붓다의 고통에 대해 "마치 죽음으로 이끄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엄습해왔다"고 한다. 암바팔리를 떠나 우기를 맞아 비구스님들께 베살리(Vesālī)에서 수행할 것을 당부한 이후였다. 고통의 순간 붓다는 승단에 아무런 말없이 떠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정해진 수명까지 살아낼 것을 다짐하고 고통을 감수했다. 회복 후 나무 그늘에 앉아있을 때 아난다가 붓다의 안색이 안 좋은 것을 살피며 "교단에 지침을 남겨주지 않고 떠나시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니 안심이 된다"고 말한다.

붓다는 이에 대해 "너희는 무엇을 내게 바라느냐? 나는 안과 밖이 다르게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열반에 대해 알리는 것 외에는 할 일을 마쳤다는 말이다. 붓다는 의식과 말과 몸(행동)이 일치했고 붓다의 일상과 삶이 가르침이었다. 달리 더 이상 전할 가르침이 없다는 뜻이다. 이는 죽음을 직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다. 임종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좋은 죽음을 연구한 스타인하우저에 따르면 '인생의 완수감'을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특징으로 꼽았다. 인생의 완수감은 "알아차림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면서(carpe diem) 죽음을 기억하는 것(memento mori)"이 열쇠라고 확신한다.



홍재화의
걷기삼매경

③ 걷기의 새로운 트렌드, 어싱 (上)

맨발로 걸으니…걷기에 온 신경 집중

〈본 투 런〉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세계 최고의 울트라마라토너(정규 마라톤 코스인 42.195㎞를 뛰는 경주자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경주는 보통 100㎞, 150㎞다)와 멕시코의 숨겨진 원시부족 타라우마라족이 벌이는 경주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미국의 울트라마라토너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가장 비싸고 최고로 과학화된 신발을 신음에도 불구하고 발에 부상이 잦다는 점이다. 이에 비하여 타라우마라족은 아주 가볍고 얇은 '와랏치'라는 전통적인 신발(소가죽으로 만든 샌들)을 신고 달리지만, 부상을 걱정하지 않는다.

이 두 부류를 오랫동안 비교하고, 연구 자료를 검토한 저자는 신발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결국 맨발이 과학화된 신발보다 훨씬 달리기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2009년을 전후해서 신발업계는 맨발신발을 강조하는 제품을 쏟아내었다. 신발의 주된 특성이 맨발(barefoot)이다 보니 나도 맨발로 걷고 달리기를 경험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한국에도 맨발 달리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음을 알았고, 더구나 맨발로 산악이나 장거리 달리기하는 울트라 러닝 클럽도 있었다.

달리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는 걷기를 체험하기로 했다. 맨발로 산을 걷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혼자 북한산, 수락산이나 도봉산을 맨발로 걷기 시작해서 이제는 때때로 산을 맨발로 올라간다. 동네 뒷산인 개운산에 있는 운동장에서 신을 벗고 걷기는 자주 한다.

신을 신고 걸을 때와 맨발로 걸을 때, 같은 땅을 딛고 있어도 세상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사뭇 달라진다. 맨발로 세상에 섰을 때는 대지가 주는 느낌을 받으려고 신경을 발바닥에 집중하면서 걷는다. 그러면 내가 지구와 접촉하고 있다는 쾌감이 온몸을 감싼다.

틱낫한 스님은 그의 책 〈걷기 명상〉에서 지구별 위를 걷는다는 것은 매우 멋진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구별 위에서 걷는 한 걸음마다 발아래 있는 든든한 대지에 감사해야 한다고 썼다. 한걸음 떼어놓을 때마다 살아 있음의 기적이 생겨나고, 걸음마다 나를 실재하는 사람으로, 지구를 실재하는 존재로 실감하게 된다.

땅에 닿는 발바닥 신경에 집중하다 보면, 나의 존재는 머리가 아닌 발바닥으로 내려가 있다. 그러면서 지구별 위에 인장 찍듯 찬찬히 걷다 보면 지구는 따스한 온기로, 차가운 시원함으로, 뾰족한 따끔함과 진흙의 질펀한 온정을 내게로 전해준다. 생명력 있는 존재로서의 지구, 가이아와 나는 그렇게 교감한다. 맨발로 산을 걸으면 가이아가 주는 경이로움에 생의 새로운 의욕과 감사로 충만해진다.



사진출처=Unsplash

땅 닿는 발바닥 신경에 집중하다보면
내 존재는 머리가 아닌 발바닥에 있다
지구는 온기와 시원함을 내게 전해줘

북한산 백운산장까지 맨발로 오른 적이 있다. 정말이지 올라가는 내내 한 걸음 한 걸음에 신경이 쓰였다. 그야말로 이전에 듣던 '천하를 움직이듯이 너의 발걸음을 움직여라'라는 말들이 실감났다. 나를 보는 사람들은 걱정 반, 부러움 반으로 '괜찮으세요'하면서 지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한 사람처럼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게 나로서도 신기했다.

산장에서 내려오기는 올라가기보다 더 어려웠는데, 오를 때보다 발이 민감해져서 그런 듯하다. 그렇게 왕복 5시간 동안 온전히 걷는 데만 신경을 집중했다. 발바닥이 땅에 닿을 대의 고통이 생각보다 심했다. 그 길은 흙길이 아니라 잔자갈이 많은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다 내려와서 계곡에 졸졸 흐르는 물에 그대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의 상쾌함, 시원함은 그 아픔을 충분히 보상해줬다.

요즘 산을 가다 보면 전보다 맨발로 걷는 사람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을 맨발로 걷는 주된 이유는 건강 때문이다. 서울 대모산에서 '맨발걷기 숲길 힐링스쿨'을 매주 토요일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박동창 회장은 〈동아일보〉와 2020년 9월 한 인터뷰에서 맨발걷기가 면역력을 높이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지압효과(Reflexology)에 대해 접지효과(Earthing)가 있다고 한다. 맨발로 맨땅을 걸으면 지표면에 놓여 있는 돌멩이나 나무뿌리, 나뭇가지 등 다양한 물질이 발바닥의 각 부위와 상호마찰하고, 땅과 그 위에 놓인 각종 물질이 발바닥의 각 반사구를 눌러준다. 자연 지압인 것이다. 한의학에서도 맨발걷기를 권장하고 있다. 지압 중에선 발바닥 아치가 주는 효과도 중요하다. 인체공학적으로 아치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발밑에서부터 피를 잘 돌게 해야 하는데 신발을 신으면서 그런 효과가 사라졌다. 신발이 만병의 근원이다."

신발 깔창 때문에 아치가 압축 이완이 덜되고 부도체인 고무가 접지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접지는 맨발로 땅을 밟는 행위다. 시멘트 아스팔트 등은 효과가 없다. 우리 몸에 3~6볼트의 양전하가 흐르는데 땅과 맨발로 만나는 순간 0볼트가 된다. 땅의 음전하와 만나 중성화된다. 이때 우리 몸에 쌓인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가 빠져나간다.

〈비바미(Viva!me) 대표〉

어싱 매트·베개·온열방석 특판 할인

※ 어싱(Earthing)이란, 한마디로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맨발로 걷거나 앉아있고 누워있음으로 인해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으로 대지의 어머니와 만나 소통한다는 의미가 있다. 음이온, 음전하, 음전자가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구는 거대한 음전하를 띠고 있다. 어씽을 하면 음전하가 몸에 유입되어 유해한 활성산소를 억제한다. 염증반응을 줄이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몸이 자연스레 밸런스를 찾게 된다.

그래핀 어싱 건강용품 판매 기념
전 구매고객 구절초 샴푸 증정
기간 : 2024년 1월 25일~2월 13일

그래핀 어싱 건강용품 할인가
찜질(디톡스) + 어싱(맨발걷기) + 온열(체온면역)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팥)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팥) S
판매가 1,980,000
⇒ 할인가 1,800,000
15만원 상당 전신찜질팩 증정

매일 30분, 찜질로 면역력깨움!
그래핀 온열 어싱매트
#깊은잠 #면역력 #건강회복 #붓기 #몸이개운해짐 #정신건강
15만원 상당 전신찜질팩 증정
찜질 디톡스 + 어싱 맨발걷기 + 온열 체온.면역
일반 전기 열선 매트 vs 돌꽃잠 탄소원적외선발열체
※열선이 없습니다!
그래핀 원적외선 어싱매트는 70℃에서도 열음이 녹지 않습니다

하루 15분
하루 15분, 앉아만 계세요!
그래핀 좌훈 케겔운동기
#케겔 #좌훈 #남녀공용 #근적외선 #하체코어근육 #항문질환 #음파운동기
그래핀어싱 맨발걷기 / 근적외선 LED매라피 / 블루투스 스피커 / 원적외선 좌훈.좌욕
9만원 상당 어깨찜질팩 증정
사운드테라피 : 고래소리의 비밀
소리와 파동(음파)으로 사람의 신체를 공명시키는 비침습적 음악치료
-물속은 공기보다 5배 빠른 전파력
(돌고래-음파+초음파로 대화)
-우리몸의 수분(혈액)을 매질로 이용, 치유하는 음파

숨 그래핀 어싱 베개(아치형)
특허청 / KAA 대한아토피협회 / FITI테스트 항균99.9% / FITI테스트 6대중금속 검출안됨 / KATRI(한국의류시험연구원) 테스트 완료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S 판매가 1,880,000 ⇒ 할인가 1,780,000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Q 판매가 2,250,000 ⇒ 할인가 1,980,000
좌훈 음파 케겔 운동기 판매가 1,200,000 ⇒ 할인가 1,080,000
그래핀 어싱 베개 (아치형) [어싱(접지)코드 포함] 판매가 120,000 ⇒ 할인가 84,000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전법 일기

거리 두려 하는 건 싫어서가 아니에요

저녁이면 전화가 울립니다. 며칠마다 오는 전화입니다. 받아야 하나 잠시 망설입니다. 그렇게 몇 번을 고민하다가 받습니다.

"스님, 제가 ○○를 가져다 놓았는데 잘 드시고요. 저는 스님에게 저를 맡기고 삽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연세가 많은 어르신의 당부입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자주 이어집니다. 조금씩 오는 전화가 부담이 되어갑니다. '사랑 받는 자식의 기분이 이런 것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사랑을 받을 만큼 저는 그분을 위해 충분히 마음을 내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매주 쌓여가는 사랑의 선물에 저의 그릇이 작아 그것을 다 담을 수 없어서 넘치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신 부처님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그래서 부처님이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떠돌아다니라고 한 것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사람은 오고가는 마음이 있으면 정을 느끼고 정이 커지면 이렇게 오고가는 마음의 무게가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 짐이 커지면 서로가 힘겨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벗어보려고 노력해보기도 합니다.

그러자고 그 인연을 떠나자니 마냥 떠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전화하면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반은 당신이 양보하고 반은 내가 양보합니다. 이렇게 하니 관계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저는 고마움을 표하고 저의 불편함도 말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이해하고 노력합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당신이 필요한 말만 하시고 전화를 끊어줍니다. 오히려 점점 관계하는 방식이 건강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에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절에서 키우려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 키워준 은사스님에게 보은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돌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와서 혹여 어른들의 눈치에 불편해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 방에서 함께 자고 이곳에 정이 들도록 품에 안았습니다.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에 절에 들어오는데 그 아이가 비를 맞으며 바깥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덜컹 내려앉고 아팠습니다. "왜 방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라고 물었더니 "그냥 기다렸어요"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하던 물기 젖은 눈망울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석 달 후에 부친이 다시 데리고 가긴 했지만 그 뒤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정을 나눌 그릇이 너무 작다는 것을 느낍니다. 감당할 만큼 제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이 없는 관계가 편합니다. 정이 많아서 정을 더 두려워합니다. 정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고 어릴 적 경험이 없기 때문인 듯합니다. 아직도 두렵습니다.

전화가 두려웠던 것이 아니고 귀찮았던 것이 아니고 정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전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미타선원장 하림 스님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② 만해 한용운 스님의 오도송

마음이 부처임을 믿으면 부처

사나이 가는 곳이 바로 고향인 것을(男兒到處是故鄕)
나그네 인생 시름 속에 길게 헤매이네(幾人長在客愁中)
깨달음의 고함 악! 하고 외치니 삼천세계 깨지고(一聲喝破三千界)
눈 속에 붉은 복사꽃은 조각조각 흩날리네(雪裡桃花片片紅)

이 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 39세(1917년 12월 3일 밤 10시경)에 설악산 백담사 오세암에서 좌선을 하던 중 갑자기 분 바람에 무슨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어 지은 오도송이다.

칠언절구의 이 시는 전형적인 근체시의 시의 형식인 압운(押韻: 鄕, 中, 紅)과 대구(對句)가 잘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탁월한 명품 선시이다.

기승전결에 따라 살펴보면 기구에서 "사나이 가는 곳이 바로 고향인 것을"이라고 자신의 오도의 경지를 노래했다. 당나라 마조대사는 "마음이 부처"라고 했다. 오직 마음만이 세상과 사물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이 부처"라고 한 것이다. 내 마음이 부처인 것을 믿으면 부처이고, 내 마음이 중생이라고 믿으면 중생이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했다.

같은 세상에 살아도 사람들의 생각이 각기 다르다. 자기 생각이 자기의 세상이다. 만해는 이 도리를 아는 자를 '남아 대장부'라고 표현했다. 고향은 가장 편안한 자기 집이다. 정토이다. 깨달음의 세계이다.

칠언절구 오도송, 내용 탁월해
'고향=정토' 알면 '남아 대장부'
독립운동 주도한 기개도 확인

그런데 인간들은 미몽과 망상, 집착 속에서 헤맨다. 그래서 승구에서 "나그네 인생 시름 속에 길게 헤매이네"라고 읊었다. 진리를 모르면 인생의 밤길이 멀고 길다.

전구에서 만해는 화두공안을 깨뜨리고 깨달음을 얻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립문자의 경계다. 이것을 당나라 임제(臨濟) 선사는 "할(喝)"로 표현했다. 그동안 깜깜했던 무명(無明)과 의심의 세계,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이치가 모두 깨지고 온 세상이 광명이다.

이런 경계를 "눈 속에 붉은 복사꽃은 조각조각 흩날리네"고 갈무리했다. 절창이다. 흰 눈 속에서 붉은 복사꽃이 필 수는 없다. 선가에서는 이런 언어도단(言語道斷)적인 표현으로 깨달음의 세계를 나타냈다. 이 경계를 방거사는 "아름다운 눈송이가 송이송이 떨어지는구나(好雪片片 不落別處)"라고 노래했다.

3구와 4구에서 색성오도(色聲悟道)의 대구를 이룬다. 3구는 '고함소리 할' 즉, '소리(聲)'이고, 4구는 '흰 눈 속의 붉은 복사꽃' 즉, '색깔(色)'이다. 구도자가 깨달음을 얻을 때는 먼저 우리의 감각기관인 눈으로 색깔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들어서 세계를 이해하고 인식해서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의 의식 활동의 첫 출발이다. 향엄 선사는 대나무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고(香嚴擊竹), 영운 선사는 복숭아꽃을 보고 깨달았다(靈雲桃花)는 일화가 있다.

만해가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쾌거인 1919년 3·1운동을 주도해 차가운 감옥에서도 끝까지 일제의 회유나 강압에 굴복하지 않고 지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나이 가는 곳이 바로 고향인 것을"이라고 외친 그의 깨달음의 실천이다.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전미개오(轉迷開悟)하는 선사의 투철한 오도(悟道) 정신은 한국문학사에서 전통적인 한시의 형식에서 한글로 쓰는 자유시로 건너오는 교량적인 시기에 한시와 한글시, 시조 모두를 잘 구사할 수 있었고, 불멸의 시집인 〈님의 침묵〉을 발표해 당시 서정시 수준을 구사하던 황무지였던 시단에 심오한 사상과 철학을 지닌 관념적인 시를 선사할 수 있었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신행의 발자취

1월 20~28일 동국대 전 이사장이자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과 인도 순례를 다녀왔다. 2001년 11월, 부처님 전에 금강경 10만 독을 발원한 법산 스님이 최근 7만독을 성만하면서 이뤄진 자리다. 이번 순례가 뜻깊었던 것은 해성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연화원 장애인불자들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법산 스님은 장애인불자들과 남다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동국대 정년퇴직 후 15년이 넘는 지금까지 매월 둘째 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에 방문, 장애인불자들과 함께 금강경을 읽으며 부처님법을 전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불자들을 위한 〈점자 금강경〉을 보시하고 다양한 점자 불교 서적 발간을 지원하면서 장애인불자들의 신행활동에 있어 든든한 조력자가 돼주고 있다.

십수 년간 법회에서 함께 정진해온 시각장애인불자 3명, 청각장애인불자 2명 그리고 봉사자들과 함께한 이번 인도 순례에서는 이들의 발길이 닿는 부처님 성지 곳곳마다 연화장 세계가 펼쳐졌다. 순례자들은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몸이 불편해도 어떠한 걸림돌 없이 세상과 연결된 곳에서 모두가 차별 없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정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모진 고난에도 신심의 끈을 놓지 않고, 삶을 가로막는 장애를 그윽한 법향으로 승화시킨 장애인불자들의 모습은 감동적인 실화이자 누군가에게는 정진을 이끄는 죽비소리가 됐다.

"성지순례길에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 하물며 부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쫓은 이번 인도 순례자들은 그 누구도 모를 값진 경험을 얻었을 테다.

이번 순례는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가행정진을 향한 견고한 발심의 기둥이자 불자의 자긍심을 드높여주는 디딤돌이 되어주었음에 분명하다. 장애인불자들의 진솔하면서도 금강석처럼 단단한 신행의 발자취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불교와의 인연을 맺어주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나날이 굳는 간 고통보다 더 큰
사진으로 만난 7살 딸 향한 그리움"

네팔 이주민 키란씨, 간 수치 일반인 40배 · 경화
수술받았으나…병원 빚 1400만원에 앞날 막막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화엄, '함께 살자'는 가르침

현불논단



무상 법현 스님
열린선원 선원장

국민들의 뜻을 대신해 의견을 모으고 결정해서 실행할 대표를 뽑는 총선이 다가온다. 지역사회, 광역사회, 국가, 지구촌의 내일에 영향을 미칠 나의 대행자를 뽑는 중요한 일이다. 붓다와 조사들의 가르침을 적용하려 노력하는 불자(승려, 신도)들은 어떤 사유를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할까?

말이 말씀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좀 높여 경(經, sutra)이 되고 전(典, canon)이 된다. 말로 하면 흩어지니 글로 썼다가 지운다. 그림으로 그리면 글 몰라도 조금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이래저래 바뀐다. 그래서 흩어버린다. 돌가루 긁어내서 그리는 그림인 만다라를 그리는 티베트 승려들을 보았을 게다.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가 곧 지워버리는 까닭을 아는가? 말이나 글은 모으면 뜻이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흩어져 뜻을 유지하지 못하니 흩어버린다.

일본 나가노 젠코지(善光寺) 충혼당 지하 박물관에 달라이라마와 함께 간 승려들이 그린 만다라는 아직까지 보존 전시하고 있다. 까닭이 있으면 보존한다. 한국 사찰에서 큰 행사 또는 천도재에 도량(법당)에 써 걸었던 번(幡)들을 태우는 것도 같은 까닭이다.

만트라보다 더 힘 있는 것이 무드라(mudra)다. 신라 문무왕 때 당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나라도 작고 군대도 적고 무기도 시원치 않아서였다. 훌륭하신 불보살님을 따

총선 앞두고 한국사회, 갈라치기 만연
가름은 스스로의 프레임에 갇히는 일
꽃잎 모여 꽃 이루듯 함께 해야 산다

르는 고승인 명랑(明朗) 법사를 청해 방법을 물으니 문두루 비법을 활용해 대군이 감히 넘볼 수 없게 서해바다에 커다란 풍랑을 일게 했다. 이때 '문두루(文豆婁)'가 '무드라'다. 요즘 우리는 결인(結印) 또는 수인(手印)작법이라 한다. 불상이나 탱화를 조성해 큰스님을 모셔서 점안(點眼) 또는 개광(開光)을 한다. 또, 천도재를 지낼 때 병풍 앞에서 수인, 결인 작법을 시행한다.

영화 〈나랏말싸미〉에서 사찰 건립 불상점안과 왕후의 49재를 봉행하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했다. 본래 동시에 하지는 않는다. 팔만대장경판을 달라고 떼쓰는 일본 승려들에게 한글 만든 신미대사와 제자들이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면서 제압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것이 만트라 작법이다. 가르침이다. 말씀으로 또 글로, 그림으로 또 동작 표정으로 모두 다 아울러 진리·가르침·말씀·말을 나타내고 실천하고 싶은 마음을 다들 가지고 있으리라. 개인의 일도 있고 겨레, 나라의 일도 있다.

우리 겨레가 많이, 자주들 읽고 외우며 전하고 실천하는 가르침이 한둘은 아닐 것이다. 한국불교에서의 가르침을 꼽자면 화엄이리라. 화엄사상은 우주의 모든 사물은 그 어느 하나도 홀로 있거나 홀로 일어나는 일이 없고 모두가 서로의 원인이 되며, 대립을 초월하여 하나로 융합하고 있다는 법계연기의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법계연기의 세계는 그 자체로 부처의 자비가 충만한 연화장 세계이다. 화려한 장엄을 한 송이 꽃이라 하니 하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찬찬이 살펴보면 한 잎 한 잎이 모여서 커다란 한 송이 꽃을 이루듯 각기 다른 꽃잎 같은 사람들이 겨레, 나라를 이룬다. 그러니 각자 행복하고 자유롭게 잘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면 하나로 같은 '함께'가 된다. 시대의 외적은 가름이요, 갈라치기, 가름의 틀(相, frame)에 스스로 갇히는 것이 아닐까 잘 살펴보자.

유산의 시대가 온다

〈遺産〉

세간과 출세간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수년간 '문화재' 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최근의 사례로는 1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5월에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배경은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문화재보호법'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1월 30일 열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최 불교대축전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오는 5월 개편되는 국가유산청 안에 종교유산협력관을 신설해 불교 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은 2022년 '문화재(文化財)' 용어를 공식 폐기하고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유산(遺産, Heritage)'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유산으로 '자연', '문화', '무형'으로 정립하기로 한 결정이 배경이다.

앞서 2021년에는 '국보 1호 숭례문' 등의 관리번호를 폐기하고 '국보 숭례문'으로 명명함으로써 관리의 편의성보다는 유산의 가치를 존중하도록 했다.

사실, 문화재라는 용어를 쓰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이다. 일본은 1950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재물적 관점을 중심에 뒀고, 일본의 법을 모방해 1961년 제정한 한국의 문화재보호법

올 5월, 문화재청→국가유산청 변화
문화재 아닌 '유산' 체재로 전환돼
유산 보존 점 단위서 면으로 확장
종합적 보존 중요한 불교유산 '유리'

도 유산을 사물화, 대상화함으로 인격적 가치가 훼손당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사람에게 전승되는 무형유산에 있어 '무형문화재 몇 호'라고 관리하는 것은 인격 말살이라는 반발을 불러왔다.

문화재는 유산의 전체 역사에서 점(點) 단위로 분리하여 보관하겠다는 논리이고 이는 과거 약탈을 일삼은 제국의 입장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유산은 역사적 배경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제는 개별 단위인 점이 아닌 출처와 불가분인 면(面)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로써 유산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유산 등재 10위 국가이다. 총 55건의 세계(자연, 문화)유산, 기록과 무형유산이 등재되어 있다. 이 중에 불교유산은 해인사 장경판전, 석굴암 불국사, 산사 등 3건 10곳이다. 지난해 미국이 유네스코에 재가입함으로 회원국은 194개국인데 한 건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지 못한 30여 나라가 있다는 점에서 불교유산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이같이 세계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 불교유산은 문화재의 시대가 아닌 국가유산의 시대에 가장 부합하다. 따라서 점 단위 보호정책에서 자연과 역사가 있는 면 단위로 확장되고,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 시공간(時空間)으로 확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2년 시행된 역사문화권 특별법으로 신라, 백제, 가야, 마한의 불교 문명의 가치발굴과 확산을 통해 문화포교를 확대하고 문화 진흥을 이루는 일이 필요하다.

社 說

'종교 감수성' 부족했던 尹대통령 선물

2020년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불교계에 황교안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명의의 선물이 도착했다. 선물을 열어본 스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안에는 소고기 육포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표가 사과했지만, 평소 독실한 개신교인으로 알려져 있어 비판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2024년 1월 똑같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불교계에 보낸 선물이 문제가 됐다. 선물은 차례용 백일주, 유자청, 잣,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됐는데, 불교계를 위해선 특별히 아카시아꿀, 유자청, 잣, 표고채를 준비했다. 그러나 선물을 담은 상자에는 묵주를 들고 있는 여인, 십자가, 교회, 성당 등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 논란이 됐다. 동봉된 엽서에는 기독교 기도문이 담겨 논란은 가중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진화에 나섰다. 진우 스님은 대통령실 성의에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2020년, 2024년 벌어진 두 사건은 해당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다종교 시대에 공공영역에서 '종교 감수성'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더군다나 앞으로 한국사회는 종교인보다 무종교인이 많은 탈종교사회로 종교 감수성은 더욱 필요하다. 소록도 한센인의 아픔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종교적 상징물과 기도문까지 내보이며 정부가 부각시킬 이유는 없다. 공공영역에 디테일한 '종교 감수성'이 요구된다.

교구 중심 복지시스템 구축 환영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이 교구별 복지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불교사회복지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조계종복지재단은 1월 29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복지재단 미설립 교구본사를 대상으로 법인 설립을 추진, 교구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단의 계획은 조계종 37대 집행부 핵심사업 중 중점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조계종복지재단에 따르면 현재 재단이 위탁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전국 185개소다. 이중 100여 개의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재단에서 직접 담당하며 그 부담이 가중돼 왔다.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 복지 토대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복지재단은 교구본사의 법인 설립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5개 교구본사 중 현재 15개 교구본사가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10곳의 미설립 교구본사에 복지재단 설립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다는 게 조계종복지재단의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방에서는 복지 사각지대가 수도권보다 훨씬 다양하게 존재한다. 교구본사 복지재단들은 이 같은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이는 대승불교의 가치인 자리이타를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구본사 중심으로 한 복지시스템 구축이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전국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바닷속 거북이 너울너울 춤을 추고
돌장승 노래 부르는 소리
온 천하에 울려 퍼지리!

신간

대행선사 게송 · 선시 모음집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

본 책자에는 선사께서 법회 때 읊으셨던 게송, 선법가 가사로 만들어진 선시,
편지글 속의 게송과 함께 친필 원고 일부가 실려 있습니다.
가격: 20.000원 336쪽 엮은이_(재)한마음선원 출판부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적이야!

개정판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화제의 신간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모네의정원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